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김희진, 서고운, 김미정, 류정희, 권지성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연구보고 21-R15-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저 자 김희진, 서고운, 김미정, 류정희, 권지성

연구진 연구책임 _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정(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지성(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연구보조 _ 지슬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1-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김희진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지슬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김미정 부장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
	한국침례신학 대학교	권지성 교수	—

보고서를 펴내며

본 보고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협동연구의 결과물입니다. 2018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자료들이 점차 축적되면서, 본 연구진은 학술적 차원에서, 그리고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질적종단자료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심층 분석을 기획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동안의 일반적인 양적 실태조사가 아닌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자료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회성 자료 수집에 따른 결과 분석이 아닌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면접에 참여한 패널들의 종단 자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에는 2018년부터 면접에 참여한, 이제 청년연령대의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면접조사 자료들을 심층 분석하였다면, 차년도에는 2020년에 새롭게 패널로 구축되어 면접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면접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들 신규 패널들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본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큰 정책적 변화를 경험한 세대로 또 다른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자료 분석에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해주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김미정 부장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실장님,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권지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면 이 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동연구보고서의 기획과 추진에 같이 애써 준 월내 연구진인 서고운 부연구위원과 지슬비 연구사업운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유성렬 교수님, 조혜영 교수님, 정선욱 교수님, 김진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김 희 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협동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자립 및 진로 실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이에 본 협동연구의 내용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종단자료를 주제별로 심층분석한 것으로,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의 3개 연구로 구성되었음.
-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인기로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종단적 질적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중단하였으며, 복교나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례)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토대로, 개방코딩 및 범주화,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아동기 시절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부정적 생애경험 및 심리·정서적 상태를 일반적인 귀납적 주제 분석을 통하여 연구함.
-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자립 경험에 대하여 분석함. 추가적으로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총 15명의 면접자료 중 '지역사회 경험'부분만을 발췌하여 집중 분석함.

3. 주요결과 및 시사점

1)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학교 밖 경험은 총 4가지 분야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각각 다르게 인식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학교 밖 선택의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궤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고'라는 주제어로 요약이 되었으나, 성인기에는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됨. 학교 밖 선택의 결과가 청소년기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성인기가 되면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이정표 없이 거친 길을 찾아 나서는'으로 정리되었고, 성인기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으로 정리되었음.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학교를 중단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성인기에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셋째, ‘학교 밖에서의 도전’에서는, 청소년기에는 ‘학교 밖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는’으로 요약되었고, 성인기에는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으로 요약됨.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경험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를 찾고 성인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 넷째, ‘사회적 차별과 편견’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으로, 성인기에는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로 요약되어, 청소년기에는 차별과 편견에 상처받지만 성인기가 되면서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호체계의 강화, 터닝포인트 기회 제공,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극복, 내적인 힘 강화와 같은 부분에서 지원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제안됨.

2)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의 갈등, 해체, 가난, 돌봄의 부재(방임),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우울, 학교폭력, 따돌림의 경험을 중복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삶에 만족하거나 삶의 의지를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고 있었음. 사회적 지지체계는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들이었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음.

- 크게 두 가지 정책적 방향성이 제시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계적 지지체계의 회복 및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됨.

3) 학교 밖 청소년(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자립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4단계를 거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여러 상황들과 겹쳐지는 '격발장치'(예 :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인지)를 통해 학교를 중단하는 과정, 둘째,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기간, 셋째,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넷째, 길을 다져 가는 단계였음.
- 이러한 자립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으로는, 가족(예 :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가정 분위기, 가정환경, 부모의 태도, 형제자매, 부모의 일과 자산), 관계망(예 : 친구), 사회서비스체계(지원체계), 지역인프라가 탐색되었음.
-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경험' 부분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익숙함',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불편함'(예 : 교통의 불편함, 쇼핑의 불편함 등), '부족함'(예 : 아는 사람이 없음, 지원 / 자원이 없음)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내실화 전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 향상,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전략이 제안되어짐.

4. 통합적 정책 제언

- 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첫째, 꿈드림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이 여러 방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총괄보고서의 정책과제와 통합되어 제시됨.

방향성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내용
꿈드림 접근성 향상	정보 접근성 향상	다양한 채널(예 : 일간지, 공영방송 등)로 꿈드림 홍보
	물리적 접근성 향상	학교 중단 후에도 교육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 경로 확대
	심리적 접근성 향상	꿈드림 센터의 성공적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뢰도 향상
꿈드림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	다양한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지원, 경제적 지원(주거비, 생활비 등), 재정관리 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터닝포인트’ 기회 제공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 기회 제공, 인턴십 기회 제공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꿈드림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진로상담전문가 배치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필요	‘학교 밖 청소년’ 명칭 재검토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실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차 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5-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내용	5
II.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분석방법	15
1) 연구참여자 특성	15
2) 자료분석	24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26
3. 분석결과	28
1) 학교 밖 선택의 결과	29
2)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35
3) 학교 밖에서의 도전	42
4) 사회적 차별과 편견	49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5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6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2. 분석방법	73
3. 분석결과	76
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76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기 : 심리정서적 상태	85
3)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제	93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4
Ⅳ.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10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2. 분석방법	112
1) 맥락 - 패턴 분석방법	112
2) 연구참여자	113
3) 자료수집과 활용	114
4) 자료분석방법	115
3. 분석결과	116
1) 2018 - 2020년 종단자료 분석	116
2) 2021년 면접 추가 사례	167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82
Ⅴ. 요약 및 시사점	185
1. 연구 요약	187
1)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구 요약	187
2) 「학교 밖 청소년기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연구 요약	189
3) 「학교 밖 청소년(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종단연구」 요약	191
2. 통합적 정책 제언	193
참고문헌	195

표 목차

표 I-1. 협동연구보고서 장별 심층분석 주제 및 분석 개요	6
표 II-1. 연구참여자 특성	16
표 II-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후 학교 밖 생활 경험 결과	28
표 III-1. 연구참여자 현황	74
표 III-2. 본 분석에 활용된 주요 면접내용	74
표 III-3. 조사참여자의 가족유형 및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76
표 III-4.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77
표 IV-1. 연구참여자 특성	113
표 IV-2. 면접조사 내용	114
표 IV-3.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	180

그림 목차

그림 Ⅲ-1.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의 관계성	72
그림 Ⅳ-1. 사례 1의 자립 맥락과 패턴	118
그림 Ⅳ-2. 사례 2의 자립 맥락과 패턴	123
그림 Ⅳ-3. 사례 3의 자립 맥락과 패턴	126
그림 Ⅳ-4. 사례 4의 자립 맥락과 패턴	130
그림 Ⅳ-5. 사례 5의 자립 맥락과 패턴	133
그림 Ⅳ-6. 사례 6의 자립 맥락과 패턴	137
그림 Ⅳ-7. 사례 7의 자립 맥락과 패턴	141
그림 Ⅳ-8. 사례 8의 자립 맥락과 패턴	145
그림 Ⅳ-9. 사례 9의 자립 맥락과 패턴	149
그림 Ⅳ-10. 통합된 자립의 맥락과 패턴	154
그림 Ⅳ-11. 사례 10의 자립 맥락과 패턴	169
그림 Ⅳ-12. 사례 11의 자립 맥락과 패턴	172
그림 Ⅳ-13. 사례 12의 자립 맥락과 패턴	175
그림 Ⅴ-1. 통합적 정책 제언	193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이후의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과거 제도권 교육에서 중도에 이탈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낙인, 차별에 더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인 개인적, 심리적 사유와 학교부적응 및 가정환경적인 어려움은 이후 청소년의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또한 현재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교육을 떠났다는 이유가 더해져 이중적인 불이익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이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는 2021년 현재 4차년도까지 수행되면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1) 제1장 서론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대상으로 한 대규모 양적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한 종단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관련 학술연구의 수행 및 발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013년의 학교 밖 청소년 양적패널로 구축된 청소년 패널 776명은 당시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었다(윤철경, 김신영, 임지연, 2013). 이들 중 2017년까지 패널로 유지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업, 직업형, 무업형 등 이행 경로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를 안배하여 60명을 선정하여 2018년에 1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a). 2019년의 2차 조사에서는 이들 중 48명이 면접조사에 응하였고(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2020년에는 3차 조사 대상으로서 이들을 컨택하여 그 중 42명이 면접조사와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면접조사 22명, 패널관리조사 20명)²⁾ (김희진 외, 2020). 2021년에는 이중 38명에 대한 컨택이 성공하여 2020년에는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했던 중소도시 지역 패널 18명이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패널관리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이탈한 패널들을 제외한, 수십명의 패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질적조사 자료가 축적되었다. 2020 ~ 2021년 조사에서는 패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면접조사 참여에 차이가 있었으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 현재생활 및 학업과 취업관련 진로발달 상황, 학교중단 인식 변화, 경제적 상황 및 자립 실태, 지역사회 지원 및 지원 요구 등에 대한 방대한 종단 질적자료가 수집되었다.

2) 2020년에는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연구인력 및 일정, 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대도시 지원방안 도출이 주요 연구 목적임을 고려하여 기존 패널의 경우 대도시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조사를, 그리고 다른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패널관리조사를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0).

과거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시작되기 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기로 이행함에 따라, 오래전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결정에 대한 인식과 이후 진로발달 상황 및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종단적인 질적 자료는 매우 유의미한 분석 자료이다. 이에 본 협동연구보고서를 통해 질적 종단자료에 대한 다양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근거기반정책(evidence - based policy)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내용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성인기에 진입하였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종단자료 분석은 2020년 연구(김희진 외, 2020)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대도시 거주자 22명에 대해 2020년에 3차 조사가 완료되면서 이들이 2018 ~ 2020년에 보고한 자신의 상태와 진로발달상황과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자료가 수집되었다(김희진 외, 2020). 이에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진로발달관련 경험, 지원서비스 경험 및 요구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판단된 패널 중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등 학교 밖 유형을 안배하여 총 11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종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김희진 외, 2020). 분석 결과, 청소년기 시절 과거 자신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떠났으나 대학 및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조사 당시까지 계속 취업준비를 하는 무업형의 패널도 있는 등 과거 학교를 그만두고 성인기에 진입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과 변화 과정을 보여 주었다(김희진 외, 2020).

이러한 시범적인 종단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2021년 협동연구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광범위한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현재 상태, 인식의 변화 등을 의미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3명의 전문가가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주제영역별로 각자 초점을 달리하여 해당하는 조사 참여자의 질적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원인과 함께 학교 밖 생활과 이후 성인기까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 복교나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총 12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면접에 성실히 참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주제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석방법으로, Glaser와 Strauss(1967)의 코딩방법을 적용하여 개방 코딩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범주화하면서 이후 축 코딩과 선택적 코딩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1. 협동연구보고서 장별 심층 분석 주제 및 분석 개요

연구주제	분석 사례 수	분석방법	chapter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 연구	12명 (성별 : 남,여 각각 6명)	Glaser와 Strauss(1967)*의 코딩 방법 통한 개방 코딩 및 범주화, 축코딩 · 선택적 코딩 거쳐 자료 분석	2장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14명 (남 : 8명, 여 : 6명)	일반적인 귀납적 주제 분석	3장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12명** (남 : 6명, 여 : 6명)	맥락-패턴 분석방법	4장

* Strauss와 Corbin(1988)의 근거이론을 적용한 것은 아니며 분석방법을 달리함.

** 12명 분석 후, 추가적으로 2018, 2019, 2021년 면접조사에 참여한(중소도시 / 읍·면지역) 15명의 면접 자료 중, '지역사회 경험' 부분을 발췌하여 분석

학교 밖 청소년과의 면접 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가정 환경적으로 아동기 시절부터 상당수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성장하면서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두 번째 연구는 14명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 아동기 시절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학교를 떠나 이제 성인기에 진입한 12명 패널들의 성장 및 진로발달과 자립에 이르는 과정을 ‘맥락 - 패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맥락 - 패턴 분석방법’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개별적인 사물과 의미들을 이해하고 상호 연결된 맥락 구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권지성, 2018), 종단 질적자료 분석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다른 추가적으로 조사 완료된 일부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본 심층 분석을 기획, 추진하면서 연구진과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본 자료의 수집 배경 및 경과를 포함한 본 질적 종단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주제 및 내용, 방식과 결과 도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였다. 협동연구 초반에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사례 선정과 분석과정, 결과 도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율성에 맡겼다. 일부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분석에 초점을 두는 주제나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심층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후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석과정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말미에는 보다 신뢰할 만한 질적분석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심층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와 질적연구 전문가, 또 본 협동연구를 기획한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질적연구 방법론과 분석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검토 및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의견은 심층분석 연구를 마무리하기 전 반영토록 하였다.

질적자료의 경우 양적자료에 비해 민감하며 상세한 개인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익명화하여 엄밀한 보안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양적자료에 비해 연구윤리차원에서 그 위험이 클 수 있다. 이에 신뢰할만한 관련 전문가들을 공동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과정은 축적된 질적종단자료 활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대한 위험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축적된 질적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 초점을 달리한 심층 분석 시도는 이후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이제 청년이 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패널들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면, 차년도 연구에서는 2020년에 신규로 구축된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축적된 종단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패널들의 조사결과와의 비교, 또는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실증데이터에 기반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장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 연구³⁾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청소년의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5만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⁴⁾. 최근 청소년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학업중단율⁵⁾이 2016년 0.89%에서 2019년 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교육부, 2020.08.2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제도는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45.4%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중단을 후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 부재’ 52.8%, ‘친구 사귄 기회 감소’ 50.1%, ‘교복 입을 기회부재’ 47.9%, ‘졸업장을 받지 못함’ 44.0% 등이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b).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및 또래관계의 갈등 및 단절로

3) 제2장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김미정 부장이 집필하였다.

4)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의 교육통계서비스 : 학업중단현황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하였다 (https://kess.chedi.re.kr/stats/school?jsessionid=gZH7HGv1CdRarbsuoO63UvqRxYBYhClmtPYLopwbQhW6ozU1JnL1cyZYJMzhiSXO?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5)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며,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경험 중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를 중단하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등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업중단율은 기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으로 표기하였다.

이어지기도 하며, 진로탐색이나 활동, 취업에 있어 위축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이화명, 김영미, 2017). 이와는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유시간이 증가 72.8%, 하고 싶었던 일을 함 69.4%, 학교 규칙 및 통제를 벗어남 35.1% 등이다(윤철경 외, 2018b). 즉,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이 39.6%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b).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소수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문제야로 보거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하기도 한다(명소연, 조진욱, 2016; 윤철경 외, 2018b; 이지연, 조아미, 2021).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경험을 살펴보면, 이주연, 정제영(2015)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12명의 15세 ~ 19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 중단 결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근거이론을 적용한 결과 학업중단 후회집단의 주요 요인은 학교 밖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었으며, 학교 안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학교 밖에서 대안을 찾은 경우는 오히려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만족집단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이주연, 정제영, 2015). 명소연, 조진욱(2016)은 정규학업 과정을 그만 둔지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8세 이하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학교를 그만둔 과정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존재의 혼란기', '고군분투저항기', '새로운 존재와의 조우기' 등의 학교 밖 생활 경험과 성장과정을

조명하였다(명소연 외, 2016:75). 김현주와 박재연(2019)은 20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센터 내방 횟수 5회 이상인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고, 이를 학업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은 학교부적응과 귀찮음, 대안학교 진학, 가정불화와 도벽 등으로 분류되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125). 학업중단 이후 생활은 검정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 대안학교 진학, 자격증 준비 등으로 드러났으며(김현주, 박재연, 2019:126),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필요로 하는 지원 수요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지원, 또래 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편안한 공간으로 보고하였다(김현주, 박재연, 2019:12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 경험을 살펴보면, 유진이와 신호민(2018)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준비하는 경험과 관련하여 19세 이하 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고, 사회적 인식 우려, 검정고시 준비, 진로설계 실천, 미래 준비와 같은 연구결과가 탐색되었다(유진이, 신호민, 2018:34).

이지연, 조아미(2021)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낙인경험 탐색을 위해 대부분 20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정규 학교 교육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11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이지연, 조아미, 2021:60). 연구결과, 문제아로 취급됨, 저평가됨, 소외를 당함, 차별을 당함, 자신의 가치를 절하함, 상처가 되어 남음, 상황에 따라 대처함, 힘든 여정임을 깨달음, 성장하는 내가 있음으로 모두 9개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이지연, 조아미, 2021:62).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학교 밖에서의 경험과 진로, 낙인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그들의 삶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20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그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단적 질적 연구를 적용한 서덕희, 테레사편(2017)은 한국 태생의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여자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5~6년간에 걸친 중단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활세계의 맥락을 이해하고 진로 형성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현주와 엄명용(2013)은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평균 3년간 3~4회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미혼 양육모의 삶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특히, 자녀의 연령별 변화에 따른 그들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생애사적 맥락에서 미혼 양육모를 위한 더욱 실천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이현주, 엄명용, 2013).

학교 밖 청소년도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삶의 일부 시점인 청소년 시기만이 아닌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 밖에서의 경험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들의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분류하여 그들의 변화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분석방법

1) 연구참여자 특성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기존 연구 인터뷰에 참가하여 녹취자료가 확보된 참여자 중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생활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성인이 된 그들의 경험까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참여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1996년 12월 이전까지 출생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개별 인터뷰는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2020년에 종료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0년 기준으로 25세 이상의 연령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25세 이상을 성인기로 정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4세까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시기가 고등학교인 경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⁶⁾. 셋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을 탐색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정의에 맞추어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2차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맥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 자료가 3개년 이상 확보된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료의 포화상태를 고려하여 인터뷰 자료가 단답형이거나 폐쇄형 답변이 많은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제외하였다.

6)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의 교육통계서비스 : 학업중단현황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발췌하였다 (https://kess.kedi.re.kr/stats/school?jsessionid=gZH7HGv1CdRarbsuoO63UvqRxYBYhClmtPYLopwbQhW6ozU1JnL1cyZYJMZhiSXO?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2)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6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21년 기준, 만 26~27세의 연령이다. 학교를 중단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며, 2명의 사례는 2회에 걸쳐 학교를 중단하였다.

표 II-1. 연구참여자 특성

이름	성별	연령	중단 시기	최종 학력	학교밖 청소년 유형	학업중단사유			활동·직업			주요 사건
						개인	또래	학교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참여자 A	여	26	고1	고졸	무업	○	○		학원	학원	아르바이트	자해, 자퇴 후 1년간 상담
참여자 B	여	26	고1 (2회)	고졸	직업	○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직장	중1때 성폭행, 이후 회사에서 성추행 당함
참여자 C	남	26	고2	대졸	학업	○	○		회사원	회사원	회사원	도박사건, 군 면제
참여자 D	남	26	고1	고졸	직업	○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
참여자 E	여	26	고1	대학 원재	학업	○	○		IT회사	IT회사	IT회사	검정고시 후 알바진학결정
참여자 F	남	26	고1 (2회)	고졸	직업	○	○		사무 보조	군복무	아르바이트	부모 때문에 카드빚, 손목터널증후군
참여자 G	여	26	고2	대졸	학업	○	○	○	대학생	공무원 준비	공무원 준비	부상으로 운동중단
참여자 H	여	26	고1	대학 원재	학업	○	○		졸업후 취성패	공무원준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
참여자 I	남	26	고1	대재	학업	○	○		휴학	군복무	군복무	20세 대학준비
참여자 J	남	27	고2	고졸	무업	○	○			무직	직장	
참여자 K	여	27	고2	대졸	학업	○	○		병원	취업 / 어학연수	병원	중국연수
참여자 L	남	27	고1	고졸	무업	○			수능 준비	수능 준비	학점은행제	중학교 시절부터 주식 시작

주 :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2020년도 연구보고서(김희진 외, 2020)를 참고하여 작성함.

최종학력은 최종 인터뷰를 한 3차년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6명과 그 외 대학 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재학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면접조사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무업 3명, 직업 3명, 학업 6명으로 정리되었다. 학교 중단사유는 연차별 녹취자료에서 참여자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1차년도와 달리 2차 또는 3차년도 면접에서 추가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차년도 면접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였지만 2, 3차년도에는 친구관계를 드러내거나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차별로 참여자 직업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3차년도 면접 당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사건은 3년간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1) 참여자 A (여, 26세)

참여자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등교시간이 이르고 적응이 되지 않아 힘들어 했다. 이전에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었는데, 상업그래픽을 배워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학진학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1년간 심리치료를 받고 학교를 그만둔 지 3년 후 부터 학원을 다녔다. 1차년도 면접 당시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픽을 배우고 있었고, 2차년도 면접 시에는 취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었으나 가끔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였다. 3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집에 있었다.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중단이 자신을 놓아버린 느낌이고, 한편 자유로워진 경험이라 말하고 있다.

(2) 참여자 B (여, 26세)

참여자는 부모님, 두 명의 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며, 참여자가 학교를 그만둔 후 두 동생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단하였다. 참여자는 야간자율학습을

역지로 하는 것이 힘들었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교복입은 아이들이 부러워서 다시 복학을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학교를 그만두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는데, 담임교사가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을 말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퇴하였다.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 둔 다음 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였고,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권유한 경리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했다. 중학교 때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직장을 다니던 중에도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1차년도 면접 당시에는 회사가 폐업을 해서 쉬고 있는 상태였다. 2차년도 면접 시에는 학원에서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버지 회사의 경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1차년도 면접조사 때에도 하던 일이었다. 3차년도 조사 시에는 이사 후 부모님과 따로 살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참여자 C (남, 26세)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따로 살고 있는 형이 한 명 있다. 고2에 중퇴하여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으면서 준비하여 검정고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검정고시 점수로 수시에 지원하여 대학을 입학하였다.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 둔 일이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군대도 면제를 받아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빨리 하게 되었는데, 참여자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는 오랜기간 사귄 여자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대학생활도 졸업할 정도로 무난하게 하였다. 1차년도 면접시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하게 된 계기는 대학 4학년 때 취업계를 내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에 참여자는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독립을 꿈꾸지만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상태였다. 3차년도 면접 당시에는 아버지가 믿고 있어 그만둘 수도 없고, 자신도 회사를 물려받을 욕심도 생겨 계속 다니고 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참여자가 사장 아들이란 이유로 부담이 많고, 일도 더 많아진 상태였다. 참여자는 제주도에 가서 창업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참여자 D (남, 26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았고, 미숙아로 태어난 동생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참여자가 학교를 갈 차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다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연락이 뜸하던 아버지를 설득하여 자퇴하였다. 17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사는 ○○시로 갔는데, 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이 사는 경험이었다. 아버지는 엄격하였는데, 참여자는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다. 아버지와 사는 동안 원래 살던 지역의 친구들과 그리워하고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힘들어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동생과 엄마에 대한 애정이 높았다. 1차년도 면접 당시에는 아버지와 살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로 지냈다. 2차년도 조사 시기에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갔고,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타지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자신이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컴퓨터를 더 잘한다고 자부하였지만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3차년도 면접 시 다시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와서 아버지의 카페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다.

(5) 참여자 E (여, 26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말이 많은 여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싫었고,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중학교 때는 교사에게 찍히는 경험을 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참여자는 검정고시를 치고 나서 전기회로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경험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참여자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평범하게 잘 지낸 편이라 생각하였다. 참여자는 지금 생각하면 학교를 오히려 더 빨리 그만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차년도 면접 시에는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2차년도 조사 때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직하였다. 이직한 곳은 이전 직장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연봉 1,500만원이 더 높은 회사였다.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한 이후로 술 마시는 양을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학원을 진학하였으며, 자격증도 계속 취득하고 있었다. 3차년도 면접 당시에는 대학원과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다.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행복주택에 단기간 입주하였다.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으며, 사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

(6) 참여자 F (남, 26세)

고 1때인 2013년 9월에 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복학하였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여 학교를 다시 그만 두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 경험이 있어 고등학교를 멀리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관계는 좋았지만 차를 오래 타고 다니면서 허리가 아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때 우울증이 있었으며, 자해도 하였다. 다음 해 집 근처 고등학교로 다시 복학하였다. 여기에서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를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다. 더 어려워진 점은 그 친구가 2학년 선배가 되어 있었고, 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어 학교를 그만두었다. 꿈드림 센터에서 경험한 바리스타로 진로를 희망하였지만 손목터널증후군으로 그 꿈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차년도 면접 당시 사무 보조로 7개월간 일하였으며, 군대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2차년도 조사 때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거주하시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참여자 혼자 살았다. 3차년도 면접 때에는 그해 6월에 참여자는 제대하였고,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이 같이 거주하였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여 이직하였는데, 이전보다 월급이 많은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재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7) 참여자 G (여, 26세)

참여자는 인문고에서 축구 선수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전학했지만 부상으로 운동하기 힘들어졌다.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참여

자가 특기생 TO로 되어 있어서 운동을 포기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였다.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 2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참여자는 학교를 자퇴한 것이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축구를 계속 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는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고 하였다. 자퇴이후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고, 검정고시 점수로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여 ○○과로 진학하였다. 1차년도 면접 당시 참여자가 4학년 2학기인 이미 학점을 다 채운 상황이어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2차년도 조사 때는 서울로 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3차년도 면접 당시 역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시험 준비와 공부로 다소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8) 참여자 H (여, 26세)

참여자 H는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단하였다. 학교를 다닐 때 여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엄마와의 약속대로 학교를 중단한 다음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였고,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검정고시 점수로 아동복지학과를 진학하였다. 참여자는 고등학교 친구들 보다 한해 빨리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지만 대학에서는 동기들보다 어려서 관계가 어렵기도 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참가하고 있었고, 다음 해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 있었다. 2차년도 조사 때는 미술치료를 해주던 교수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면접보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공무원준비를 하게 되었다. 스스로 단호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였는데, 자신 스스로가 애매해서 답답하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3차년도 면접 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어 했고, 자신을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엄마의 소개로 병원에서 8개월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다.

(9) 참여자 I (남, 26세)

참여자 I는 아침 잠이 많아 학교를 가는 것이 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사실 먼저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 친했던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참여자는 학교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본 것도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였다. 그만둘 당시 어머니와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부모님과 1년 뒤에 검정고시를 친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한 채로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2차년도 조사 시기 6월부터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자격증과 토익을 준비하고 있었다. 3차년도 면접 때는 공익으로 복무하고 있는 중이며, 여전히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독립도 희망하고 있었다.

(10) 참여자 J (남, 27세)

참여자 J는 어머니가 이혼을 두 번하고 아버지가 계속 바뀌는 경험을 하였다. 한 달 동안 학교를 가지 않기도 하였고, 여러모로 사람을 맞춰주는 것이 힘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때 학교를 중퇴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는 검정고시를 쳐서 바로 합격한 이후 보안요원으로도 일하고,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사회적 시선도 두려웠다. 어린 시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1차년도 면접 당시 군복무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을 갈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2차년도 조사 때는 인터뷰 5일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그만두었으며, 11살 많은 일본인 여자를 친구로 만나고 있었다. 3차년도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본에 가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참여자는 학교를 자퇴한 것을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의 권유로 30세까지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11) 참여자 K (여, 27세)

참여자 K는 부모님과 살고 있다. 참여자는 다니던 고등학교가 진학반과 취업반이 합쳐져서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고, 학교 가기가 귀찮아서 고등학교 2학년때 학교를 중단하였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였으며,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을 했다가 다시 전과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였다. 1차년도 조사 시 학교졸업 이후였는데, 성형외과에 취업하였다가 한의원으로 이직하였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모은 돈으로 한 학기정도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2차년도 면접 당시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3개월 수습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이었다. 일어준비도 하고 있으며, 그 사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딴 상태였다. 중국연수를 다녀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3차년도 조사 당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한 상태였다. 참여자는 자신이 간호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월급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간호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 어학연수는 다녀왔으며, 취업에 도움이 될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애교를 부릴 정도로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

(12) 참여자 L (남, 27세)

참여자 L은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였다.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국비유학생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8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17세에서 20세까지 시험 준비를 하다가 결국 국비유학생의 꿈을 접고 21세에 군에 입대하였다. 군 입대전에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군 생활은 20대에 가장 의미있는 시간으로 기억하였고, 제대는 17년도에 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습관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어머니는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아버지는 고액과외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참여자는 아버지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수능준비를 하고 있었고,

2차년도 조사 때는 어머니는 제주도에 살고, 참여자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 수능준비를 하고 있으며, 투자에 관심이 높았고, 돈을 내고 대학을 가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3차 면접 당시 학점은행제로 공부하고 있으며, 정보처리기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채굴한다고 하며, 예상보다 수입은 낮지만 만족스러워했다. 참여자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참여자는 어머니, 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인 참여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그들의 성인기까지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자료분석은 Glaser와 Strauss(1967)의 코딩방법⁷⁾을 적용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속성을 파악하여 범주화하는 개방적 코딩을 진행하였다. 우선 참여자별 3년간의 녹취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자료의 포화상태가 각각 다르고, 참여자별로 3개년도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녹취자료를 읽으면서 참여자별 개인력을 정리하였다. 또한 참여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드노트를 참고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경험’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녹취자료를 부호화 및 개념화하여 하위 주제어 및 주제어를 정리하였다. 개방적 코딩을 통해 참여자별로 학교 중단의 원인, 검정고시 준비과정과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 자격증 취득 준비와 같은 취업 준비와 직장생활 경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경험, 참여자의 가족관계와 이성 친구, 또래관계, 사회적 지원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를 그만 다니는 결정

7) Glaser와 Strauss(1967)의 분석방법은 질적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며, 근거이론에서 활용하는 Strauss와 Corbin(1988)과는 다른 분석방법이다. 이현주, 엄명용(2013)에서는 근거이론의 방법인 Strauss와 Corbin(1990)을 빌어 주제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방적 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근거이론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이후 참여자의 개별 경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는 인식과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청소년기는 27개의 하위주제어와 6개의 주제어, 성인기는 21개의 하위주제어와 5개의 주제어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축코딩으로서 본 연구가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성인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방적 코딩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각각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축코딩을 진행하였다. 이 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학교 밖 선택의 결과,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학교 밖에서의 도전,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정리되었다. 축코딩에서는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 중에서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유사한 경험보다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거나 변화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으로서 축코딩 후 각 축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녹취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연령과 성인기 연령을 구분하여 녹취자료를 분류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였다.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질적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연구자의 서술과 해석이 실재를 반영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즉,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회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복학이 아닌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청소년으로 제한하였다. 녹취자료 외에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석과정에서부터 면담 노트를 참고하여 개별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를 통해 자료 분석 과정과 결과를 검토 받았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본 연구 외에 다른 사례나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함을 평가하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5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과 팀장을 통해 분석된 자료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이전 분석결과에서 도출했던 ‘해결하지 못한 과정을 다시 해내고’, ‘친구들이 멀리하려 하고’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무시’라는 단어가 주는 낙인효과에 대해 적절한 표현인지 검토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였다. 한편, ‘교복을 입지 않아서 청소년으로 봐주지 않고’ 등이 더 적절하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녹취자료의 내용과 달라서 수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패널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로부터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 학교 밖 청소년 중 본 연구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추천받아 분석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자문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이 ‘다들 힘들게 해 왔고,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잘 살아 나갔으면’하였고,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도 스스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의 일관된 분석 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Lincoln & Guba, 1985), 자료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통해 연구 결과의 주제어와 하위주제어 등에 대해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초기부터 연구과정을 논의하고 참여자 선정에서부터 피드백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연구들(명소연, 조진옥; 2016; 유진이, 신호민, 2018; 조윤정, 황소리, 오민아, 2018; 홍지선, 2020)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자의 선이해를 배제하고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전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녹취자료에 최대한 집중하였으며, 연구결과에 연구자의 주관과 선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 일한 경험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 3년간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녹취자료를 충실히 읽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연구자의 객관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벽하게 연구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의식적으로 연구자 스스로 답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자신들의 경험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 전반에서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

3. 분석결과8)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 학교 밖 생활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청소년기(~24세 이하)와 성인기(25세 이상)로 이어지는 경험을 정리하였다.

표 II-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후 학교 밖 생활 경험 결과

분야	청소년기	성인기
학교 밖 선택의 결과	주제어 퀘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이탈한 퀘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하위 주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조언 • 교복입은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고 • 학교 친구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이 달라서 열심히 하고 싶고 •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 같고 •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주제어 이정표 없이 거친 길을 찾아 나서는	같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하위 주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주는 곳 없이 혼자 하기에는 버겁고 • 20살이 넘었지만 해 놓은 것이 없고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연해 지고 • 학교 보호막 없는 세상에 부딪히며 지쳐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흘러보낸 지난 시간이 후회되고 • 새로운 분야는 망설이기만 하다 포기하고 • 나의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학교 밖에서의 도전	주제어 학교 밖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는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위 주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해 본적 없는 경험을 하고 • 사회생활을 남보다 먼저 시작해 두려움이 없고 • 부모님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 꿈꾸지 못했던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것을 찾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 사람들의 무시가 오히려 도전할 힘이 되고 • 주위를 설득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	주제어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하위 주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취급으로 상처받아 아파하고 • 기회조차 주지 않아 시도도 못해보고 •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 학교 밖 출신이라 해도 인정받고

8) 본 절에서는 윤철경 외(2018a), 장근영 외(2019), 김희진 외(2020) 연구들(「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조사」의 1~3차년도 연구)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학교 밖 선택의 결과

‘학교 밖 선택의 결과’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드러난 의미가 변화되었다. 청소년기에는 단순히 ‘궤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고’라는 경험이었지만, 이후 성인기에서는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경험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은 다소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성인기가 되면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성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참여자 스스로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1) 청소년기 : 궤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2018년도 1차년도에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는 학교를 중단한지 5년 이상이 된 시점이었다.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지 1~2년안에 검정고시를 합격한 상태이며, 대학을 진학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주위의 피드백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 하였다. ‘교복 입은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고’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교복을 입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학교친구들을 만나왔지만 점점 더 ‘학교 친구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되고’의 주제어를 통해서 지난 시간 자신의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음을 드러내보였다.

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조언

참여자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조언을 들으면서 불편했다. 참여자 H는 이력서를 쓰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중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도록 대학부터 작성하라는 조언이 아쉬웠다. 참여자 K는

‘엄마’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외출시간마저 통제하고 있었다. 참여자 K는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참여자 K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더 상처 받았을지 모른다.

차별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력서 작성할 때 고등학교 대학교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부터 쓰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창피하지도 않고 보통 고등학교부터 기입하니 그렇게 기입을 해서 보여 드리면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18⁹) - 참여자 H)

저보고 애들 하교하기 전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중략) 그런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엄마는 남의 시선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엄마 말로는 다른 사람들이 널 안 좋게 보는 게 싫어서 라고는 하시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했던 게 좀 그랬죠. (18 - 참여자 K)

② 교복입은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고

참여자 B는 학교를 2번 그만두었는데, 첫 번째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교복입은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부러워 복학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서 교복은 단순한 옷의 개념보다는 학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가 해석되었다.

그때 바리스타 대회 나가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겨울 되면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교복 입고 놀러 오잖아요. 학교생활부터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부러운 마음도 들고 학교 다시 다니고 싶었는데 (중략)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하다가 고등학교 다시 들어갈까?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교복 입고 다니고 나는 일하고 11, 12시에 끝나고 일하는데 얘네는 학교 교복 입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19 - 참여자 B)

③ 학교 친구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학교를 중단한 상태에서도 학교 친구들과 만남이 계속되었다. 참여자 D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만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각자 관심사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참여자 B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와

9) 본 연구에서 인터뷰자료의 표기는 ‘연도 - 참여자명’의 순으로 밝혔다. 예를 들면 19 - 참여자 B는 2019년 참여자 B의 자료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친구들이 ‘모두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속상하고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쁜 거는 다른 또래친구들보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귀지 못했죠. 고등학교 안 나왔고 일단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는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서로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18 - 참여자 D)

자기들끼리 2, 3학년 때 지냈던 얘기 나오면 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개네들은 제가 친하게 지냈으니까 당연히 누군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하는데 그런 거 말고 크게 없었어요. (19 - 참여자 B)

④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학교 그만둔 것이 후회되고

참여자 I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20살까지는 참여자 I는 학교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롭다고 느끼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20살 부터는 중단을 왜 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24살인 참여자 I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되었다. 학교가 힘들어도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G는 학교를 중단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경찰을 하겠다는 진로도 결정하여 대학졸업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G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 둔 그 학교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다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추억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D는 거리가 멀고 차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도 있었고, 학교에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학교를 그만두었다.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하였던 참여자 D이지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두고 딱 20살 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냥 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딱 자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 주변 친구들은 학교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데 나는 개인 시간 쓰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왜 했지 이런. (중략) 그니까 그냥 뭐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힘든 일 있고 한다고 해도 그냥 있을 걸. (19 - 참여자 I)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번 이런 생활을 해봤으니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학교 생활도 해보고 싶네요. (중략) 그 학교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데서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어요. (19 - 참여자 G)

그것만 봤을 때는 많이 후회되죠. 솔직히 시간을 되돌리라고 하면 되돌리고 싶어요. 중학생 때로. (면접자 : 그때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열심히 했죠. (18 - 참여자 D)

(2) 성인기 :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학교를 그만 둔 결정과 그들의 경험이 청소년기에는 궤도를 벗어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이라면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인기에는 낙오자라는 낙인은 희미해지고, 이제 정상 범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여졌다. 이 과정은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자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아왔다. ‘출발이 달라서 열심히 하고 싶고’는 학교를 중단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치기도 해서 고등학교 졸업은 대부분 동년배와 같이 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참여자가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로를 늦게 결정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은 출발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참여자는 학교 밖에서 혼자서 진로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가는 것 같은’ 뿌듯한 경험이라 생각하였다. 무엇보다 소원해졌던 인간관계들도 회복되기도 하였는데,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고’있는 것으로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① 출발이 달라서 열심히 하고 싶고

출석일수가 모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된 참여자 H는 여자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힘들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심리치료를 1년간 받을 정도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오히려 학교를 그만 둔 것이 참여자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참여자 H조차도 자퇴는 했지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K는 고등학교의 진학반과 취업반이 통합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학교 가는 것도 싫어서 자퇴를 하고 나왔다. 참여자는 자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고 대학까지 진학한 점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였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부모님한테도 은근히 '엄마, 내가 옛날에 자퇴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1 - 참여자 H)

제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는 했지만 검정고시를 봤고 대학을 갔다 왔고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지 않다. 다른 길을 왔다고 한들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걸 인정받으려고 좀 더 많이 노력하게 됐던 게 있기 때문에. (21 - 참여자 K)

②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 같고

참여자 C는 학교를 중단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참여자 C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금의 상태가 남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처럼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 H는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을 진학한 후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살기 위해'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보통처럼 사는 것 같은데, 남들처럼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일하고 있고 크게 막 일적인 거 외에는 고민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뭐 남들만큼은 사는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어렵게 살잖아요. (20 - 참여자 C)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대학교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학교 자퇴한 거 자체가,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나왔으면 못 갈 대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잘 풀렸다. 잘 풀린 것 같아요. (20 - 참여자 C)

근데 제가 어쨌든 대학교를 다니고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학교에 가게 됐잖아요. 근데 또 거기를 가니까 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해야 취업이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그거를 하고 막 이래서 (중략) 내가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1 - 참여자 H)

③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참여자 K는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이 변했다고 인정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자신이 부모님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밖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애교를 부리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I는 중학교 때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먼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성공적인 친구관계를 맺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다음해에 다시 집근처에 학교로 복학했지만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두 번째 자퇴를 하게 되었다. 참여자 I는 친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점이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기는 하지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오히려 공부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때는 뭐 그냥 그냥 잘 지내다가 성격이 좀 변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저나, 원래는 엄마, 아빠한테 애교도 잘 안 부리고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에선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집에선 못하는데 밖에서 잘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집이나 밖이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9 - 참여자 K)

일단 뭐 학교를 빨리 그만 뒤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거리가 아니라 아예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다 동생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 대하듯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 - 참여자 I)

2)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

참여자는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청소년기의 경험은 ‘이정표 없이 거친 길을 찾아나서는’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자신의 미래를 찾아나서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 길을 찾다 지치게 되면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메고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25세 이상이 된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해 길을 찾지 못한 답답함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1) 청소년기 : 이정표없이 거친 길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기의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정표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지원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스스로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와주는 곳 없이 혼자 하기에는 버겁고’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힘들고 외로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20살이 넘었지만 해 놓은 것이 없고’라 생각하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지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 보호막 없는 세상에 부딪히며 치져가고’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고, 다니는 것이 의미없다 여겼었던 곳이 바로 학교였다. 참여자는 이런 학교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생각하니 바로 보호막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① 도와주는 곳 없이 혼자하기에는 버겁고

참여자 A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도와주는 곳 없이 혼자하기에는 버겁고’의 상태가 되었다. 참여자 L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지만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등급을 관리하고,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참여자 E는 시험일자까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해서 버거웠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였다. 참여자 I는 커리큘럼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지만 현재와 같이 커리큘럼이 없는 상태에 대해 힘들어 했다. 더군다나 혼자서 해 나가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업에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대학교는 몇 등급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다른 학원들처럼 좀 공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18 - 참여자 L)

아무래도 제가 다 찾아야 되니까 일단(중략) 하다못해 시험일자도 내가 찾아야 되고 학교도 다 제가 찾아서 했었고, 그런 게 있죠. (18 - 참여자 E)

일단은 같이 고2면 고2, 고3이면 고3.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딱딱 밟아 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중략) 그게 커리큘럼대로 딱딱 하라는 대로 하면 솔직히 하라는 대로 하면 쉽잖아요. 근데 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인데도 훨씬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혼자서 해야 하고. (19 - 참여자 I)

② 20살이 넘었지만 해 놓은 것이 없고

참여자 I는 학교 가기 싫고, 먼저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를 보면서 특별한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랬지만 친구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연락이 오면서 친구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야 참여자는 수능을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 I는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겪었다. 참여자 B는 자신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하는 자신을 생각하니 더 막연해 하였다. 자신의 공백기간이

길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참여자 C는 학교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달라져서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모두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는 이러한 경험을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제가 직후에 막막하다고 느낀 게 그 제 나이 또래 96년생들이 수능을 치고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정시를 넣었는데 지금 추가합격 뜨는 있는데 안 될 것 같다.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막막함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추가 합격을 해서 학교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예 제가 수능을 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19 - 참여자 I)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백기간 길어지고 이러면 일 다시 시작할 때나 이런 것도 문제 있을 것 같고. (18 - 참여자 B)

(면접자 : 학업 중단할 때 계획 같은 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다 그런. 그런데 벗어나고 나니까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18 - 참여자 C)

③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연해 지고

24살 참여자 H는 공부도 취업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런 상태가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D는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태였다. 고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뿐더러 일자리조차 없는 현실이 답답하였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은 참여자 D에게 무척이나 부담되었다. 23세의 참여자 B는 머리가 아프고, 백지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지금의 상태를 고민하다가 오히려 '잠이나 자야겠다'고 회피하기도 하였다.

24살이잖아요. 근데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고 취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고 답답하고 나 왜 이리하고 살지?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9 - 참여자 H)

뭐든 간에 뭔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는데 시작부터 뭔가가 안돼요. 특히 법 같은 건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일단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맞고, 00에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자리가 없고. (18 - 참여자 D)

일단 제 미래가 막막하고 막연하고 이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생각이 안 들진 않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백지처럼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나 자자. (18 - 참여자 B)

④ 학교 보호막 없는 세상에 부딪히며 지쳐가고

참여자 H는 전도사인 아버지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데,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학교 밖에서 정보를 얻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은 힘겨웠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참여자 H는 이런 과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울타리가 있는 학교 안을 더 추천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경험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여자 G는 부상으로 축구선수를 하던 자신의 선수생활을 정리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학교에서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있었다고 그리워하고, 그 시절에 자신도 보호받았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교라는 울타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포함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경험해보니 혈혈단신으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정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수집이 안 되고 정보의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걸 할 때도 다 힘든 것 같아요. (18 - 참여자 H)

자퇴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나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목표가 없다면 자퇴를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8 - 참여자 H)

지나고 보니까 학교는 그냥,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고를 쳐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챙겨줬는데 나오면 바로 저와 직결되고 그 위에서 보호해주는 게 없다는 게 좀. 학교는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18 - 참여자 G)

(2) 성인기 : 짙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청소년기의 참여자는 ‘이정표’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고군분투해왔다. 학교 보호막 없는 채로 남을 의식하며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인기를 맞이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나간 시간을 ‘흘려보낸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며 후회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생각만 하고 시도도 하지 못한 채로 성인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분야는 망설이기만 하다 포기하고’의 상태가 되었다. ‘나의 진로를 찾기 못해 방황하고’ 있는 시간이 되어 버리기도 하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서 점점 ‘짙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① 흘려보낸 지난 시간이 후회되고

돌이켜보면, 참여자 B는 지나온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였다. 그 시절에 애들이랑 놀러다니기만 했던 시간이 무척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제는 무엇인가 남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L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국비 장학생’을 준비하다 20세가 넘어 포기해야 했다. 이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수능준비를 해다가 25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좀 더 알차게, 진짜 그거를 너무 헛되게 쓰지 않게, 저도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같이 학교 그만 둔 애들이랑 모여서 쓸데없이 놀러 다니기만 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아까운 것 같거든요. (21 - 참여자 B)

네,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시간 낭비를 엄청 한 것 같아요. (중략) 뭔가 남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것 저것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약기라도. (21 - 참여자 B)

그리고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보통은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생활을 미리 시작을 했거나 해서 기반을 다져가서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혼자서 지금 계속 입시를 한다는 거에 부담감도 있고. (19 - 참여자 L)

② 새로운 분야는 망설이기만 하다 포기하고

참여자 D는 자신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교를 중단한 이후 관심을 가졌던 법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법과 관련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고 법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도조차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만 남는 일이 되었다. 참여자 B는 학교를 그만두고 주위에서 괜찮은 일이라고 추천해서 경리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을 다녔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보너스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시도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자 B는 지금 네일아트나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였다.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지식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그때 와서 진로를 결정하기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깐 너무 늦은 거 같아요. 다시 법에 대해서 관심 생기고 사시 마지막 년도였어요. 17년도인가? 22세 때 법에 관심이 생겼어요. (중략).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면 그 당시 계산해본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까지 공부만 하고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쉬웠어요. (20 - 참여자 D)

네일아트 하는 것도 그렇고 만들기 팔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많았는데 다 생각했을 때 네일아트도 혼자 할 때는 재미있는데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중략) 새로운 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제 왜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21 - 참여자 B)

③ 나의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참여자 C는 검정고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인정받아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였다. 처음에는 대학을 진학한 일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기도 해서 1학년 때 부터 졸업을 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 학교생활을 해 왔다. 지금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름 인정

받고 일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이 답답한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대학에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참여자 I는 시간이 자유로워진 것이 학교를 중단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솔직히, 그래서 거의 뭐 1학년 때부터 포기했죠. 공부하는 거를 거의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졸업하는 수준까지만 딱 하자, 해서 그 정도만 했어요. (중략)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로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찾아봤으면 나에게 잘 맞는 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20 - 참여자 C)

그만 둔 거에 대한 의미는 일단 제 개인 시간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좀 자유롭고 그런 게 있었는데, (중략) 막상 이제 다른 애들이 학교 가고 할 때, 대입 시험 친다고 할 때, 저는 제 자유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아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갈피를 못 잡아서. (20 - 참여자 I)

④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참여자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자신감이 없어지고 막막해지고 있었다. 참여자 A는 재학시절 왕따를 당한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등교시간이 빨라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린 그림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픽 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했다. 취업을 위해 여러 번 서류를 넣고 면접도 보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이 3년째 되지 않고, 간간히 아르바이트가 들어와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참여자 A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시간이 여유로워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아 고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가지지 않고 있다. 참여자 B는 회사가 폐업해서 일자리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였다. 지금은 세무서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계획없이 삶을 살고 있어요. (중략) 근본적인 고민이 안 사라져서,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나? 먹고 살 실력이 되나? 자신감이 없어요. (20 - 참여자 A)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백기간 길어지고 이러면 일 다시 시작할 때나 이런 것도 문제 있을 것 같고. (21 - 참여자 B)

3) 학교 밖에서의 도전

‘학교 밖에서의 도전’의 주제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은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기에 학교 밖을 선택한 경험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가 학교를 중단하는 시점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더 다양한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일자리도 이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과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험이었다.

(1) 청소년기 : 학교밖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게 되는

참여자는 학교 밖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해 본적 없는 경험’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사회생활을 더 빨리 경험하였다고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사회생활을 남보다 먼저 시작해 두려움이 없는’ 경험도 하였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학교 다닐 때보다 ‘부모님이 더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는 부모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준비하면서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인정받으면서 오히려 ‘꿈꾸지 못했던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학교 밖에서 참여자는 여러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① 학교에서 해 본적 없는 경험을 하고

참여자 B는 대학교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질은 좀 떨어지지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사회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경험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참여자 D는 원래 프로그래밍을 다루기는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다루고 싶은 분야를 찾게 되었다. 참여자 D는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는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이 대학교 나온 애들은 대기업 이런 데를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할 데도 은근 많고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그 당시는 막연하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보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일도 빨리 시작해보고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18 - 참여자 B)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질 줄 아니까 프로그래밍도 다루고 바이럴 마케팅으로 가게 된 것도 컴퓨터를 만지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된 것도 자퇴를 하고 나서 부터였거든요. (18 - 참여자 D)

② 사회생활을 남보다 먼저 시작해 두려움이 없고

참여자 B는 자신이 고등학교를 중단하였지만 오히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보다도 사회에 먼저 발을 내딛은 점을 자랑스러워했다.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10대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더 경쟁력있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B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사회생활 경험을 자랑스러워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일하는 거 너무 걱정된다고, 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살지 이런 게 두렵다고 하는데, 전 그래도 빨리 그런 걸 해봤고, 또 학교 그만두고 알바 같은 거 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나 물어볼 때 10대 후반인데 (중략) 그러니까 두려움도 덜해지는 것 같아요. (18 - 참여자 B)

면접 볼 때 그런 것도 골라온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사회생활, 일도 더 빨리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중략) 회사생활을 더 잘하지 않을까요. (19 - 참여자 B)

무엇보다 참여자 E는 현재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로를 결정한 것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경험한 아르바이트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와 가게 된 계기도 검정고시 치고 나서 공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현장실습 갔던 업체에서 9월부터 너네 빠지면 힘들 것 같다, 주변에 노는 사람 없나 그러가지고 제가 어쩌다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낄낄이었던거ですよ. 이상한 공장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LED 전등 있잖아요. 여기 잘못된 거 뜯어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면서 회로 배워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과를 가게 됐어요. (18 - 참여자 E)

③ 부모님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참여자 J의 어머니는 이혼을 여러 번하였다. 참여자 J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어머니와 소원해지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터치’를 잘 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어 위안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여자 B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더 많이 했고, 집을 나와 따로 살아도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도전하게 되는 경험도 하였다. 참여자 F는 부모 때문에 카드빚을 안게 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부모님이 채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더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참여자 F에게는 힘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관심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터치 잘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주의 라서(중략) 지원도 해줘요. 돈도 해주시고 어디 필요하다 싶으면 데려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차비나 밥 그런 것도 있고, 많죠. (18 - 참여자 J)

제가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나와서 살기 전에는 얘기할 시간도 많았고 집 나와서 살아도 연락을 자주 한 게 엄마였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도 엄마가 알아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그랬거든요. (18 - 참여자 B)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채워주신다고 할까 남들이랑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또래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짐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많이 사주시기 때문에 힘이 많이 되죠. (19 - 참여자 F)

④ 꿈꾸지 못했던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때 참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로 자퇴를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1년 뒤에 검정고시는 친다는 약속을 부모님과 한 것이 전부였다. 참여자 G는 부상으로 원하는 운동을 중단해야 했고, 특기생으로 전학을 온 상황이라 학교에서는 자퇴를 하라고 종용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면서 성장 발전하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H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남보다 고등학교를 더 빨리 졸업하게 되었고,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결국 1년 더 빨리 진학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 H는 그 다음해 인터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더라면 내신으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뭘 할지 몰라서 검정고시부터 따져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이런 직업도 있다 이런 직업도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찰이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고, 경찰시험을 보면 실기랑 필기 둘 다 보는데 실기 같은 건 자신이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직업이. (18 - 참여자 G)

성장 발전한 것 같아요.(중략)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대학을 못 갔을 것 같아요 남들 성적에 비해서.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내신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검정고시를 본 게 득이 된 것 같아요. (19 - 참여자 G)

고등학교 자퇴한 건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제가 열여덟 살에 검정고시를 보고 열아홉 살에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스무 살에 대학교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1년 일찍 대학교를 간 케이스거든요. (18 - 참여자 H)

네, 오히려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교를 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공부로 내신이 잘 나왔을지 모르겠고 검정고시로 그나마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19 - 참여자 H)

(2) 성인기 :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소년기에 참여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경험은 참여자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이어지면서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스스로 더 ‘원하는 것을 찾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주위의 ‘무시가 오히려 도전할 힘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원하는 것을 찾고 도전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주위를 설득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① 원하는 것을 찾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참여자 K는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진학을 계획하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는 확신은 들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참여자 F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더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는 아르바이트도 카페에서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 G는 검정고시 점수로 대학을 진학하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서도 1등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성인기까지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하고 그들이 겪은 경험은 참여자에게 성인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경험을 계속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 적성을 찾은. 적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게 생겼고. (21 - 참여자 K)

뭔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은 바라보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난 이것만 할 거다, 이것만 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좀 더 폭넓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았어요. (18 - 참여자 F)

전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많아서, 운동할 때도 그 나이에 대표를 갔다 왔었고, 공부를 시작해서 저희 과에서 1등도 해봤고 하니까 노력으로 얻은 게 많아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8 - 참여자 G)

참여자 K는 자퇴를 했지만 검정고시도 치르고 대학도 진학하는 등 한결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참여자 D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다시 바리스타라는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경영'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제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는 했지만 검정고시를 봤고 대학을 갔다 왔고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지 않다. 다른 길을 왔다고 한들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걸 인정받으려고 좀 더 많이 노력하게 됐던게 있기 때문에. (21 - 참여자 K)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제대로 잡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아빠가 만든 카페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커피에 대해서 관심 없던 건 아니라서. 이왕 하게 된 거 전문성 있게 배워보자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요. 커피 마실 줄 알고 만들어 보지 않아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경영으로 가겠죠. 그쪽으로는 어느 정도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독학으로 배운 것도 있고요. (20 - 참여자 D)

② 사람들의 무시가 오히려 도전할 힘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중단하고 나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참여자 K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동료와 선배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험은 오히려 내가 역량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누르고 위에 있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은 안 했는데 자퇴하고 바로 직장을 구했는데 엄마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직장 상사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런 걸로 무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단 경험하는 게 좋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 선배가 저한테 그런 무시 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면 일단 공부해야겠구나. (19 - 참여자 K)

오기가 붙었던 거죠. 내가 저런 XX에게 무시를 받아야 되나,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오기 라는 건 나도 당신들 못지않은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오, 누르고 싶었죠. (중략) 내가 너 보다 위에 있을 거라는 느낌. (19 - 참여자 K)

③ 주위를 설득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참여자 K는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진학 후에도 휴학과 전과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취업을 해서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기도 하였다. 중국유학을 위해 돈을 모아서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참여자 K는 이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부모를 설득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반대할까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한편 참여자 K는 학교를 중단하고 나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지지를 받았는데, 어쩌면 참여자 K가 가진 이런 내적인 힘은 부모와의 관계회복과도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단 제가 무언가 한다고 그러면 말리는 성향이 강해요. 대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걸 해보고 싶다는 게 많아서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몰라,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면 그래, 이런 정도예요. (19 - 참여자 K)

그때 그냥 머물렀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은 들어도 할 수 있는 결단력 그런 게 생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 엄마, 아빠 말을 하다가 그때부터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긴 했는데 안 듣다가 다시 듣긴 하는데 제 주장이 더 강해진 거죠. (중략) 네,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어찌지, 망설이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략) 네,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면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원망 안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어요. (19 - 참여자 K)

4)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시선과 차별에 아파하고 힘들어 했다.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다.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드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주홍글씨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5세가 넘어가는 성인기에 이르러서 참여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하였다.

(1) 청소년기 :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

참여자는 학교를 중단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주위사람들이 참여자에게 ‘문제아 취급으로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회조차 주지 않아 시도조차 못해보고’ 있었다. 참여자는 진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고’의 경험이었다.

① 문제아 취급으로 상처받아 아파하고

참여자 L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부터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L은 군생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0대에 의미있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생활 만큼은 인정받고 잘 하고 싶었지만 ‘검정고시’출신이라는 이유로 요주의 인물이 되어 속상하였다. 참여자 G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물어 볼 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다. 그럴 때 마다 처음 본 사람은 ‘문제 있는 아이’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었다. 이런 시선은 참여자에게 상처가 되었다.

검정고시 고졸이다 딱 붙으니까 사람들 인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중략) 처음에 요주의 인물로 들어간다거나. 어? 똥똥한테 왜 학교를 안 갔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저는 제가 자존감도 좀 남들보다 높은 편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수 없는 성격이라서 그 (중략) 아무 생각 없이 자퇴를 하고 오토바이 막 몰고 다니는 애들, 그런 인식을 받아도 뭐라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18 - 참여자 L)

부정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알바를 해도 친구를 사귄 때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가까운 시기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남녀공학이었어?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안 나왔어, 저는 거짓말이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검정고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검정고시 봤다고 그러면 애들 반응이 어? 저를 오래 보고 친한 애들은 상황을 다 아니까 이해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재 문제 있냐?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게 제일 후회돼요. (19 - 참여자 G)

② 기회조차 주지 않아 시도도 못해보고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참여자 K는 서류가 합격하였지만 면접에서 면박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G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차별이라는 생각을 했다. 참여자 H는 아동복지가 전공이었고, 자신이 미술심리치료를 받던 센터에서 취업자리를 제안 받았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이유로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경험을 했는데, 참여자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

아무리 고졸도 취업하는 그거라고는 한데 대학 졸업자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걸 뽑을 사람이 있다.(중략) 네 애초에 서류에서도 안 붙여주거나 서류는 붙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면박을 주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18 - 참여자 K)

주변 시선은 제 친구들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할 때는 왜 그만두게 됐냐 물어는 보죠. 그게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어쨌든 안 좋게 보는 거니까. 학교를, ○○학과 유명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학교가 제일 유명해요. 거기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제도 자체가 검정고시생은 안 받는 제도라서 그래서 좀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9 - 참여자 G)

그분도 센터에서 일해 볼 생각 없냐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자퇴한 줄 모르셨나 봐요. 자퇴했다고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자퇴하고 센터에서 일 못한다고. (19 - 참여자 H)

③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참여자 H는 학교에서 친구관계로 어려움을 겪었고, 출석일수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검정고시를 쳤지만 주위에서는 인정 해주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참여자 H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학원을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 도망치는 마음으로 자퇴를 한 건데, 자퇴했다고 해서 끝나고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검정고시도 붙고 대학교도 갔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려고 자의든 타의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고등학교를 똑같이 졸업한 거잖아요. 학력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느낌임. (18 - 참여자 H)

지금 제 생활에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여유가 생겼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라는 명목 하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시선이 자유로우려면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학원을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딱히 만족스럽지도 않고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18 - 참여자 H)

(2) 성인기 :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참여자 H는 대학을 진학해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노력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겪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성인이 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제 세상의 '편견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를 경험하였다. 또한 '학교 밖 출신이라 해도 인정받고' 있었다.

①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참여자 H는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대해서 '그때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 J는 여러 사람을 맞춰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학교를 다니는게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참여자 B는 야간 자율학습이 힘들었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 여겨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참여자 B는 자신이 중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그만두던 당시 사실 자해를 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 약을 끊고 건강도 회복하였다. 참여자 E 역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 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

저는 딱히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잘 관렸다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 없는걸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생각했었거든요. (19 - 참여자 J)

엄마가 가자고 해서 센터 다니다가 안 나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인문계 그만 두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잠도 못 잤으니까 수면제 먹으니까 하루 종일 잠에 취해서 눈도 풀려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건 아니다 싶어서 약 끊는 게 어떨겠냐고 그래서 끊기도 하고 (면접자 : 자해 하던 것도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많이 고쳐서. (21 - 참여자 B)

일단 집이 막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닌데, 여유로운 거는 아니니까 국립대 아니면 돈을 투자 할 가치가 있는 수도권 쪽으로 알아봤었는데, 그때 거의 국립대 위주로 넣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5군데, 그때는 정확하게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으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넣었던 게, 뭐 간호학과 넣고 뭐 전자과 넣고 법학과 넣고,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오면 붙은 데 보고 고민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검정고시 점수가 좀 높다 보니까 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뭐 먹고 살지를 종합해 보니까 ○○과가 제일 낫다고 봐서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20 - 참여자 E)

참여자 C는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 다른 친구들과 달리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 G는 억울한 상황으로 학교를 포기했지만 더 빨리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어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의미있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 E 역시 납땀하는 알바를 통해 ○○과를 가게 되었다. 졸업 후 IT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남과 다른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도 자퇴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개네들은 이제 좀 거의 대부분 검정고시도 안 치고 그냥 뭐 배달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용돈 벌어서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고 저는 이제 뭐 그냥 대학교 가도 술 먹고 놀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했죠. (21 - 참여자 C)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다고 했는데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빨리 포기하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가고, 또 새로운 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후회는 안 해요. (20 - 참여자 G)

좀 다양한 알바를 해 보는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그러면서 뭐 얼마나 미친 놈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는지 겪어봐야 아는 거죠. (20 - 참여자 E)

②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가운 시선으로 상처받고 아파했다. 참여자 B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버텨오면서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학교를 중단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문제 있어서 학교 그만 뒀나? (중략) 의문?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면접자 : 중립적인 거네요?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21 - 참여자 B)

③ 학교 밖 출신이라 해도 인정받고

참여자 B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 E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검정고시를 치고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였다. 그래서 또래에 비해 대학을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참여자는 주위에서 왜 어린지 물어오면 아직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쁘게 살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참여자 K는 대학에 들어갈 때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낼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참여자 K는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B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야근이 많았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느 날 100만원을 보너스로 받았다. 참여자는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이가 왜 어리냐고 하면 아직도 말하고 다녀요. 너는 왜 벌써 사회 생활한 게 4년 차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황설명 다 하고 나면 다들 수긍하고 아 바쁘게 살았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얘기할 일도 없고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20 - 참여자 E)

그건 없어요. 오히려 거의 다 좋게 봐주시니까 내가 자퇴를 했는데 나가서 검정고시 따고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대학교 등록금을 일단 첫 번째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제가 냈거든요. (19 - 참여자 K)

회사 다닐 때 제 능력으로 인정 받은 거, 야근이 진짜 많은데 제가 들어오고 1년은 원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2년차 때 세무사가 처음으로 저 들어오고 자기가 야근을 12시 전에 집에 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물론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세무사는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자기가 이런 게 처음이라면서 고맙다고 그때 보너스로 1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때 좋았어요. 인정 받았구나. (19 - 참여자 B)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 둔 지 5년 이상이 된 시점인 1차년도이며, 이후 2차와 3차년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한 기존 녹취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경험을 종단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의 주제로 정리되었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따라 그들의 경험과 의미가 변화되고 있었다. 첫 번째 주제인 ‘학교 밖 선택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청소년기에는 ‘궤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출발이 달라서 열심히 살았고, 어느 덧 다른 사람과 수준이 같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청소년기에 다소 ‘이정표 없이 거친 길을 찾아나서는’ 과정이었지만 성인기에는 ‘질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기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과 혼자 해내기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25세가 넘어서서는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흘려보낸 시간이 후회되고’ 있었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망설이기만 하다가 포기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학교 밖에서의 도전’으로 정리되었다. 20대 초반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험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사람들의 무시가 오히려 도전할 힘이 되고’ 있었고 ‘주위를 설득해서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주제는 청소년기에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성인기에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볼 수 있다' 생각'도 들고, '인정'도 받으면서 '세상의 편견도 이해되고 인정받기도 하는' 경험으로 정리되었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청소년기에는 '이정표 없는 거친 길을 찾아 나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혼자하기에는 버겁고', '20살이 넘었지만 해 놓은 것이 없고'를 생각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 하고 있었으며, '보호막 없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보호체계 강화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소년 시기의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성인기 이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 입장에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경험이 '도와주는 곳 없이 혼자'라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 곳이 없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원활해져야 한다.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정부 24 등의 온라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을 주저하거나 미래를 혼자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경험(조혜영, 김영란, 2018)'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공적 기관을 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교육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219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해마다 5만 여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와 같은 학습, 캠프와 같은 활동, 상담 등 대인관계, 취업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소속감 획득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김수연, 2018; 백승호, 2017, 조혜영, 김영란,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구체적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자기 개발 기회, 진로체험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백승호, 2017; 윤철경, 2017; 윤철경 외, 2018b). 본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기의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에까지 ‘망설이다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진로미결정 유형에는 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고, 학업형은 학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동시에 진로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단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진로체험센터 등과의 연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면 온라인을 통한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범 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나 온라인 체험기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탑재되도록 하여, 상시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개별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온라인 체험 후에 필요시 해당 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연계 체험 시스템, 온라인 멘토 연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추가적인 인력배치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지원 없이 서비스와 지원이 확대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인력지원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한 시도 단위 또는 1인당 전국 센터 평균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사례관리하는 센터에는 별도로 진로상담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진로교육법에 의해 학교 단위로 진로상담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¹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전문 인력의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976만 2340원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2만원(문성호, 노지혜, 2020)인 점을 비교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이 낮다는 것은 결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한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청소년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아닌 사회가 또 다른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교 밖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에게도 학생과 다르지만 공정한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해본 적 없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 B는 자격증을 따거나 참여자 D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원하는 곳을 배우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은 23.4%이다(윤철경 외, 2018b). 그래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관심분야인 요리, 문화, 예술, IT분야 등에 대한 정보 탐색과 체험,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코딩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의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숙박과 급식 등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생활을 남보다 먼저 시작해 두려움이 없고’와 같이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체험과 아르바이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자가 낚뱀을 하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관련학과를 진학하고 IT회사에 입사했으며 대학원도 진학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51.9%인 점을 감안한다면(윤철경 외, 2018b), 경제활동도 할 수 있으면서도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탐색이 가능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공적인 체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근로계약 불이행, 폭언 등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철경 외, 2018b).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 참여 업체를 발굴 및 관리, 참여 업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공적단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부모님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지지와 격려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 및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희, 이경상, 2018; 조선경, 2017).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가 38%로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모가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윤철경, 2017). 자녀가 학교를 그만 둔 부모는 ‘퇴학이라는 울가미를 받아들일 수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퇴학이라는 미련에 매달리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생활도 뒤죽박죽되고, 부모는 ‘자신의 생활이 없어짐’이 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이경은, 2021). 다시 말하면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부모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경험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를 수용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아가 자조 집단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부모님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도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자녀양육 코칭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지원에 대한 기회가 다양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꿈꾸지 못했던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의 경험은 그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대학 진학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학생부를 필수 제출서류로 하는 대학입시 요강은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¹¹⁾. 이후 일부 대학에서 검정고시 점수를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환산하거나 내신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자율서식으로 대체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점차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을 진학하는 기회는 확대되었다¹²⁾. 그러나 2020학년도에도 대학 입시 유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은 전체 201개 대학 중 67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120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였다(안우철 외, 2019). 이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상황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입시 지원을 살펴보면, 16개 시·도에서 온·오프라인 대입설명회 개최,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전형 및 학과소개, 1:1 입시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마련되었다¹³⁾. 이것은 학생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로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하는 대학은 2020년 4개 대학에서 2021년 6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¹⁴⁾.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11) 매일경제. 헌법재판소 "검정고시 출신, 교대수시 응시 제한은 위헌"(2017.12.2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2/858884>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12) 여성가족부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1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2.).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42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1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2.).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42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인정하는 대학이 여전히 소수이며,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진학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의 기회와 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사회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기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 경험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문제가 취급으로 상처받고’, ‘인정해주지 않아’ 좌절하는 경험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대부분 20세 이하의 청소년기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김현주, 박재연, 2019; 명소연, 조진옥, 2016; 유진이, 신효민, 2018; 이주연, 정제영, 2015).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차별경험이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문제아’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 연구결과 ‘문제가 취급으로 상처받아 아파하는’ 것은 참여자 L의 군생활 경험과 참여자 G의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한편, 낙인과 같은 문제아라는 시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김민정, 김순석, 2014;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가 매체를 통하여 공식적 채널에서 소개되어지는 기회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 또는 공영방송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가 계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차별없이 학생과 같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회조차 주지 않아 시도도 못해’와 같은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희, 2015; 명소연, 조진옥, 2016). 그러나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 중 ‘선입견, 편견, 무시’는 2018년은 39.6%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b). 2015년의 42.9%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여전히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은 27.5%,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은 11.2%를 경험하였다(윤철경 외, 2018b).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하고 있는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가 2020년 한해 6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자격 제한을 경험한 사례가 50건이었으며,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14건은 개선되지 않았다¹⁵⁾. 차별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비행이나 일탈로 연결되어 질 수 있다(김범구, 조아미, 2013; 김정희, 김광병, 2020; 이화명, 김영미, 2017; 정효정, 2016).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차별과 차가운 시선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인식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다. 공공기관 대상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법 마련 등으로 차별에 대해 금지조항이 마련되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으로서 인정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고’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보호받을 청소년인 학교 밖 청소년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수준에 대한

1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29.). 고등부 선수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61에서 2021년 10월 6일 인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¹⁶⁾에서 밝힌 바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내적인 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하지만 사회적 차별을 겪더라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을 탐색했을 때, 그들이 겪은 차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상처받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차가운 시선을 상처받지만’ 청소년기를 지나서는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는’ 경험으로 승화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본 연구 결과에서 탐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특별한 경험이라 인식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집단을 통한 지지와 격려를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등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아닌 청소년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다양성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에 국한한 기회가 아닌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자격으로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경진대회 등으로 그들의 역량을 펼쳐 보이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인정받은 존재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성인기 연령(25세 ~ 27세)에 해당하는 녹취자료가 청소년기(학교중단 이후 ~ 24세)에 녹취 분량이 적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한계점임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기존 패널자료를 활용한 점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 안에서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적용하여 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제한된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주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를 중단하는 사유 중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참여자로 구성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2.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과 청년층의 심리·정서적 건강의 문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정신진료 현황분석 결과는 2020년 정신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수는 27만 1,557명으로 2016년 대비 23%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ADHD 포함 운동과다장애,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등 정신 및 행동장애가 주요한 질환으로 나타났다(박진우, 허민숙, 2021). 정신건강의 핵심지표인 자살률에 있어서도 유사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자살현황은 2015년 245명에서 2019년 300명으로 22.5% 증가했고, 2019년 자해·자살을 시도한 아동·청소년은 4,620명이었으며, 이는 2015년(2,318명) 대비 대략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박진우, 허민숙, 2021).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경향 속에서 보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는 정신 및 심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에 달했으며 학교를 그만둔 뒤 심리상담·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7.8%로 높게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a).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우울감(2.31점 / 4점)이 불안감(2.16점 / 4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여성 학교 밖 청소년이 남성에 비해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a).

17) 제3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매년 수행된 질적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리·정서적 건강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는 청소년 자신과 부모, 가족환경을 핵심으로 하는 미시체계부터 청소년의 또래,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중시체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및 법제 등의 거시체계로 구성된다(윤철경 외, 2018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체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이하 ACEs)으로 개념화하여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로 작동했는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와 연관되고 있는지를 시간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ACEs)의 프레임워크(framework)는 1995년 미국의 1만 7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과 현재의 건강상태(비만, 중독, 정신과 증상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대규모 역학조사(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 Study)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었다(Felitti, V. J. 외, 1998; 류정희 외, 2018에서 재인용).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 형제폭력 경험, 가정폭력의 목격 경험, 가정 내 알코올중독, 가정 내 정신병력, 부모 별거·이혼 등 가정 내의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왕따, 인터넷 피해 경험, 비행 경험, 지역사회폭력의 직·간접적 경험 등을 모두 포괄한다(류정희 외, 2018: 22). 만 18~29세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과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건강결과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청년 응답자 중 29.6%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으며 52.5%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38.5%는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8).

또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는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급격한 가계경제 악화, 부모의 폭행과 위협, 모욕, 무관심과 돌봄 부재, 그리고 또래폭력의 경험이 모두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류정희 외, 2018:13). 특히, 아동대상 분석 결과는 또래폭력과 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김덕건(2019)의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와 부부폭력 노출 경험(갈등 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CTS)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CES - D)과 공격성(Peer Conflict Scale, PC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복합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김덕건, 2019).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2020)의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부모 및 또래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1차 ~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776명의 청소년 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초기의 부모와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성인기 초기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학교를 그만두고 2년 후의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이를 매개로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지혜 외, 2020:165).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파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나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청소년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근거기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 간 실시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미시, 중시적 체계에서 경험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과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질문을 중점적으로 질적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은 아동기 어떠한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했는가?

둘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물질적 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그들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사회적 지지체계는 그들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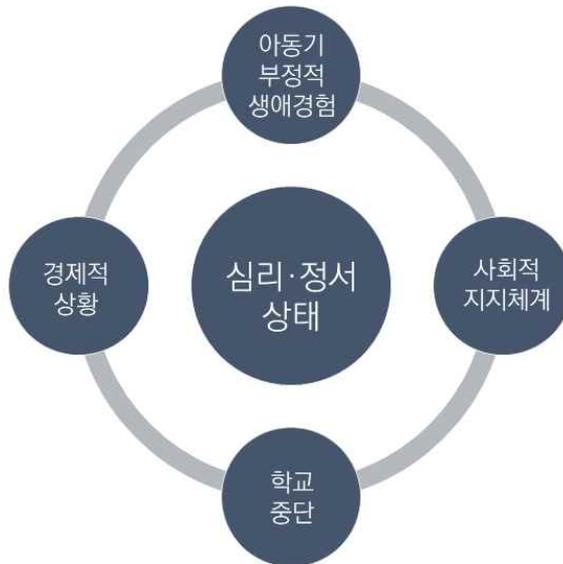


그림 Ⅲ-1.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의 관계성

2. 분석방법

본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2013년 ~ 2017년 실시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양적 패널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2018년 ~ 2021년까지 실시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1~4차년도 자료 중 적어도 2번의 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중단 계기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에 해당되는 14인의 청소년이다. 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은 부모의 방임, 가족의 음주, 정신질환, 수감, 부모의 별거, 사망, 폭력, 학대, 학교 폭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모두 14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표 III-1).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만 22 ~ 26세에 분포했으며 3번의 조사에 참여한 조사참여자가 11명, 2번의 조사참여자가 3명으로 구성된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6명, 남성이 8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학교중단 시점은 중1에서 고3에 걸쳐 넓게 분포했는데, 연구참여자의 대부분(11명)이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학교를 그만둔 참여자가 3명이었으며 2명이 중3 때, 1명이 중학교 입학 직후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7명, 중소도시 거주자가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직업별 분포는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4명,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자영업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6명, 아르바이트 또는 무업상태인 참여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전체 연구참여자 중 10명이 한부모 가족, 3명이 양부모 가족, 1명이 조손가정에 속했다.

본 장의 분석에서 주로 활용된 면접내용은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 학업중단 이유와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가족구성, 가족의 경제적 물질적인 상태, 가족, 친구, 학교·직장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불안, 우울, 성취동기 수준, 삶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다(표 III-2).

표 III-1. 연구참여자 현황

참여자 번호	성별	나이	조사참여년도				참여 횟수	가족유형	학업중단 시점	직업	지역 규모
			'18	'19	'20	'21					
1	여자	24	1	1	1	0	3	한부모(모)	중3	공장 - 알바 - 무업	대도시
2	여자	26	1	1	0	0	2	한부모(부)	고3	사무직	중소도시
3	남자	25	1	1	1	0	3	한부모(모, 동거남)	고1	공장-사무직	대도시
4	남자	24	1	1	0	1	3	양부모, 형	고1	군복무 - 대학생 - 알바	고양시
5	남자	25	1	1	1	0	3	한부모(모), 남동생	고1	사무보조 - 군복무 - 알바	대도시
6	여자	25	1	1	0	1	3	양부모, 남동생2	고1	무직 - 무직 - 사무	대도시
7	여자	25	1	1	0	0	2	한부모(모)	고2	대학생	대도시
8	남자	22	1	1	1	0	3	양부모, 형2	중1	알바	중소도시
9	남자	24	1	1	1	0	3	한부모(모), 형	고1	판매직	중소도시
10	남자	26	1	1	1	0	3	한부모(부), 연락두절	고2	대학생	대도시
11	여자	24	1	1	0	0	2	한부모(모), 남동생	고1	쇼핑몰판매	중소도시
12	여자	24	1	1	0	1	3	조부모	중3	알바 - 사무직 - 간호조무사	중소도시
13	남자	24	1	1	1	0	3	한부모(모), 누나	고1	대학생(알바)	대도시
14	남자	25	1	1	1	0	3	한부모(모), 동생(장애)	고1	전산직 알바 - 자영업	중소도시

주 : 연구참여자 현황은 본 과제의 2020년도 연구보고서(김희진 외, 2020)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2. 본 분석에 활용된 주요 면접내용

구분	면접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곳, 거주형태 • 학교중단시기 • 현재 하는 일 • 현재의 경제상태(주수입원, 빚, 저축, 가족부양 등) • 현재의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
학업중단경험과 이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경험과 현재 생각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학업중단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
자신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인식(자존감), 자신에 대한 만족도 • 불안감, 우울감 • 의욕 및 동기 수준, 무기력의 주요 이유

구분	면접내용
미래에 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결정 여부 •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전망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이후의 인간관계 • 가족관계 • 친구, 이성관계 • 학교, 직장,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 • 소중한 사람, 영향을 끼친 사람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01 ~ 102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일부 해당내용 발췌·정리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물질적·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14명의 개별패널에 대한 사례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학교중단 계기로 작용한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분석하고 2~3년간의 심리·정서적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여러 번에 걸쳐 면접자료를 읽고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반복하였고, 분석 결과가 면접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중단연구는 연구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깊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 및 보고서를 검토하여 삼각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 수집된 자료 속 실재가 연구결과로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한 내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자료분석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김인숙, 2016), 연구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균형감 있게 인용하고자 노력하였다.

3. 분석결과¹⁸⁾

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학업중단 이유는 다양했다. 직접적으로는 학교까지의 먼 거리, 학교에 대한 의미 부여의 어려움, 예상되는 진로의 어려움 등 직접적인 계기에서부터 보다 내밀하게는 또래들 사이의 따돌림과 정서적·신체적 폭력, 어려운 가정형편, 장애, 질병 등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직·간접적 학업중단의 계기를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의 맥락에서 분석하면 다음의 표 III - 3과 같다. 공간적으로는 가정과 학교로 구분되는 범주이며 대부분이 관계의 갈등과 폭력의 영역에서 포착된다. 가정 내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은 부모의 별거 및 이혼이 가장 많았고 이러한 가족사건의 전후에 부모의 질병 및 사망이 병행되었고, 이는 돌봄의 공백과 방임, 그리고 학대의 경험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생애사건의 경험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중독, 우울 등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내의 경험은 학교에서의 따돌림, 폭력의 피해경험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였다.

표 III - 3. 조사참여자의 가족유형 및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참여자 번호	성별	나이	학업중단이유	가족유형
1	여자	24	학교폭력	한부모(모)
2	여자	26	빈곤, 부의 알코올중독, 새어머니의 조현병 학대	한부모(부)
3	남자	25	부모별거, 부의 죽음, 따돌림	한부모(모, 동거남)
4	남자	24	학교폭력, 본인장애	부모, 형
5	남자	25	부모이혼, 왕따, 본인의 질병	한부모(모), 남동생
6	여자	25	성폭력(중학생 시기)	부모, 남동생2

18) 본 절에서는 윤철경 외(2018a), 장근영 외(2019), 김희진 외(2020) 연구들(「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의 1~3차년도 연구)과 2021년 연구에서 추가 수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 번호	성별	나이	학업중단이유	가족유형
7	여자	25	부의 사망, 모의 정서 신체학대, 신체장애, 우울증	한부모(모)
8	남자	22	왕따 우울 정신건강	양부모, 형2
9	남자	24	빈곤, 부모이혼, 형제폭력, 교사와의 갈등	한부모(모), 형
10	남자	26	가정폭력 - 이혼 - 모의 자살, 빈곤	한부모(부), 연락두절
11	여자	24	부모별거, 왕따	한부모(모), 남동생
12	여자	24	조부모, 부의 알코올중독 및 사망	조부모
13	남자	24	부모이혼, 따돌림, 우울	한부모(모), 누나
14	남자	25	부모이혼, 모의 방임, 빈곤	한부모(모), 어린 동생(장애)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단일하고 직접적인 계기로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생활 및 성장공간에서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이 교차한 과정 또는 결과로서 해석하고 그 경험의 폭과 깊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청소년의 학교 밖 이후 현재까지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욕구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과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표 III-4.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아동기부정적 경험	분류	조사참여자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알코올, 약물	1														
배우자폭력	1														
부모별거, 이혼	1														
부모질병, 사망	1														
아동방임	2														
형제폭력	3														
아동학대	3														
우울 정신건강	4														
학교폭력, 따돌림	5														
부정적 생애경험		4	5	3	2	2	2	3	3	2	3	2	2	2	2

(1) 알코올중독, 배우자폭력, 그리고 가족의 해체 경험

본 연구참여자 14명 중 상당수는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하였다.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의 경험은 그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폭력, 그리고 가난과 함께 왔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이 경험했던 부모의 별거와 이혼은 빈곤, 부부 폭력,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으로는 모의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2는 처음부터 부모와 함께 살아본 기억이 없었고 열여덟에 자신을 낳았던 어린 아버지와 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중3 때 아버지의 죽음을 맞아야만 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 ‘게임친구’로 아버지를 기억하였다.

알코올 중독에서 비롯된 건데 원인이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엄청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저학년 때부터 쪽...(아버지하고 같이 지낸 건 언제까지였는지?)¹⁹⁾ 굉장히 복잡한데 7살 때 이혼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재결합을 하셨고 6학년 초인가 그때까지 같이 살다가 가정폭력 때문에 다른 데로 도망갔죠. (연구참여자 10, 2019)

태어날 때는 아빠만 있었어요. 태어나고 직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엄마랑 외할머니랑 있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혼난 것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없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빠랑 지내다가 아빠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 뒤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다가. 그리고 나서 고 1때 완전 독립을 하고. (연구참여자 12, 2019)

(학교 그만둘 때도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상의도 했었어요 아버지랑도?) 저희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심했어서, 아빠한테 딱히 상의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친구 같은 아빠였어요. 게임 친구. 아빠랑 게임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너무 어렸어서 아빠가. 저랑 열여덟 살 차이가 나니까 그때가 아마 서른 몇 살이셨을 건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연구참여자 12, 2018)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실에 대한 고통과 상처 위에 다문화적 배경 등의 취약성이 더해졌고, 연구참여자 3은 새로운 학교에서 차별과 왕따를 경험하였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중국교포 출신의 어머니와의 삶은 빈곤과 술에 취한 어머니와의 전투로 채웠다(연구참여자 3).

19) 본 절에서 청소년 인터뷰 내용 중 괄호안의 내용은 면접자의 질문이나 반응이다.

일단 6학년 때 전학을 서울로 와서 OO에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원래 아빠랑 둘이 살다가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셔서 서울로 전학 와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국 교포 분이신데 그런 것 때문에 6학년 때부터 애들이랑 거리가 멀어져서 왕따 같은 걸 당해서 중학교 때까지 이어져서 별거했어요...(아빠는)광산에서 일하셨는데 지게차 몰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아빠랑 같이 살았을 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좋은 기억. 되게 잘해줬어요. (연구참여자 3, 2019)

술한 알코올 합병증으로 시달리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연구참여자 2의 청소년기 삶 또한 양육과 돌봄이 사라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아버지의 부양책임과 스트레스로 채워졌다. 또한 죽고 싶은 순간에도 죽음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온 지 오래다.

전 아빠가 아프고 다른 지역은 갈 수 없고, 책장. 간은 물론 안 좋고, 그거 말고도 뇌혈관이 터져서 어떨다든지, 병명은 정체 모를 뇌질환. 술에 대한 합병증 같은 거, 고혈압 등등... (그럼 아까 전에 죽고 싶다는 얘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고,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안 벌리고 이런 기분을 겪었을 때. 뭔가 너무 없었어요, 그럴 때. (혹시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실천을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시도를 해봤다거나) 시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했죠. 그걸 저는 봤죠. (연구참여자 2, 2018)

부모 사이에서 주로 나타났던 가족 갈등은 대부분의 경우에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가족의 형성이 뒤따랐다. 새로운 가족은 새로운 관계로의 적응 필요성을 의미했고 연구참여자의 일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연구참여자의 부모 중 일부는 새로운 동반자와 사실혼 또는 재혼을 하였으며 이들은 청소년들로부터 “삼촌”, “아저씨”, “아줌마”로 지칭되었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삼촌의 역할은 최근년도 인터뷰 이전까지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삼촌이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 학교를 소개, 진로를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부모가 모두 재혼을 해서 태어난 자식으로 전혀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결혼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부모의 가족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가족은 순조롭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삼촌은) 8년 정도 됐어요. 제가 중2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연구참여자 3, 2020)
일단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태해지는 걸 보기 싫어해서 삼촌은 제가 본인이 젊었을 때 못했던 걸 제가 맨날 놓고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너라도 젊었을 때 많이 해둬라 머리 좋은 거 썩히지 말고 그래서 좋은 머리 안 썩히고 시간 잘 쓰면 좋겠다고. (연구참여자 3, 2019)
(코로나로) 지금 (아버지의 카페사업) 상황이 안 좋아서 새엄마 아들 딸이 있어요. 저랑 배 다른 형 누나예요. 새 엄마랑 저 (카페를) 하나 받았어요. 형은 나름대로 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카페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2020)

(2) 가난한 삶속에서 돌봄의 부재와 방임

가난한 삶은 부모의 갈등과 싸움으로, 그리고 부모의 이혼에 의해 다시 가난한 삶은 이어졌고 이는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했다.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 가난한 엄마를 도와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연구참여자 5, 14).

일단 일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중학생 때 부모님이 떨어지시고... 이혼을...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저랑 남동생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엄마가 모든 걸 해야 하니까 제가 돈을 벌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5, 2018)
경제가 초등학교 때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750원짜리 라면 먹는 게 힘들었고 엄마는 밤에 일하러 가고 저는 학교 다녀오면 엄마가 없었어요. 등교시간에 엄마가 와서 깨워줬어요.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나 이런 게 적었어요. 그 당시에 잘 모르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가난하다 우리 집이 어렵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 했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학교 잘 다니는 게 다였어요. (연구참여자 14, 2020)

돌봄의 부재, 방임 또는 친척집에 맡겨지는 상황은 이혼과 빈곤 등의 맥락 속에서 흔히 일어났다. 연구참여자 14의 경우에는 생후 2개월에 부모가 이혼,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양육했던 경우로 일상적인 돌봄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했으며 아프고 나이 어린 동생의 돌봄 책임자로서 역할까지 더해졌다. 연구참여자 8의 경우 부모가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무속인인 어머니와 건설현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아버지의 직업상의 특성으로 잦은 이사, 장기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일상적인 돌봄의 방치상태에 오랫동안 처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혼자서 저랑 제 동생이랑 먹여 살리느라 일을 하시느라, 밤에 일을 하셨거든요. 밤에 일을 하시는데 밤에는 엄마가 없고 아침에 와서 어머니가 깨워서 학교 보내고 하셨거든요. 학교 가면 엄마는 제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자고, 갔다 오면 엄마는 밖에서 일하고 계시고. 자고 일어나면 또 엄마가 와서 깨우고. 엄마를 만날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침 빼고는. (그럼 OO씨가 주로 동생을 봤겠어요. 몇 살 차이 나오?) 열 살 차이 나오 동생이랑...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병이 있었던 건 아닌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6개월 만에 태어나서 몸무게가 1kg도 안됐었는데 심장이 덜 자란 채로 태어났거든요... 감기에 많이 걸렸었는데 애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감기에 한번 걸리면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14, 2018)

바쁘셨던 게 제일 많았어요. (어머니는) 바쁘시고 집안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좀 많이 복합적이었어요. (연구참여자 8, 2019)

이처럼 가정의 안정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정서적·신체적 폭력과 학대의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3의 경우 어려운 집안환경에서 사춘기인 누나와 혼자 생계와 양육을 담당해야 했던 엄마 사이의 심각한 싸움과 다툼이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혼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심각한 형제폭력으로 경험되고 평생 동안 형제관계의 단절 및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9).

이혼을 하셔서 집안환경이 어려웠는데 그때 두 살 차이나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엄마랑 많이 다투 가지고 그때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었고, 결정적으로 가정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의 안정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엄마 역할을 했어요. 거의 양육 역할을 누나가 다 했어요. 엄마는 거의 역할을 못했고. 문제였던 건 누나도 저랑 두 살 차이었는데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저를 책임져야 되니까 누나가 저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항상 올바른 방향인 건 아닌거죠. (연구참여자 13, 2020)

(혹시 가족끼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아니요 전 이제 무조건 혼자고, 저는 제 형을 싫어해서. 제가 형을 싫어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한 지 3년 됐어요... 형이 하도 때려 가지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땀가? 제가 도망쳐 나갔죠. 못 버텨가지고...그땐 제가 나이가 안 되니까. (연구참여자 9, 2018)

(3)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학대

가정 내 부모의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던 경우는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의 상황 등의 맥락과 반드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 직후 갑작스레 남편과 사별하고 한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게 된 연구참여자 7의 사례는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빈곤과 이혼을 통한 가족갈등의 경로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유복녀를 홀로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트라우마와 양육의 부담, 좌절된 자아실현의 꿈이 자식을 향한 원망과 통제의 욕구로 왜곡되어 작동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은 정서적, 물리적 학대와 폭력, 학비생활비 등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위협 등이었다.

엄마가 석사학위 딸 때 제가 생각하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못 다 이룬 자기의 교수의 꿈, 그런 게 있어요. 탄탄대로였던 게 석사 따고 박사 따려고 하던 차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연구참여자 7, 2018)

그때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엄마가 제 머리를 피아노에다가 광광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엄마가 나 이렇게 때리면 나 엄마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중략) (연구참여자 7, 2019)

또한, 연구참여자 6은 큰 어려움 없는 가정환경에서 친척오빠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고 되풀이되는 자해시도와 상담치료를 받고 학업중단에 이르렀던 사례이다. 이러한 성폭력피해의 과정에서 삼촌, 할머니 등이 보여주었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하기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자해 등 현재까지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중학교 때 사촌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길게 그랬거든요. 1년 반을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엄청 커서 그때 이후로 한 동안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엄청 하고 생각 자체가 하기 싫은, 그래서 센터 다니면서 나를 찾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욕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목적을 찾는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때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때부터 자해도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6, 2019)

중학교 1학년 가을인가 그때부터 2학년 전체 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중 3때 부모님이 알게 되고 집도 완전 난리 났었고 그때 작은 삼촌이 저한테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가 처신을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략) 할머니도 안 좋게 말을 엄청 많이 하고 그때 이후로 나 되게 쓸모 없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연구참여자 6, 2019)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떻게 살든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학교도 다니면 다니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기 시작하고 더 벗어나고. (연구참여자 6, 2019)

다른 한편 틱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 4는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에 의한 따돌림과 폭력과 맞물려지면서, 상처가 심화되고 장기화되었다.

(학교 중단 전에 부모님과 관계는 어땠나요?) 그때도 안 좋았고 그 이후에도 딱히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좋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아빠가 소리 지르고 때리고. (연구참여자 4, 2019)

(4) 심리·정서적 장애와 우울의 늪

이러한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학교생활, 친구관계의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울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보편적인 경험에 가까웠다. 성장기 내내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경험을 해왔던 연구참여자 7은 우울증과 정신과 상담을 오랫동안 받았다.

제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힘들었던 상황이라 틱도 있고 약도 먹고 정신과도 다니고 그랬던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2019)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해서 상담도 받고, 먹는 약도 많고... 열여덟부터 열아홉까지 그랬었어요. (연구참여자 7, 2018)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두 달 전쯤에 왜 학교에 보면 위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중학교 때 거기서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위센터에 갔어요 한 네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상담을 진행했었고 이런 저런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거기는 더 못 갔고요... 그래서 상담을 가봐라 했어서 그 때 처음 갔던 데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상담을 좀 오래 했고요... 하면서 여러가지 변화도 있었고 끝날 무렵에 병원으로 옮겨 갔어요 제가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됐고요...한 3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약이 없는 상태인데 많이 먹었고요. (연구참여자 13, 2020)

연구참여자들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불안정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학교 내 Wee센터의 심리상담 등의 경우를 통해서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치료의 필요성이 인지된 경우 학교를 중단한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복지서비스를 받고 정신과에서 전문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5) 학교폭력과 따돌림 : 정서적 신체적 폭력

연구참여자들은 가정 밖 생활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인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교에서 또래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폭력은 아동·청소년들이 놓여있던 가족관계의 위기, 돌봄자의 부재, 취약한 경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장애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맞물렸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연구참여자 3, 4, 11). 이들이 경험했던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경험은 일회적인 관계의 폭력경험이 아니었고 교사와 학교의 개입과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와 보호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그 어떤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도 교사와 학교라는 지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아이들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지고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학교 생활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있어서...부모님이 다 별거 하셔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빠랑 같이 살고 있다가, 중학교 때 올라와서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같이 안 사니까 그런 걸로 따돌림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서울로도 올라오니까 그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또 따돌림 거리가 되고 쪽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었고 되게 좀 무언가 묶여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3, 2020)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같은 학교를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피해를 줬던 친구랑 같은 중학교를 가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무리 지어서 요즘 일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무리 지어 다니니까 저도 조금 더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심지어 중학교 되면 힘이 더 세지니까 친구들이 조금 더 막 과시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체계적으로 뭔가 피해자랑 가해자랑 따로 다른 학교를 갈라놓는단가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금 트라우마가 조금 덜 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2021)

첫 번째로는 학교 그만두면서 그때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계네들은 너무 잘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 만나서 엄청 싸웠거든요. 오래된 일이잖아요 ...버스 타다 마주치고 하는데 진짜 그때도 되게 안 좋게, 이번엔 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마주치면 진짜 소름 돋고 식은땀 나고 그랬거든요. (연구참여자 11, 2018)

○○고 다니는 게 낫겠다고 (엄마가) 판단하신 게 일진 말을 들었을 때 턱이 있으니까 더 알בל 거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연구참여자 4, 2019)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기 : 심리정서적 상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2~2014년 학업을 중단하였고 지난 7~9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왔다. 복합적인 학업중단의 이유를 가지고 학교를 떠난 이들의 오늘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성취와 실패의 경험을 통한 자아에 대한 인식·자아존중감, 불안과 우울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학교 밖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 가능한 한 종단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하였으나 심층인터뷰의 깊이의 편차와 심리·정서적 변화가 2~3년 간의 종단 연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1) 삶의 만족도

지난 시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길을 “돌아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돌아 돌아오는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들고 있다(연구참여자 10, 1, 7).

(그러면 이런 나에 대해서 어때요?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어떤 면에서 특히 만족스러워요?) 경험이 많은 거,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무슨 돌발 상황 같은 게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지낸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은 됐어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반 정도는 괜찮다. (연구참여자 10, 2020)

(본인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에요 불만족하는 편이에요?) 저는 평균이에요. 만족하기엔 너무 게으르고, 불만족하기엔 정신 차리자고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1, 2018)

그렇게 높진 않은데. 되게 낮아요. 40?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고요, 가정 쪽으로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 제일 서러운 게 금전적으로 딸리는 거.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연구참여자 3, 2018)

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끔은 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불만족해요 (그럼 거꾸로 대견스럽게 생각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견뎌낸 거. (연구참여자 10, 2018)

상, 중, 하로 나누면 중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목표로 했던 편인 자체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시 준비도 나름 잘 되어 가고 있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게, 그래서 빨리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목표가 딱 있으니까 ...상이 아닌 이유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10, 2020)

만족스러운데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사 온지 얼마 안돼서 꿈드림도 다시 가야 되고 새로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좀 저는 힘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다 싶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6.5점. 조금이라도 사람들 이랑 교류가 있으면 그 면을 다 채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2018)

또한, 상처를 주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여건, '정상적인' 또래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은 삶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지적되었다(연구참여자 3, 10, 8).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한 연구참여자도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해 현재를 그저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구참여자 12는 과거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없었고 현재의 성취가 남들에게는 평범한 것인데 힘겹게 돌아왔다고 표현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그때는 그냥 그냥 그때도 딱히 내가 뭐 내 삶에 만족하고 난 내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일체 없었고 그냥 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제가 순탄하게 그냥 올 수 있던 길인데. 지금 이 조무사도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더 빨리 왔고 더 편하게 왔을 텐데. 제가 뭔가 길을 제가 혼자 만들어서 멀리 돌아서 계속 온 것 같아요. 남들처럼 살고 싶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학교를 그만 둔 것도 아닌데 너무 멀리 돌아온 건 아닌가 (연구참여자 12, 2019)

(2) 성취와 실패의 경험을 통한 자아인식 : 자아존중감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그들의 실패와 성취의 경험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자기 인식의 일관된 요소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었다”는 인식에 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이러한 당찬 자기 인식과 강한 삶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냥 제가 짱인 것 같아요. 잘 버텼다 싶어요...제가 제일 나아요. 남자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지 보니까 걔네들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저랑 똑같이 하는데 걔네는 어차피 취업을 못 했잖아요 (연구참여자 2, 2019)

잘 살고 있다. 굶지 않으면 됐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힘으로 일단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먹고 어디 놀러 갈 수 있고 이런 게 저는 가장 잘 살고 있다. 그거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2019)

(본인이 대견스러울 때, 그런 게 있다면) 뭔가 해냈을 때. 그리고 적금을 밀리지 않고 다 넣었을 때 이런 거? (연구참여자 2, 2018)

반면, 연구참여자 14의 사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2018년에 비해 자기 주도적인 삶의 의지와 자존감의 강화를 보여주었다.

저는 그냥 학업을 중단하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졌어요. 그 친구들과 다른 환경을 살아온 건 맞는 거 같아요...자아비판도 많이 했었고, 그때 자존감이 낮아서 소속감. 바로 없어지고 바로 제로가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디 가서 같은 또래 친구한테 시비가 걸리거나 싸움이 일어나도 저를 도와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걱정이 됐어요. 싸움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시비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내 돈 뺏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나 혼자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당장 깨달은 건 아니고 혼자 그렇게 긴 시간 살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성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아도 혼자 생각할 줄 알고 혼자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고 나 혼자 당당해 지고. 혼자 뭐든 할 수 있어야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래야 했었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없이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밥도 혼자 해먹었고. 그때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했던 일. 왜 지금 못하냐?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가졌었어요. (연구참여자 14, 2020)

또한 학교 밖 생활을 통해 그들이 얻어낸 성취는 힘들더라도 자신의 일을 버티고 지속할 수 있는 힘(연구참여자 3, 5),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대견하게 버티어

낸다는 부모의 인정(연구참여자 11), 경제적인 독립을 힘겹게나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연구참여자 1, 9), 학대·폭력의 트라우마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연구참여자 6, 7) 등을 포함한다.

대견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되게 많았었는데 잘 버틴 부분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일을 하면 오래 해요. 최소 반드시 6개월 이상은 일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구참여자 5, 2018)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하면. 어떤 일어든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꽃이 피겠죠. 항상 열심히 하니까요. (연구참여자 3, 2018)
그리고 대견하다고 생각한 거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제가 싸움이 나서 다 치고받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걸 알고 계시니까 걱정을 막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듯했어요. (연구참여자 11, 2018)

(그럼 그 책임 질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금전적인 거요. (연구참여자 1, 2020)

다 바뀌어서, 거기 관리자 분도 새로 오셔가지고 아예 모르셔가지고, 제일 부듯했을 때는 엄청 바쁜데 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좀 부듯했어요. 칭찬도 해 주고. (연구참여자 1, 2020)

예전에 안 좋은 일에 얽매어 있던 때도 있었고, 아직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버릇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회사도 다니고 하면서 잘, 나름 잘 살고 있는 거? (연구참여자 6, 2018)

나쁜 선택을 안 한 거? 자해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혼자 상담을 받아야 겠다 생각하고 그때 그걸 꾸준히 다니려고 했던 거? (연구참여자 7, 2018)

(스스로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께 돈 안 빌리고, 돈 관련 해서 그런 거 없고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고 제 생활을 봤을 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일하고 돈 벌고 오히려 생각이 깊어졌고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나 스스로 알아서 다 하자 그게 컸어요. (연구참여자 9, 2019)

반면, 이러한 성취에 기초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여전히 삶의 만족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10은 여전히 어려운 건 사회적 관계 맺기였으며, 연구참여자 9와 연구참여자 10은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4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 답답해 했다.

일단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이유는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처음 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약간 사회생활의 기본이 대인 관계인데, 일단 그런 게 안 돼서 좀 많이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고요. (연구참여자 3, 2019)

네, 연애도 무슨 능력이 돼야 하는 거지 지금 해봤자 상대한테 폐만 끼칠 건데...그게 제일 커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구참여자 10, 2019)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있어요. 그게 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고 자퇴를 한 입장이니깐 무시를 안 당하고 싶기도 하고요. 너희가 대학교 다니고 군대를 가는 동안 난 이만큼 했다, 열심히 벌어서 내 전셋집을 장만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머니한테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연구참여자 9, 2018)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거하고 봐준다는 거...(돌아가신) 어머니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실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0, 2018)

무기력하죠. 뭐든 간에 뭔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시작부터 뭔가가 안돼요. 특히 법 같은 건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일단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맞고, OO에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자리가 없고 (연구참여자 14, 2018)

비록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할지라고 이러한 인식의 기초에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싶다’, ‘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자의식과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6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참여자 중 가장 소극적인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고 반복 되는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건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애견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거긴 학원을 무조건 다녀야 되잖아요. 애견미용은 자격증 공부를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기초가, 제가 또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서 기초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1, 2018)

(생활 안에서 주요 관심사) 딱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따놔야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좀 별로..네. 지금 당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1, 2020)

저만 뒤쳐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백기간 길어지고 이러면 일 다시 시작할 때나 이런 것도 문제 있을 것 같고. (만약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좀 막막한 거?... 무기력? (연구참여자 6, 2018)

지렁이, 뭐가 꾸물꾸물 놓고 자고 먹고...(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싶거나 한 것) 아직 없어요. (최근에 그러면 가장 관심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할 용기. (연구참여자 6, 2019)

(3)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 불안과 우울

과거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사건과 경험으로 생긴 트라우마는 지난 7~9년간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학교 밖의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재의 불안과 우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과거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 6은 학업 중단이후 직장에서 집단 성희롱의 경험을 하고 퇴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은 이후 직장 성희롱이라는 성인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으로 이어졌고 중복적인 부정적인 생애경험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 6의 불안장애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터뷰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미래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으로 인해 부정적이다. 불안한 상황에서 자해를 했으나 2021년 인터뷰에서는 심리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해하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나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저를 손톱으로 파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있어도 나름대로...네, 생각이 나거나 사람 많은데 가면, 저도 모르는 불안함이 생기면 그러나 봐요 (연구참여자 6, 2018).

제가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무섭고, 어쨌든 한 생명을 제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 무섭고, 개가 컸는데 범죄자가 될까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랬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 여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이 나왔을 때 그런 위험 없이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안 낳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연구참여자 6, 2019)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거...그게 중학교 이후로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2018)

심리적인 거는 자립했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물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모님도 원망을 많이 했었고, 다른 가족들도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많이 벗어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 6, 2021)

또한 따돌림과 폭력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우울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연구참여자 8, 3, 5), 심각한 우울과 불안의 상황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5). 또한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감정의 조정이 어려워지면 한편으로는 견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 일상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등의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4).

내리 갈굼식 이런 거나 직장관계에서 안 좋으면 벌어지는 불화, 따돌림 이런 식이자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네 그런 게. 한번 잠들면 깨기가 힘들고 비몽사몽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연구참여자 8, 2018)

저는 일단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돌아간다고 한들 이게 만약에 똑같이 따돌림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냥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여서 되게 심각한 상태여서, 진짜 집에서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학교도 막 그냥 아프다고 안 나가고. (연구참여자 3, 2020)

지금까지 잘 버틴 사람 같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당시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우울증약을 복용하면서...고등학교 처음 자퇴할 때. 첫 자퇴를 하고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고 하면 안 되는, 우울증이 왔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어요. 사춘기 시기가 벗어났는데 계속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하니까...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일부러 높은 데를 올라가 보고... (연구참여자 5, 2018)

피해의식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미안하다고 애길 하는데...화가 잘 나요. (연구참여자 4, 2019)

말로 그냥 욕은 안 하고 소리 지르는 정도, 그게 심해서...그냥 좀, 제가 틱도 있고 하니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4, 2018)

연구참여자가 과거 경험했던 삶의 불안정성은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고 관계를 잃을지 모르는 강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2의 아버지는 동업을 하던 친구의 자살과 사업실패의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알코올중독과 질병으로 연구참여자 2에게 의존하여 살고 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책임이 험집지만 단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해왔던 아버지를 중독치료요양원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유예하고 있다. 곁을 지켜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한편,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어린 시절 헤어졌고, 형으로부터의 폭력과 결별 등 가족관계 안에서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 9의 경우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불안이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아빠) 사랑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는 아예 갇힌 공간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데도 별로 없고 다 멀리 있는데, 혹시라도 보냈는데 그렇게 어이 없이 죽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혼자 되게 심난하죠. 안 좋게 할 때는 보내고 싶다가도 좋게 해주면 또 그렇고. (연구참여자 2, 2018)

불안함이 컸죠. 다른 남자들이 채갈까 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요...맞아요. 정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연구참여자 9, 2019)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이 다가올 때의 대응기제는 친구와의 어울림, 술, 게임에의 몰입, 망각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0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친구와 어울리고 술을 마시면서 어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8은 초등학교 때까지의 거의 모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망각으로, 연구참여자 1은 따돌림으로 인한 관계상실의 상처를 친구와 술과 잠과 무기력으로 대응했다. 연구참여자 4는 게임몰입으로 장애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이 가져오는 스트레스에 대응했으나, 게임몰입은 또다시 아버지와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경험이 있어 잘 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지금이야 뭐 그냥 혼자서 사는 게 일상이 돼버렸고, 친구랑 자주 어울리다 보이면 크게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연구참여자 10, 2020)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 나는 건 딱 열두 살? 그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연구참여자 8, 2018)

(스트레스에서) 빨리 나와요. 친구들도,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지만 그냥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도 풀어 줄려고 해요. 술 먹자고, 술 먹으면서 다 얘기하고 나면 풀려요. 어느 정도. (연구참여자 1, 2019)

고민 같은 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제가 뭘 하나를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게임 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질병이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 4, 2021)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인한 외상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경험을 하였으며 상담치료의 형태와 지속성, 도움의 정도는 다양

하게 나타났다. 담임교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연구참여자 10), Wee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의 상담치료센터를 주로 이용했던 경우(연구참여자 13, 6), 정신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연구참여자 7) 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경우 공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리상담) 그러니까 이게 담임 선생님이 병행을 하는 건데,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라는 분은 교육을 주로 하시는 분이지 상담 심리를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상담심리센터가... 만약에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참여자 10, 20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상담을 좀 오래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했고, 한 1년 정도 쉬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사를 가고 한 다른 구에 있는 상담 복지 센터에서 상담을 한 1년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좀 길게, 하면서 여러가지 변화도 있었고 끝날 무렵에 병원으로 옮겨 갔어요 제가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지금은 거의 뭐 약이 없는 상태인데 많이 먹었고요. (연구참여자 13, 2018)

엄마가 가자고 해서 상담복지센터 다니다가 안 나서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인문계 그만 두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잠도 못 잤으니까 수면제 먹으니까 하루 종일 잠에 취해서 눈도 풀려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저건 아니다 싶어서 약 끊는 게 어떨겠냐고 그래서 끊기도 하고...(연구참여자 6, 2019)

3)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제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아동기의 어려움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했던 힘은 이들 스스로 일구어 왔던 독립적인 삶과 일의 경험이었다고 인식하였다. 2018년 인터뷰에서 아픈 아버지의 부양에 모든 고민이 집중되어 있었고 대학진학은 꿈조차 꾸지 않았던 연구참여자 2는 2019년 회사에서 일로서 인정받고 고용상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대학 한번 그냥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2018년 직업군인인 남자친구와의 학력, 직업상의

열등감을 경험하면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던 연구참여자 12는 2019년 병원의 원무과에서 일 경험을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고 합격하여 2021년 이제 대학입학과 간호사가 되는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배움과 학벌을 중시했던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연구참여자 10은 2년제 대학 진학을 하고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앞으로 사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 미래를 낙관하였다.

올해 5월에 제가 2년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많이 바뀐 거는 없고 직장도 전에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고 있고 딱히 대학 그냥 가보고 싶은 거? 대학 한 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죠...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중단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다른 경험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야간대 이런 데도 많고 사이버대학도 있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마음먹으면 갈 수 있겠구나. (연구참여자 2, 2019)

그래서 대학 가고 제가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거기서 대학에서도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일단 지금 지내고 있는 애한테는 그런 거를 안 당하겠다는 생각. 내가 직업이 이러니까. 그리고 애가 조무사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실습 나가면 진짜 힘들고 진짜 간호사들만 있는 그런 태움이라고 하지만 조무사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겪어보면 모르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12, 2021)

이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거나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는 학교 밖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제적 물질적 결핍과 빈곤의 문제는 어떻게 위기요인으로서 작동하는지 사회적 지지관계는 어떻게 보호요인으로 작동하는지 탐색하기로 한다.

(1) 미래의 꿈조차 꿀 수 없게 하는 경제적 물질적 결핍

이들이 다시 꿈꾸는 것을 저해하는 현실의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물질적 경제적 빈곤은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여유를 박탈하고 하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하루의 노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바와 저임금 노동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4와 같이 아동기 빈곤을 혹독하게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기엔 바쁜 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기엔 너무 가난한 오늘이 2018년 에도, 2021년에도 계속되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절망적이다. 게다가 부모님이 학비와 생계비를 위해 자식명의로 진 부채를 갚고 있는 연구참여자 5의 경우는 더욱더 미래를 계획하기엔 암담한 상황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알바”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 8은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주유소와 편의점 알바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편입에 성공한 연구참여자 10은 삶의 만족도가 “상”이 아닌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4, 2020)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어린 동생도 있는데 제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 안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안되고 공익도 가면 안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생계곤란? 해가지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넉넉하다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저를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죠. 학원도 더 다녀서 얼른 얼른 따고, 스펙이라고 하죠. (연구참여자 14, 2018)

지금은 드릴 수 없어서 제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진 빚이 있어서 1,000만 원 초반 정도...뽀뽀뽀해도 빚이죠. 빚이 많고 아직 24살인데 신용불량자예요. 이게 좀...(연구참여자 5, 2019)

지금 내 삶의 우선 순위는 일단 알바라고 할 거예요. (지금 알바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도와드리는 게 많아요. 드리면 60~70만원? 많게는 거의 80만원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벌면 90만원정도 벌어요. (기초생활 수급 수준을 받을 수 없는 복잡한 상황) 그렇죠... 파산 신청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서 그런 거를 등록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냥 저의 힘으로 혼자 버티고 온. (연구참여자 8, 2019)

(삶의 만족도는) 중 정도...뭐 아무래도 목표로 했던 편입 자체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시 준비도 나름 잘 되어 가고 있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게, 그래서 빨리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목표가 딱 있으니까. 상이 아닌 이유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10, 2020)

이와 관련해 수급자인 연구참여자 10은 주거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초생활 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50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늘 어려운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에도 생계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할 수 없고 월 50만원으로는 학교책, 편입공부 등을 하기에는 빠듯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득이 생기면 주거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반영과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거는 뭐 늘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확실히 주거비용은 줄어서 생활비가 좀 여유롭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생활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또 생계 급여가 빠져 나가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소득이 생기면 이제 여기를 떠야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10, 2020)

주거비용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미래계획의 가장 첫 번째 우선사항으로 꼽았다(연구참여자 14, 2, 9).

아직도 동생은 보육시설에 있고요. 엄마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엄마 혼자 잘 있기는 있어요. 그냥 일 하면서...목표가 안 정해졌고 그냥 모으면서 그냥 이 정도면 전세 아파트라도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될 때까지 모으려고요.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연구참여자 14, 2019)

개인적으로. 저는 집안이 평탄치 않아서 원래 아파트 있던 것도 못 살아서 팔고. 가족과 월세로도 지내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기준이 어디 쫓겨나지 않을 만큼 내 살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개인 생각이 중요해요. 겪어 왔어서. 내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똑같이 생각할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9, 2020)

(미래에 어떤 모습이?)집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2019)

(2) 나를 지켜주는 딱 한 사람의 힘

가족, 친구, 직장 등 학교 밖 청소년이 맺는 관계는 어떠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어떻게 그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작용하는가? 본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의 패턴은 고려하지 않았다.

가. 소중한 내편, 내 가족

아동기 결핍, 폭력과 차별과 같은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망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이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게 현재의 어려움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친족성폭력의 고통스런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 6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가능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바로 그가 경험한 부모의 관계가 서로 아껴주는 따뜻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에 취약한 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식을 낳을 용기까지는 갖지 못하는 그녀가 그럼에도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부모와 남동생들과의 좋은 관계의 힘이 컸다.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사랑 받는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2018)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족,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가 돼서.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다 알고 그래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내는데 뒤에서 신경 써주는 걸 알게 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의지가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 6, 2018)

또 다른 연구참여자 8에게는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연장과 둔기를 들고 학교를 쳐들어가는 과격하지만 든든한 큰형이 있었고 노동일로 전국의 건설현장을 누비지만 틈날때마다 그가 보고 온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편’을 들어주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 든든한 편들로 연구참여자 8은 7~8년이 지난 지금도 저임금 알바를 계속하며 파산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큰형은) 저희 큰 형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소위 말하는 약간의 비행 청소년 그런 경우여서...큰 형이 되게 화가 많이 났었죠...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막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아마 그게 안 말렸으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크게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그때가지고 할머니가 그거를 발견해서서 소위 말하는 그 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차에 싣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2019)

아버지가 많이 바쁘셨거든요. 네 항상 저희 편에서, 형제들이나 저희 무조건 많은 편을 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좀 마음을 추수를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8, 2020)

연구참여자 2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훨씬 복잡적이다. 젊은 아버지는 친구 같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불행한 재혼을 했고 아이와 함께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아이에게 늘 미안한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친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온갖 병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아버지의 의지의 상대, 부양자가 되었다. 애증의 관계이지만 연구참여자 2는 사랑을 주고 돌봐주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살아갈 힘을 얻고 투사처럼 하루를 버티고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술 마시고 폭언을 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다가, 되돌아가면 반찬도 없고 이럴 땐 사다 주고 먹으라고 하고. 좋을 땐 되게 좋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아빠가 안 좋을 땐 나도 안 좋으니까 회사 일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2018)

이젠 제가 아버지의 의지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같이 공동부담이 되겠죠 남편하고 결혼하면. (연구참여자 2, 2019)

강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네. 안 아프셨을 때. 아버지하고 관계는 좋아요. (연구참여자 2, 2019)

(가끔씩 술 많이 취하시면 폭언도 하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기니까 괜찮은 거죠. 이제는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의 경제적 능력도 상실됐고 그러면서 저를 키우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연구참여자 2, 2019)

(아버지의 재혼) 저는 반대하는 편이었죠. 결혼까지는 아닌데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에 따른 언니와 오빠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리고 그 아줌마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조현병 환자여서... (연구참여자 2, 2019)

연구참여자 13은 누나 때문에 아팠지만 그래도 누나 덕분에 살았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돌봐주고 잔소리를 해대는 누나 때문에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연구참여자 13은 누나와 엄마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만들어 준 에너지였다.

누나도 저랑 두 살 차이었는데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저를 책임져야 되니까 누나가 저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항상 올바른 방향인 건 아닌거죠...결정적인 역할이 됐던 건 누나나 엄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고요 꾸준히 뭔가 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생각하는 멋지다고 해야 하나 목표가 확실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그런 에너지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3, 2020)

반면, 남편과의 불화,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과 자살로 마무리된 어머니와의 관계가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다는 연구참여자 10은 결혼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홀로 학교를 떠날 결정을 했고 수급자로 검정고시와 대입, 편입에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엄두는 아직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혼은 지금도 조금 힘들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제 인생에서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상대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 그거를 빼고 나서 이제 다른 인생 계획을 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0, 2020)

연구참여자 4는 7년 전처럼 오늘도 아버지와 싸우고 있고, 그보다 덜 나쁜 관계인 어머니와 살고 있다. 턱으로 놀림을 당하고 자신을 때리고 학대했던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는 게임중독과 게으름으로 아버지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다.

제 삶의 모토는 아빠처럼은 되지 말자는 게 저만의 그거예요. (연구참여자 4, 2018)
솔직히 엄마는 좋으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좀 더 낫다고 표현하는 거지 엄마, 아빠 다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4, 2019)

제가 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아버지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나 봐요...잠을 많이 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그냥 고성으로 싸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폭력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 정도. (연구참여자 4, 2021)

연구참여자 14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지만 자유롭고 따뜻한 어머니와 양육 시설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린동생과 함께 전셋집을 장만해 사는 것이 꿈이다. 그는 생후 2개월에 자신을 떠났고 이제 자신을 꼭꼭 묶어 놓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새 가족의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다. 그는 아버지가 어렵고 모르겠고 숨 막히지만 아버지는 늘 그의 주위를 챙겼고 이제 경제적 지원마저 해준다. 한 번도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는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보살펴야 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돈을 지원해 줄 날을 꿈꾸고 있다.

그래도 아빠는 좀 여전히 어려워요. 이게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안 살았다 보니까 아빠는 제가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내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14, 2019)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보면 괜찮을까 하는 조언을 많이 구하죠. 엄마는 어차피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니까. (연구참여자 14, 2019)

가장 친한 가족으로부터의 학대의 경험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학대의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그 관계는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다시는 보지 않은 형 대신 연구참여자 9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네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형 보면서 형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형처럼 살지 말고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2018)

(형은 그대로예요? 네 (마음 풀 생각) 전혀 없어요. 정신머리 못차려서.. (형은 아직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지내요... 돈벌이가 안 돼서 어머니가 월세를 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별로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월세 낼 돈 없으면. 그렇게 안 해서 그게 별로예요. (연구참여자 9, 2020)

연구참여자 9의 경험과는 달리 연구참여자 7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엄마만 있었다. 주위에는 자신을 학대하던 엄마의 편만 가득했고 엄마의 폭력을 이야기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인정과 사과만이 필요했는데 엄마는 기억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부끄러운 기억을 지워버린 어머니의 돈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외가 쪽 식구들한테는 엄마가 우리 딸내미 재혼도 안하고 혼자 애 키우는데 애가 말도 안 듣고 학교 그만 둔다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엄마가 언제 너를 그렇게 때렸냐. 거짓말 한다고 하고. (연구참여자 7, 2019)

엄마가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그냥 저를 (중략) 집착도 되게 많이 했고 하나 하나 다 통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다가 커가면서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라는 거를 깨닫고 엄마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엄마가 때리는 걸로. 근데 엄마도 이제 그때 약간 술을 먹다 보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삶이 힘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많았는데...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화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엄마는 아예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화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낫겠다 라고 마음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좀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7, 2019)

학대하지 않았으나 믿어주지 않았던 기억도 상처였다. 심각한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았던 연구참여자 11은 네가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아버지의 말에 “나의 편”을 잃었다. 그러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대학교의 동문이 된 어머니의 칭찬에 연구참여자 11은 다시 내 편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가 전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개네를 전학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전 그건 죽어도 싫었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아빠 하고도, 그냥 학교 다닐 땐 그때도 반대하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말씀하신 순간 부터 더 멀어진 느낌이에요. 진짜 남 같고, 가족이라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갖지 않아가지고. (연구참여자 11, 2018)

그런데 좋은 영향이라고 봤을 때는 뭐, 엄마 따라서 방통대 다니게 된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너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잘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칭찬 같은 걸 해주셔서 몰래 사진도 찍어서 어디 올려 자랑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부듯하고 엄마가 되게 대견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애기들하고 있을 때 제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좋으신가 봐요. 저도 몰랐거든요. (연구참여자 11, 2018)

나. 있어주는 사람, 친구와 연인

연구참여자들은 힘들게 학교의 울타리를 떠났고 그 중 일부는 친구라는 소중한 관계를 잃기도 했고 학교 밖의 친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얻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관계의 소중함을 곁에 “있어주니까”라고 혁파했고 그녀의 건강한 힘은 곁을 지켜주는 아با와 남자친구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친구 같은 아버지를 잃은 연구참여자 12에게 아버지처럼 게임친구였던 엄격한 군인 남자친구는 간호 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 동력을 준 소중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끊임없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럼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با와 남자친구? (왜요?) 있어 주니까요. 내 옆에 있는 가족 같은 거니까, 없으면 안될 거니까. (연구참여자 2, 2018)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남자 친구의 영향이) 네. 근데 그 과정은 분명히 저한테. (상처도 되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고맙죠. 그런 거라도 하게 해줬으니까...아마 전 남자친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남자친구 그냥 심리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요. (연구참여자 12, 2021)

학교 밖에서 만난 친구가 명의도용으로 부채를 떠안게 해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불신을 갖게 하자, 친구들을 일거에 정리해 버린 사례도 있다(연구 참여자 3). 그럼에도 지지가 되는 좋은 여자 친구가 있고 따뜻한 배려와 지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사람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고 그런 부분. 전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별로 믿음이 안 가요.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면 제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믿음이 안 가요. (연구참여자 3, 2018)

아무래도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힘 나는 말도 많이 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는데, 내가 자존감도 낮게 있고 항상 우울해 있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자존감을 올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연구참여자 3, 2020)

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경험에 대해 연구참여자 2는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깊은 위안을 이야기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았던 연구참여자들은 그 경험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 학원 지원, 치과진료도 받을 수 있었으며(연구참여자 2),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철이 들 수 있었던 성장의 공간으로 기억했다(연구참여자 9). 그러나 이런 지원 센터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자의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심리적 무기력 상태의 연구참여자 1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어딘지를 알아보다 보니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것도 열여덟 살 때인가 열아홉 살 때 알아봐서 여기 때문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연구참여자 2, 2018)

위로가 되죠.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데 그땐 그게 너무 좋았어요...미룬 적도 많았죠.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지치니까 미루다가 너무 미루면 미안하잖아요. 그럼 가고... 진짜 아버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검정고시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컸어요. (연구참여자 2, 2018)

저를 약간 철이 들게 했다? 그걸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해보고요. 도움이 됐어요.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요. 개인적인 상담을...그런 거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상담도 해주시면서 풀어나가 주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셨죠. 경제적인 게 좀 컸는데 차비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가끔 가긴 가요. (연구참여자 9, 2018)

(인근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 본적은) 없어요...있다는 건 알았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연구참여자 1, 2019)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왔던 14명의 연구참여자의 아동기 삶의 부정적 경험과 상처, 학업 중단 경험 그리고 오늘의 심리·정서적 상태에 이르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질적 패널 2차 자료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중단의 직·간접적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따돌림과 학교폭력이었다. 이들은 또래로부터의 따돌림과 폭력을 학업을 중단한 직접적인 계기로 설명했다. 이들이 경험했던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시작되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른 관계 속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또래 사이의 따돌림과 폭력은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가족적 취약성과 함께 맞물리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물질적으로 항상 어려웠고, 이에 뒤따르는 것은 부모의 갈등과 다툼이었다. 부모의 갈등상황은 별거 또는 이혼을 통한 헤어짐, 즉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 질병의 경험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는 자살 또는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사건의 경험은 많은 경우 아동 돌봄의 부재, 방임, 자녀학대, 형제간 폭력으로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족체계와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사건 경험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은 아동기 우울, 정신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나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는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가족체계 내 빈곤과 가족갈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가족체계의 취약성은 또래와 학교라는 중시체계에서 다시 관계의 어려움, 따돌림, 폭력의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1차년도 질적패널 참여는 2018년으로 학업중단 이후 4~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현재 시점 기준 7~9년이 경과했으며,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학업중단 직후의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불안과 우울로 범주화되었으며 이는 본 패널자료에서 활용된 면접질문인, ‘자신에 대한 생각’ 중 자아인식(자존감), 만족도, 불안감, 우울감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중간, 보통수준, 10점 중 7점 정도로 다양하게 응답했으나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편이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어낸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비례했다. 즉, 가족관계의 갈등과 굴레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게 된 성인에 된 자신에 대한 신뢰,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반대로, 낮은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인 결핍과 어려움, ‘정상적인’ 학창시절의 부재와 또래관계의 결핍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인식은 삶의 만족도가 보여주는 추상성을 넘어 그들의 실패와 성취의 경험이 그들의 자기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냥 제가 짱인 것 같아요. 잘 버텼다 싶어요”라고 지금의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연구참여자는 강한 삶의 의지로 적금을 밀리지 않고 넣은 것에서 굶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 것에서 잘 살고 있다는 자기인식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가난과 부모의 방치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았던 연구참여자는 더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그가 “혼자 그렇게 긴 시간 살다가” 혼자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어린 “그 때도 했던 일, 왜 지금 못하나?” 자문하면서 점차 주도적인 삶의 의지와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취의 다른 한편에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싶다’, ‘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인식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일부의 연구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성취동기가 낮으며 반복되는 무기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기력 상태는 과거 심각한 학대 및 폭력 트라우마와도 연결되는데 아동기 친척에 의한 성폭력과 성인기 직장 성희롱의 중복적인 폭력경험을 한 연구참여자 6의 경우 무기력은 불안장애, 자해 시도와 결부되어 있다. 폭력피해경험의 트라우마는 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따돌림, 학교폭력의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일상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직장 등에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빈곤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음주, 다툼과 이혼, 그리고 집과 학교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7~9년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늘의 양식을 벌기 위해 내일의 꿈조차 꾸지 못 할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우울과 불안,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들 중 일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거나, 또는 하고 있다. 왜 그들은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여전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한 것들은 ‘경제적인 독립’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14인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처와 불안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원이다.

첫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탐색의 대상인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했던 학교 밖 청소년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가난을 경험했다. 그들은

발 디딜 데 없는 메마른 땅위에 버티어 서기 위해 발버둥 쳤고 고개를 들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애견미용사, 간호사, 법무사, 게임프로그래머, 삼성그룹에 취직한 회사원, 정규직 등 좋아하는 일,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도 자격증도 입시와 편입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바로 돈의 지원이었다. “본인이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그만둔 애들을 위해서 뭘 제일 먼저 만들고 싶어요?”라는 질문에 이들이 이야기한 돈의 정책적 지원의 내용은 교육·학습을 위한 경제적 지원(예 : 교재비 지원, 학원비 지원 등),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비 지원) 등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필요한 욕구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저마다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관계적 지원' 및 '심리·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즉, 힘겹게 현재를 버티어내고 있는 학교 밖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버팀목은 나를 살고 꿈꾸게 하는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러한 버팀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지원, 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는 청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지원체계의 확장,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분석방법
- 3. 분석결과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접근 중 하나인 ‘맥락 - 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8년 - 2020년 3년 간 면접을 진행한 9명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종단 자료와 2018 ~ 2019년에 이어 2021년에 추가로 면접을 수행한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종단자료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기 전부터 중단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후의 진로 과정을 밝혀왔으며, 지역사회 규모와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연구도 수행하였다(예 : 김희진 외, 2020, 윤철경 외, 2018a; 장근영 외, 2019). 그리고 이들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을 탐색하기도 하였고(김희진 외, 2020), 여성 학교 밖 청소년만을 집중분석한 하위과제도 이루어졌다(오은진, 장희영, 2020).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내 생활과 자립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0) 제4장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권지성 교수가 집필하였다.

그럼에도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누락된 차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개별 사례(연구 참여자)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과 생태 체계 관점에서 크고 작은 체계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청소년들이 거쳐 온 학교생활과 학업중단 사건, 이후의 생활과 진로탐색 과정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족과 학교, 관계망, 학교 밖 커뮤니티와 공식 지원체계,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왔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는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명된 연구 참여자들을 사례로 규정하고, 개별 사례의 자립 패턴과 맥락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참여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통합 맥락 - 패턴 분석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 중소도시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맥락 - 패턴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 경험에만 초점을 두고 전체 사례를 포함하는 통합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방법

1) 맥락 - 패턴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자립의 맥락과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권지성(2018)이 개발한 ‘맥락 - 패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현상을 사물, 의미, 본질로 나누고, 맥락의 구조 탐색,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턴 분석, 맥락과 패턴의 구조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다(권지성, 2018). 이 연구 역시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맥락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둘째 시간 경과에 따른 자립과정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판단하여 활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12명이다. 이중 9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중단연구에 참여한 대도시 거주자였으며, 3명은 2018년과 2019년에 참여한 뒤 2021년 추가 조사에 응답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IV-1). 성별의 경우 남성이 6명, 여성이 6명이었다. 출생년도는 1995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분포되었으며, 따라서 연령은 2020년 조사 당시 한국 나이로 22세부터 27세까지였다. 이들이 공교육 제도에서 벗어난 학교중단 시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사이였으며, 2018년 조사에서 학업형으로 분류된 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업형과 무업형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표 IV-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번호	성별	출생년도	중단시점	학력	현재 상태·활동	비고
2018 - 2020 대도시	1 - 학	여	1997	중3 끝	대졸	취업 중	—
	2 - 학	남	1996	고1 중	대졸	단기알바 중	방송통신고
	3 - 학	여	1997	중3 중	전문대졸	취업 중	기혼자
	4 - 직	남	1996	고1 중	중졸	자영업 / 외주	부친 카페
	5 - 직	남	1998	중3 끝	고졸	취업 중	방송통신고
	6 - 직	여	1997	중3 중	초졸	무직	—
	7 - 무	여	1996	고1 중	고졸	무직	그림 외주
	8 - 무	남	1998	중3 중	전문대졸	군 복무 중	—
	9 - 무	남	1999	중1 중	중졸	군 복무 중	—
2021 중소 도시	10 - 직	여	1997	중3 중	고졸	취업 중	간호조무사
	11 - 직	남	1995	고2 중	고졸	취업 중	프로게이머
	12 - 직	여	1996	고1 중	고졸	취업 중	—

주 : 윤철경 외(2018a), 장근영 외(2019), 김희진 외(2020) 연구들과 올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3) 자료수집과 활용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 ~ III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개별 심층면접이다. 훈련된 조사원들이 각 연구 참여자들과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다. 2018 ~ 2019년 조사(윤철경 외, 2018; 장근영 외, 2019)에서는 직접 대면으로 만나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화상대화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김희진 외, 2020).

면접은 연구진이 미리 구성해 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면접은 매년 1회씩, 매회 1 - 2시간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면접 직후 녹음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IV-2. 면접조사 내용

구분	면접조사 내용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살고 있는 곳 : 거주형태(자취, 부모님 집, 친구 등) • 마지막 학교 그만둔 시기 재확인(고등학교,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 : 변화 여부 확인
현재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활 탐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 직업준비 / 취업의 경우는 목적과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등 - 무업의 경우는 하루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등 • 하루 일과 및 일정, 만족도와 원하는 생활과 요구 •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학업중단 경험의 영향과 이후 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의미(아쉬움, 긍정적 의미, 대안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 등) • 학업중단 경험과 삶의 만족도 • 삶의 전환점으로서의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 학교중단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 변화, 불이익 / 차별 경험 • 시간 경과에 따른 학교중단의 의미 변화, 학교중단 고민하는 친구 대상 조언 내용
자신에 대한 생각 (정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 정도 •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정규교육을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등 혼란스러운 자신의 위상에 대한 내려티브 •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의 도움을 주는 멘토나 멘토링 기관 유무 및 요구

구분	면접조사 내용
미래, 진로 / 자립 실태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 상태(주 수입원, 빚, 저축, 가족 부양 등) • 진로 결정 여부 및 결정 기준 • 진로 · 직업 · 취업 준비 여부 및 내용, 학업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여부(예, 구직시) • 자립의 의미 및 자립 여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미래에 대한 계획
관계 (지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영향 미친 사람, 역할모델 등 유무, 지지체계 및 고립감 등 • 가족 및 친구, 이성 관계, 개인적인 관계, 학업 / 취업 현장, 지원체계에서의 관계 및 중요도, 만족도 등
지역사회와 사회 일반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중단 이후 현재까지 도움 경험과 내용(낙인 / 차별 경험 포함) • 지역사회 내 지원 유무 및 내용, 욕구(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 현재 지역사회 지원 중 미흡한 내용, 타 지역에서 도움 받은 경험, 이를 위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진 •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 출처: 김희진 외(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101 ~ 102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 · 보완

4)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권지성(2018)이 제안한 맥락 - 패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질적 중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먼저, 분석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맥락과 패턴의 밑그림을 그리고, 둘째, 개별 사례의 사물 혹은 의미 조각들을 점으로서 표시하며, 셋째, 이를 선으로 연결하고, 넷째, 점과 선들을 토대로 맥락과 패턴을 도출하며, 다섯째, 맥락 - 맥락, 패턴 - 패턴, 맥락 - 패턴을 연결하고, 여섯째, 전체 구조 안에서 맥락과 패턴을 다시 배치하였다(권지성, 2018). 마지막으로, 전체 사례들을 비교하고 개별 사례의 맥락과 패턴을 재검토하면서 떠오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맥락과 패턴을 재구성한 이후 각 사례에 대한 글쓰기와 통합 맥락-패턴 결과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 작업을 진행하였다(권지성, 2018). 또한 2021년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우선 세 개의 사례별 맥락 - 패턴 분석을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경험에 대해서만 전체 15개 사례의 해당 진술들을 따로 떼어 그에 대한 통합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²¹⁾

1) 2018 - 2020년 중단자료 분석

(1) 사례별 분석

사례별 분석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중단 이후에 자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일상생활의 맥락과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즉 각 연구 참여자를 사례로 규정하고, 각 사례의 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 뒤, 학교 중단 시기와 그 배경이 된 상황, 결정적인 계기 등을 제시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겪었던 일과 의미, 성인이 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2020년까지 유지되거나 변화되어 온 상황과 경험을 패턴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패턴을 지금의 자립 수준과 의미, 자신에 대한 생각, 가치, 꿈과 연결하였다. 그 뒤에는 이러한 자립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온 크고 작은 맥락들을 기술하였다. 대체로 가족, 사회적 관계망, 학교 밖 지원체계와 커뮤니티, 더 큰 범위인 사회서비스 체계와 일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느낀 차별 경험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가. 사례 1 : 97년생 여성 - 학업형

사례 1은 97년생, 24세²²⁾ 여성이다. 사례 1이 경험한 학교중단 이후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은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친 뒤에 학업을 중단했다. 그가 학업을 중단한 결정적인 계기는 ‘자퇴한 친구와 만남’이었다. 물론 그것이 ‘이유’는 아니다. 학교는 괜찮았지만 학교라는 제도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다뤘는데, 그 이후로 학교에서 나쁜 아이로 인식되었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겪는 것이 귀찮

21) 본 절에서는 윤철경 외(2018a), 장근영 외(2019), 김희진 외(2020) 연구들(『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 질적패널조사』의 1~3차년도 연구)과 2021년 연구에서 추가 수집한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2) 2020년 기준 한국 나이. 이하 2020년에 면접한 모든 사례의 연령은 2020년 기준이다.

아서 무단결석을 하게 되었다. 이때 우울감이 깊었으며, 생각과 고민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비용과 자퇴한 뒤 인터넷 강의를 통해 졸업자격을 얻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 후자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서 자퇴한 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부모에게 이야기했더니, 부모는 학교를 중단할 경우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을 거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사례 1은 학교중단을 결행하였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을 동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 줄 학교 밖 친구들을 찾아 나섰으며, 자립을 결심하였다. 이 과정에도 부모는 끊임없이 복학을 권고하였고, 그래서 어머니와 재수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학업중단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학교를 중단한 이후 생활패턴은 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집에서 빈둥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곧 독서실을 다니면서 독학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진로도 청소년지도사로 바꾸게 되었다. 사례 1은 18세 되던 해에 대학에 합격하여 청소년지도학과에 입학하였으며, 2년 동안 아르바이트와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바쁜 대학생활을 보냈다. 덕분에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장학금 대상에서도 탈락하게 되었다. 2학년을 마친 뒤 휴학하고 인턴으로 일했는데, 거기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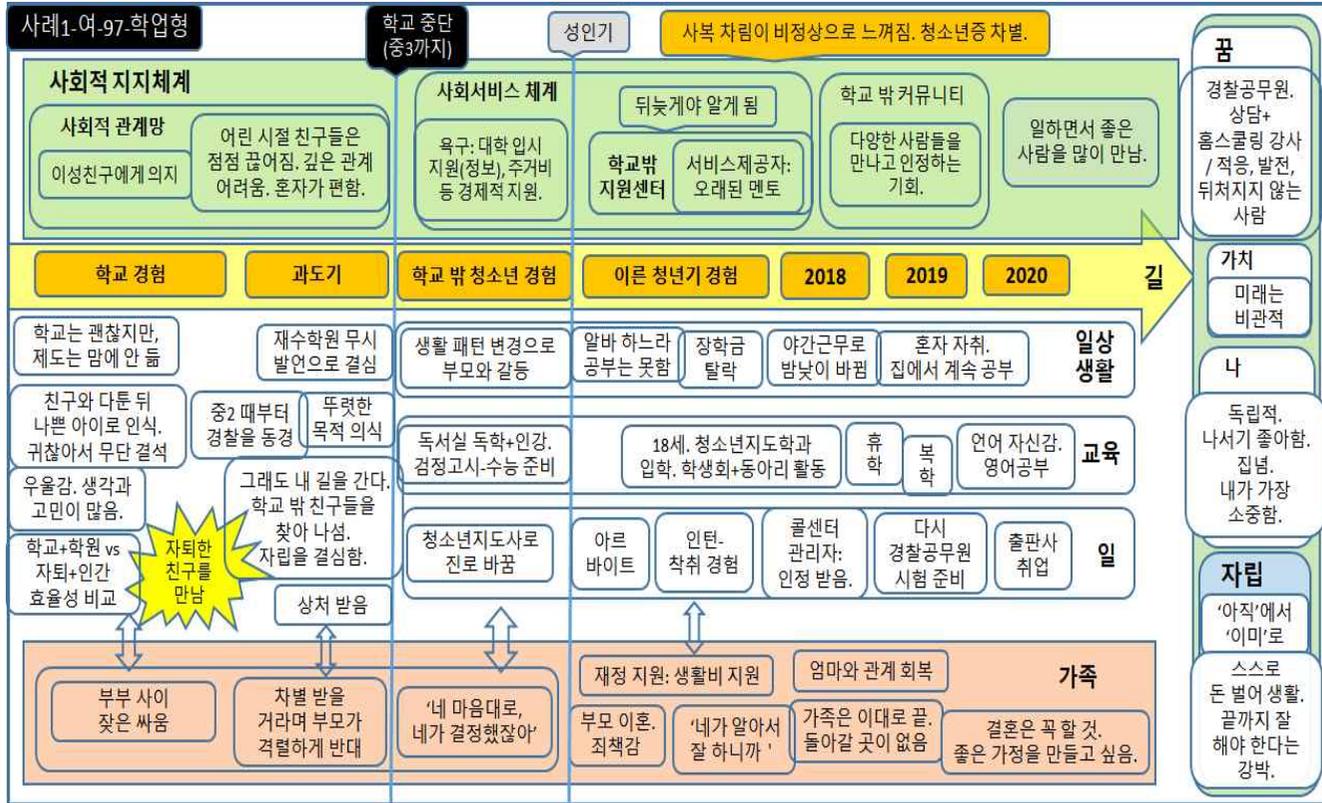


그림 IV-1. 사례 1의 자립 맥락과 패턴

2018년 첫 조사 때가 되었을 때는 여전히 휴학 상태에서 콜센터 일을 하였는데,윗사람의 인정을 받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대학으로 복학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중 2때의 꿈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상담을 하면서 홈스쿨링 강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어디에나 적응하고 발전하며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20년 조사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업한 상태라고 하였다. 좋아서 하는 일이 라기보다는 취업 알선 앱을 통해 연결된 일을 한 것이다.

사례 1은 자립이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2018년에는 ‘아직’이었지만 2020년에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자신이 끝까지 잘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부모를 포함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미 어느 정도는 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자신이 독립적이며, 나서기 좋아하고, 집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하였다.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하기 위해’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가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거의’ 혼자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한 뒤, 진로를 바꿔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대학 재학 중에 인턴과 아르바이트, 휴학과 복학을 거치며 다시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그의 자립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사례 1의 자립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온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는 그가 학교를 중단할 때도 반대했지만, 계속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례 1이 고군분투할 때는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말로 기운을 뺐고, 나중에는 ‘네가 알아서 잘 하니까’라며 믿어주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다. 엄마와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사례 1에게는 결국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 중 일부로서 사회적 관계망도 그리 든든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성 친구에게는 의지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은 모두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가 편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들이 연결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온 뒤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멘토와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많은 관계를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된 것이다.

사회서비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거론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도 학교를 그만 둔 뒤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검정고시 준비 등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학교 중단 이후 사복 차림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사람들의 차별 어린 시선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증과 관련된 차별의 기억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 사례 2 : 96년생 남성 - 학업형

사례 2는 96년생, 25세 남성으로 그가 경험한 학교중단 이후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학교 교육이 불필요해 보였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유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꿈을 찾는 게 먼저였으며, 부모와 특별한 갈등 없이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교사는 그가 유급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만약 학업중단속려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삶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뒤, 그는 1년 동안 그냥 놀기만 했다고 하였다. 그 기간에 특별히 불안하지는 않았고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다 해주었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부모가 고교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방송통신고는 1주에 한번만 등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2학년으로 입학하였다.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의 권유로 부동산에서 2년 간 일했다. 일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돈을 처음 벌어난 기회였다고 하였다.

방송통신고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였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18년 조사 당시에 그는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열심히 살고 있고, 학교중단 이후 70점 정도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 경험을 토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2019년에 조사했을 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편의점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2020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취업도 걱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그는 일단 손에 잡히는 일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진로는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가 생각하는 자립은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 서른 초중반은 되어야 자립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리적으로는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인 자신의 위치는 자립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가족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그가 학교를 중단할 때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결국 존중해 주었다. 반대로 방송통신고에 입학할 때는 좋아하셨다. 학교중단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신 부모가 방송통신고를 대안으로 찾아준 것은 그의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가 부동산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일이 직접적으로 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는 상반된 방향으로 그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가족의 분위기도 화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는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친구 3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였으며 서로에게 선이 없고 잘 해준다는 진술에서 친밀감을 엿볼 수 있다.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는 학교를 중단하면서 친구들과 고교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학교는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체계와 관련해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가지 않았으며, 도움은 될 것 같았지만 자신이 먼저 느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접촉도 정보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센터와 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주로 자격증, 멘토링, 취업지원, 직업 훈련, 진로탐색 등이었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학교중단을 100점 만점으로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방송통신고 졸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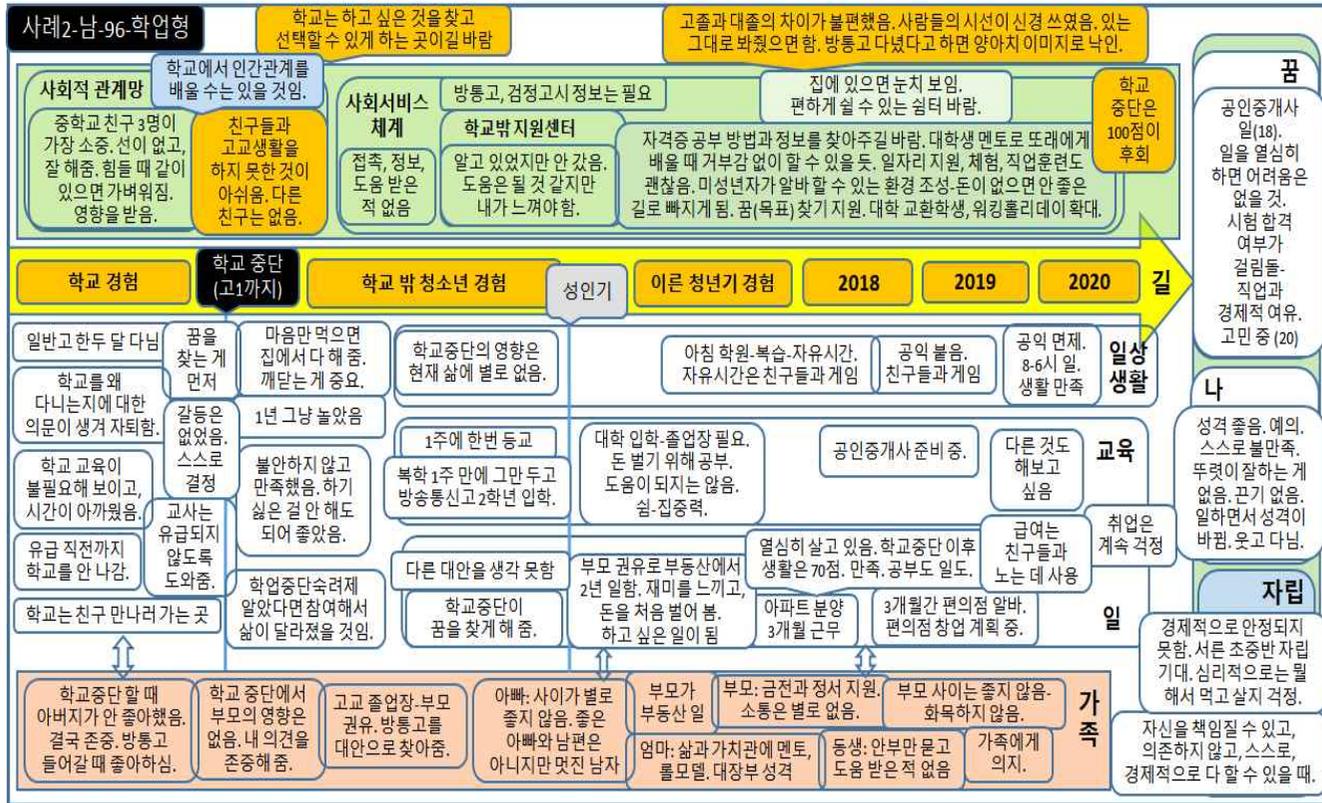


그림 IV-2. 사례 2의 자립 맥락과 패턴

다. 사례 3 : 97년생 여성 - 학업형

사례 3은 97년생, 24세 여성이다. 그가 학업형으로 분류된 이유는 중학교 재학 중에 자퇴를 하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전문대까지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가 경험한 자립과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3은 원래 운동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학업으로 복귀했다. 운동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난감해졌지만, 학업 복귀 의지가 생기면서 곧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시기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던 중에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왔다.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자신을 아껴 주시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후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았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또한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혼자 있으면 밀바닥까지 빠져드는 느낌을 갖곤 하였다. 그런데, 교사는 이런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사례 3은 학교를 그만 두었다. 부모님도 이런 사례 3을 지지해 주었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마음은 달혀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사례 3은 그 당시에 상담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마음을 추스린 뒤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문제집을 사서 검정고시 독학을 하였으며,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교의 방과후 수업도 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방향하느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 머리가 없어 힘들었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였다. 사례 3에게 학교는 결정권을 준 곳이자 선택의 장이었다. 학교 제도에 대해서, 사례 3은 학교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 밖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전문대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으며, 졸업 직후 교수 추천으로 취업하였다. 전문대 전공에 맞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2018년 조사 당시에는 직장에서 승진하여 많이 바쁘다고 하였으며, 선배들과 나이 차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대리로 승진하여 더 바빠졌다고 하였으며 계속 만족스럽지만, 다시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례 3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23세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학업중단 후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도 그 경우에 해당된 것이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자신이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미룰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주택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든 결혼이라고 진술하였다. 결혼해서 좋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의 변화는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례 3이 생각하는 자립은 '혼자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며, 성과를 낼 수 있고, 무너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른이란 신체적인 성인을 말하며, 자신이 정서적으로는 독립 상태라고 하였다(2018년). 또한 2년 뒤인 2020년에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자립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원가족은 부모 사이가 좋으며, 부부로서 자신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를 그만 둘 때도 지지해 주셨지만,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며, 그저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신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재정 지원보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편이며, 지원은 안 해주지만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고 하였다. 덧붙여서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셨는데, 지금(2018년)은 자신의 월급에서 떼어간다고 하였다. 결혼한 뒤에는 시부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으며, 자녀 계획도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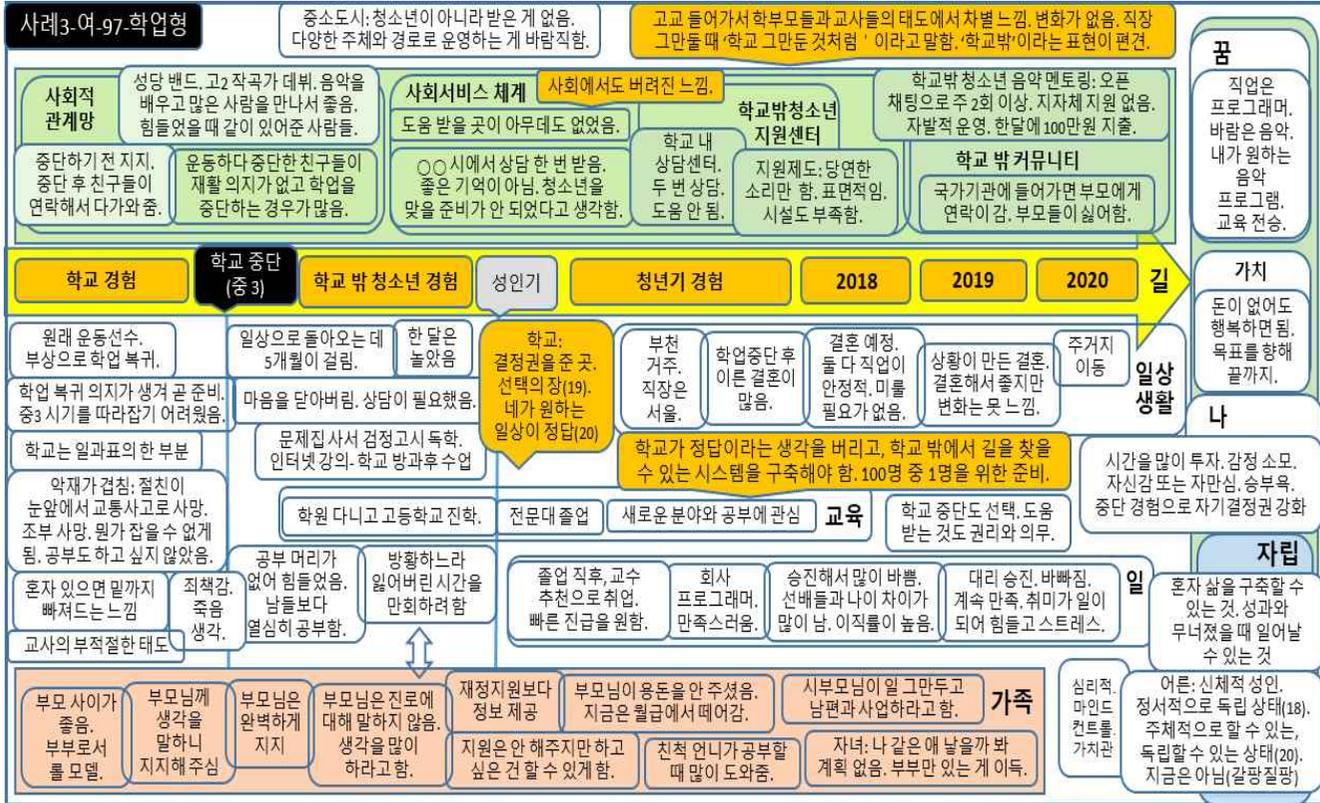


그림 IV-3. 사례 3의 자립 맥락과 패턴

사례 3은 꽤 풍부한 관계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친구들이 학교를 중단하기 전에도 지지해 주었는데, 중단한 뒤에도 연락해서 다가와 주었다고 한다. 또한 직업과는 무관하게 성당 밴드에서 음악을 하고 작곡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같이 있어준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였다. 그리고 음악 역량을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멘토링을 주 2회씩 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 등도 없이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체계라는 하위맥락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도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그것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이전에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도 두 번 상담을 받았는데, 도움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였다. 이러한 기억들과 관련하여, 지원제도는 당연한 소리만 하며, 표면적이고, 시설 자체도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아니라 받은 게 없으며, 다양한 주체와 경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회적 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회 임원을 한 적이 있는데,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태도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의 인식이 변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이전 직장을 그만둘 때에도 '학교 그만둔 것처럼' 그만 두는 것이냐는 말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례 3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고 싶다고 하였다. 자신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감정을 소모하는 편이고, 자신감이나 자만심을 갖고 있고, 승부욕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학교중단 경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인식도 하고 있었다.

라. 사례 4 : 96년생 남성 - 직업형

사례 4는 96년생, 25세 남성이다. 그가 경험한 자립과정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례 4는 17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학교를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으며, 자신이 학교에서 피해 주는 행동을 한 뒤 퇴학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퇴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으로부터 너무 먼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이 어려웠고, 출석일수가 적었다고 하였다. 피해를 준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일단 멀리 통학하는 것이 힘들었고, 적성에 맞지 않았으며,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그만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는 담임교사와 상담도 하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하였다.

사례 4는 학교에서 벗어난 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아를 탐색하고 비판하며, 혼자 성장을 결심하는 심리적 은둔기를 거쳤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하고 싶던 공부를 하고, 직접 할 일을 찾아서 일한 경험을 하면서, 마침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도 있었다. 19세에는 흠친 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학원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세 아파트 자금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다. 그가 이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가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 사례 4는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웹사이트 관리회사로 이직했고, 당시에는 게임 프로그래밍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였다. 구직이 우선이지만 취업이 잘 안 된다고도 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저축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 2019년에는 프로그래밍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점차 회사에 취직 할 마음이 없어지며 외주가 편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웹사이트 개발 외주를 받아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직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을 하기 보다는 외주를 받아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인 것이다. 그는 병역도 면제 받은 상태였다.

그가 학교중단 이후 걸어온 길에는 '학업'에 해당하는 영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는 검정고시를 볼 필요조차 못 느낀다고 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주된 일자리로 삼으면서 다른 분야를 기웃거리곤 했다. 2018년에는 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2019년에는 법은 취미로 삼겠다고 했으며, 2020년에는 여러 분야를 독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역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사례 4에게 자립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어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사례 4는 미련함, 무기력, 외로움, 내향적, 소심, 합리성 추구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언급했다. 그의 인생 여정과 진솔들에서 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은 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 부모는 원래 사이가 안 좋다가 사례 4가 어릴 때부터 별거하였으며, 덕분에 '자유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신뢰를 보냈지만, 엄격했던 아버지는 학교 중단 이후 함께 사는 동안에 자신을 구속하고, 반강제적으로 취업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터울이 큰 동생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사례 4가 부양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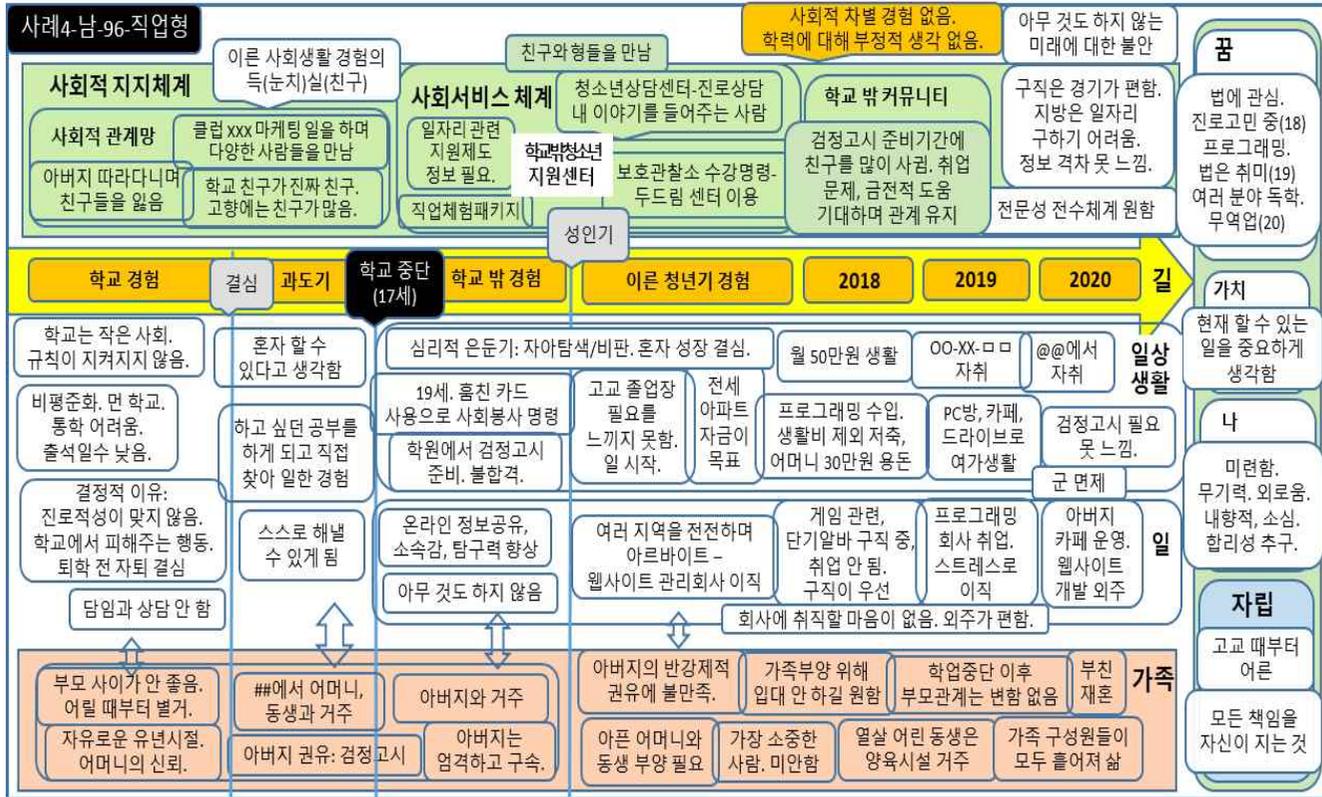


그림 IV-4. 사례 4의 자립 맥락과 패턴

사회적 관계망은 학교 중단 이후 위축된 양상을 보인다.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다니는 사이에 친구들을 잃었다고 하였다. 고향에는 학교 친구들이 많고, 그들이 진짜 친구라고 느끼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을 하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이른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눈치를 얻었지만 친구를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사회서비스 체계와 관련하여, 그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면서 두드림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 거기에서 친구와 형들을 만났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직업체험패키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무익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전 조사에서 일자리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를 바란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며, 취업 문제와 금전적 도움을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거주해 온 지역사회들과 관련해서는 구직의 경우 경기도가 편하다고 하였으며, 지방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보 격차를 느끼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학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없다고 하였다.

마. 사례 5 : 98년생 남성 - 직업형

사례 5는 98년생, 23세 남성이다. 그의 자립과정 패턴은 다음과 같다.

사례 5는 7세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였으며, 체육대학교에 가라는 관장의 권유를 믿고 열심히 운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접었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교포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받아

들이지 않아 부모가 별거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고나니 운동을 더 하기 어려워졌고, 어머니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을 당했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좋았던 것이 없으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례 5는 또래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문화생활을 못 즐겨봤다는 데서 차이점을 찾았다.

그러던 학업을 중단하고 얼마 뒤 삼촌과 어머니의 권유로 직업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년 과정의 직업기술학교였으며, 그 안에서 기계 분야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업을 하였다. 취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직장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생산 공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이 취업한 사람들이 1년 안에 모두 그만둘 정도였으며, 기숙사에 같이 살던 사람들도 모두 나가서 방세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원이 되어 회사를 그만 둔 뒤 몇 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쉬어야 했다. 이 경험에 대해 사례 5는 취업하고 나서 후회했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또래들보다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장점이며, 먼저 적응할 수 있었고, 성공에 한발 앞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 회사에 취업한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성과는 있었다.

이후에 사례 5는 친구 소개로 증권회사 보안업무로 취업하였으며, 5개월 간 근무하였다. 자신이 직업학교에서 배운 것과 무관하며 자격증과도 당연히 관련 없는 업무였지만, 같이 일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장점은 있었다. 그는 이 시기의 생활만족도를 40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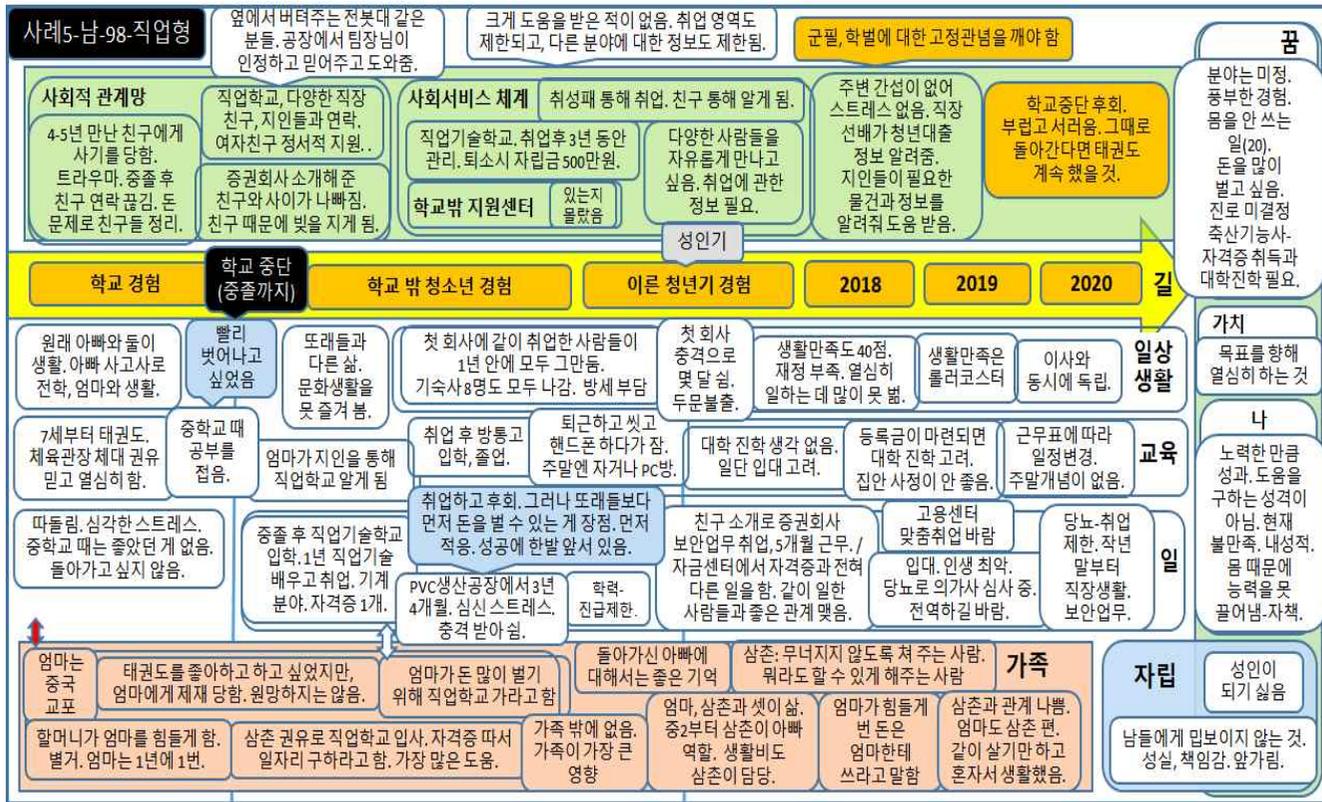


그림 IV-5. 사례 5의 자립 맥락과 패턴

2019년에 사례 5는 군 입대를 한 상태였는데, 당뇨 판정을 받아 의가사 제대 심사 중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의가사 제대가 보류되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불행히도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0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당뇨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었고,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례 5의 생활만족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강한 취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그는 2018년에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는데, 2019년에는 등록금이 마련된다면 대학 진학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는 자립을 ‘남들에게 밋보이지 않는 것, 성실, 책임감, 앞가림’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은 성인이 되기 싫다고 하였다. 자신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는 편이며 도움을 구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그는 꿈과 관련하여 분야를 정하지 못했으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몸을 안 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도 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새로운 분야로서 축산기능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과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5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에게는 의지할 데가 가족 밖에 없으며,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삼촌과 셋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해왔으며, 생활비도 삼촌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삼촌과 관계가 나빠졌는데, 엄마도 삼촌 편을 든다며 서운해 하였다. 그런데 같이 살기는 하지만 사실상 혼자서 생활했다고도 하였다.

사례 5의 관계망은 다음과 같다. 일단 중학교 때 친구들은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처를 크게 받기도 했다. 돈 문제가 생기

면서 의도적으로 친구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직업학교와 다양한 직장
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 지인들과 연락하게 되었으며, 직장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좋은 분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정서적 지원도 힘을 주고 있다.

사례 5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도 나쁘지는
않다. 우선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뒤 3년 동안 관리를 받았고, 퇴소시
자립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껏 있는지도 몰랐으며,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취업 영역도 제한되며,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도 제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와 함께 앞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싶으며, 취업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와는 달리 직장 선배가 청년대출 정보를 알려주고, 지인들이 필요한 물건과
정보를 알려줘 도움을 받고 있어서 비공식 체계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차별 경험은 갖고 있지 않으며, 군필,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례 5는 학교중단을 후회하고 있으며, 다른 친구들이 부럽고 자신의 처지가
서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중단하던 당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태권도를
계속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후회하는 경우는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외부 상황에 의해
진로가 급격히 바뀌었으며,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일자리와 연결되었고, 그마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데서 오는 회한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바. 사례 6 : 97년생 여성 - 직업형

사례 6은 97년생 24세 여성이다. 그의 자립과정 패턴은 다음과 같다. 사례
6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를 다니기

귀찮음과 학교폭력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늦잠이 많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졌다. 학교는 수업 듣고 배우는 게 의무인 곳이었으며 친구들과 노는 곳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서 되는대로 돈을 벌자고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벌어졌으며, 친구 무리와 싸웠을 때 느끼는 소외감이 싫었다고 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전자의 이유만을 진술하였는데, 2019년에는 이전까지 마음이 불안정하여 말하지 못했이라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있었던 폭력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는 그냥 놀면서 많이 미루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PC방 알바를 3개월 정도 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계속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이후 부모 소개로 공단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3-4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 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다시 공단 내의 다른 회사에 취업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은 계속해 왔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하였고, 돈을 쓰기 위해 벌어야 하는 의무감으로 일한다고 했다. 2019년에는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무직 상태로 쉬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걱정이며, 충분히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일 경험은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입 자체는 불만족스러우며 돈을 버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공단 일은 안정적 수입과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공단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생활패턴에 변화가 생겼고, 수입도 달라졌다고 했다. 그 일이 장래에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게으른 편이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이후 조사에서 사례 6은 생활만족도를 8점 정도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였는데, 2019년에는 의사표현과 관계가 확실해졌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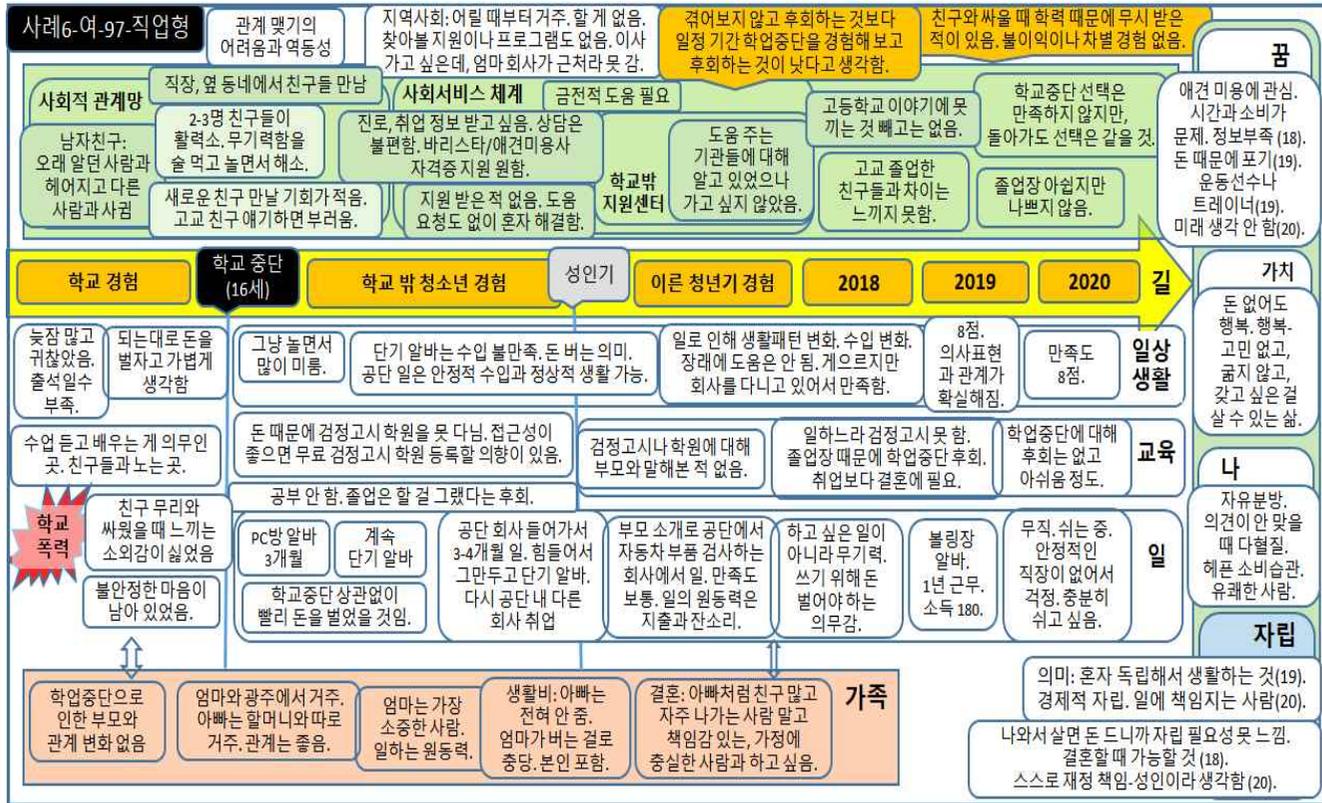


그림 IV-6. 사례 6의 자립 맥락과 패턴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보면, 처음에 일하는 동안에는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돈 때문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지 못했으며 접근성이 좋으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중단 이후에 계속 공부를 안 하게 되면서 졸업은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정고시나 학원에 대해 부모와 말해 본 적은 없다. 2018년 조사에서는 일하느라 검정고시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졸업장 때문에 학업중단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졸업장이 필요한 이유는 취업이 아닌 결혼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업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 아쉬운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사례 6에게 자립이란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2019년)’, ‘경제적 자립과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2020년)’이었으며, 자신은 혼자 나와서 살면 돈이 들기 때문에 자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며, 결혼할 때 자립이 가능할 것이고(2019년), 스스로 재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성인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0년).

그는 자신이 자유분방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다혈질적인 사람이며, 해픈 소비습관을 가진 유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자신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며, 행복이란 고민이 없고, 굶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꿈은 현실과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2018년에는 애견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간과 소비 패턴이 문제이며,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2019년에는 돈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였고, 운동선수나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20년에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은 그의 학업중단 과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으며, 학업중단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달라지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우선 부모가 따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가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긴 탓에 말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상관없이 어머니는 사례 6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사례 6의 관계망 안에는 남자친구와 가까운 2~3명의 동성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친구는 2019년 조사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과 얼마 전부터 교제 중이라고 하였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 6에게 당장 중요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온 2~3명의 친구들이며, 그들이 자신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무기력함을 함께 술 마시고 놀면서 해소한다고 하였다.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는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사회서비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원 받은 적이 없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모두 해결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며, 다른 직업을 위한 자격증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은 불편하며, 금전적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생활하였는데 ‘할 게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찾아볼만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도 없다고 한다.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친구와 싸울 때 학력 때문에 무시 받은 적이 있지만, 불이익이나 차별 경험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를 중단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보여 왔다. 처음에는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019년에는 졸업장이 아쉽다고 했고, 2020년에는 후회는 없고 아쉬운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 중단 선택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사례 7 : 96년생 여성 - 무업형

사례 7은 96년생, 25세 여성이다. 그가 2018년 조사 당시 무업형으로 분류된 이유는 취업준비 중이었기 때문인데, 2020년까지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 자립은 '경제적 독립',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지만 자신은 의지는 있지만 노력은 안 하며,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따라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상태는 잉여인간, 식충이 같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있는 융통성과 여유는 장점이지만, 자신감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립과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학교를 떠난 이유는 '학교생활이 싫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하기 싫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했다. 이 와중에 교사가 대안 학교 진학 또는 휴학을 권유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도 학교를 그만 두었을 것이며 이제는 자유롭게 여유로워졌다고 하였다. 그가 학교를 그만둘 때는 학업중단숙려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학교를 중단하기 전후에 어머니가 검정고시, 상담센터, 학원 등을 제안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잠만 잤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여 18세가 된 해에 3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검정고시 학원은 학교에 비해 다니기가 수월하였다고 회상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학원을 다녔는데, 손목이 아파서 중단하고 이후 2년간 '놀았다'고 했다. 이후의 생활과정은 그림만 간간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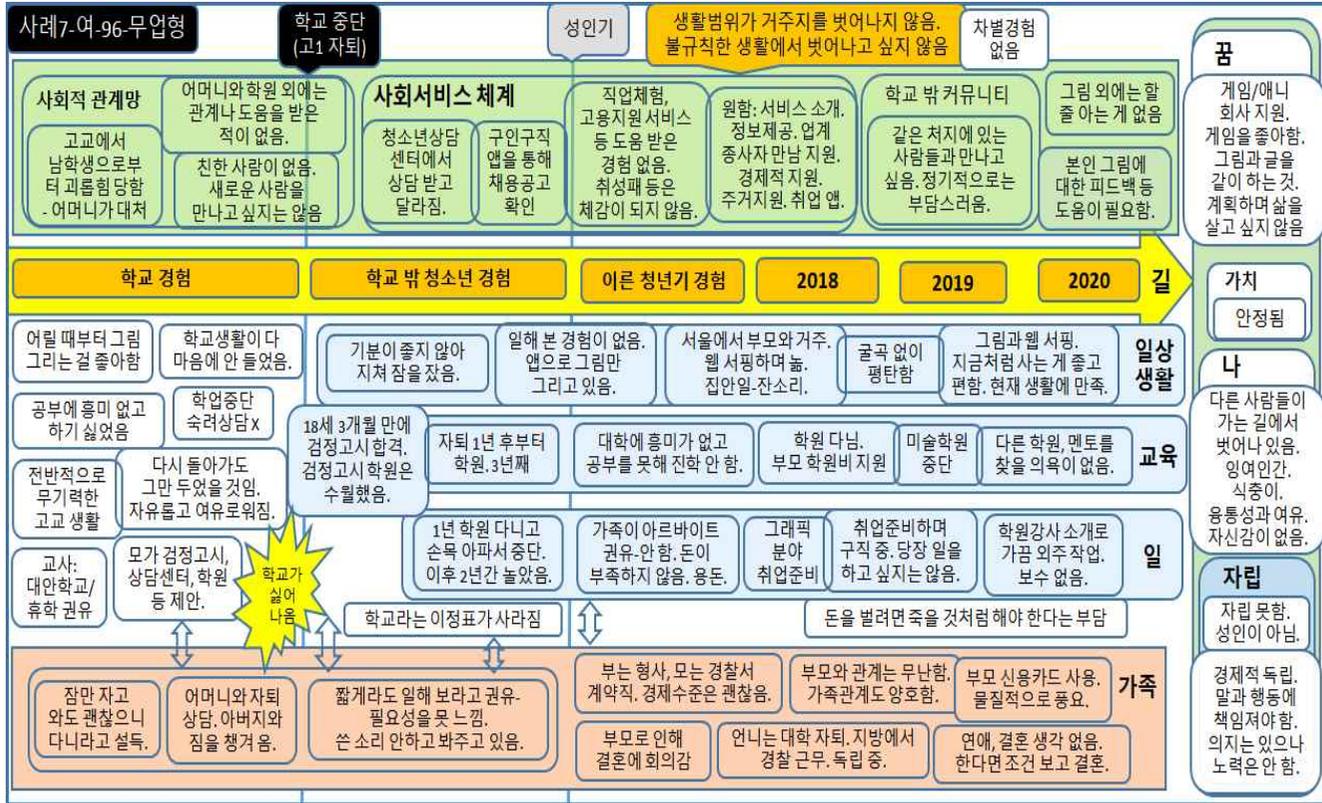


그림 IV-7. 사례 7의 자립 맥락과 패턴

사례 7은 2018년 조사 당시 한 번도 일해 본 경험이 없고, 앱을 사용해서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유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부모도 용돈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래픽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2019년에도 구직 중이라고 답했다. 그림에도 당장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2020년에는 학원 강사 소개로 가끔 외주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보수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을 받아 미술학원도 다녔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고, 다른 학원이나 멘토를 찾을 의욕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에 흥미가 없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진학을 안 했으며,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웹 서핑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고 편하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굴곡 없이 평탄하게 지냈으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에 대해서는 '돈을 벌려면 죽을 것처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자기 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그래픽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사례 7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회사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였고,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림과 글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였고, 굳이 계획을 하면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7의 가족은 그를 내버려 두고 있다. 학교를 중단하고자 했을 때는 학교에서 잠만 자고 와도 괜찮으니 다니라고 설득하였는데, 어머니가 자퇴 상담을 한 뒤에 아버지와 짐을 챙겨서 학교를 나왔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는 짧게라도 일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는데, 부모도 쓴 소리 안하고 봐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형사이며, 어머니도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을 합치면 경제적 수준은 괜찮은 편이다. 부모의 관계를 보면 결혼에 회의감을 갖게 되지만, 부모와 자신의 관계는 무난한 편이며 가족관계도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사례 7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연애나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결혼을 한다면 조건을 보고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가 자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7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빈약해 보인다. 고등학교 때 남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어머니와 학원 외에는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며, 스스로 친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가 경험해 온 사회서비스 체계도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달라졌다고 한 점과 구인구직 앱을 통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는 정도였다. 직업체험이나 고용지원서비스 등 직접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으며,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서비스 소개와 정보제공, 업계 종사자 만남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앱 등은 지원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만 정기적 만남은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활 범위가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불규칙한 생활이지만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은 경험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그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며, 본인 그림에 대한 피드백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빌어 정리하면,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 도움과 지도를 받고 싶지만, 그림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 사례 8 : 98년생 남성 - 무업형

사례8은 98년생, 23세 남성이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고,

지금은 공군에서 군 복무 중이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정리해보았다.

사례 8의 경우 학교를 중단한 이유는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모두 학교를 그만 두면서 학업에 흥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 그만 두게 되었다. 학업 중단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은 받지 못했으며,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온전히 본인 의사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에 어머니는 말리셨고, 아버지는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학업중단 후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교사와도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한번뿐인 학교생활을 중단한 것은 후회가 된다. 회상할 추억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아마도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았지만 보람 있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 나이에 사고를 많이 쳤는데, 어머니 눈물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정보들도 모두 끊겼고,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웹사이트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18세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한다.

이후에 그는 건설, 택배, 주점 등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렇게 늪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배우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고, 대학입시에 도전하였는데, 처음에는 탈락하였고, 이후에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1학기 만에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학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며 전역 이후 진학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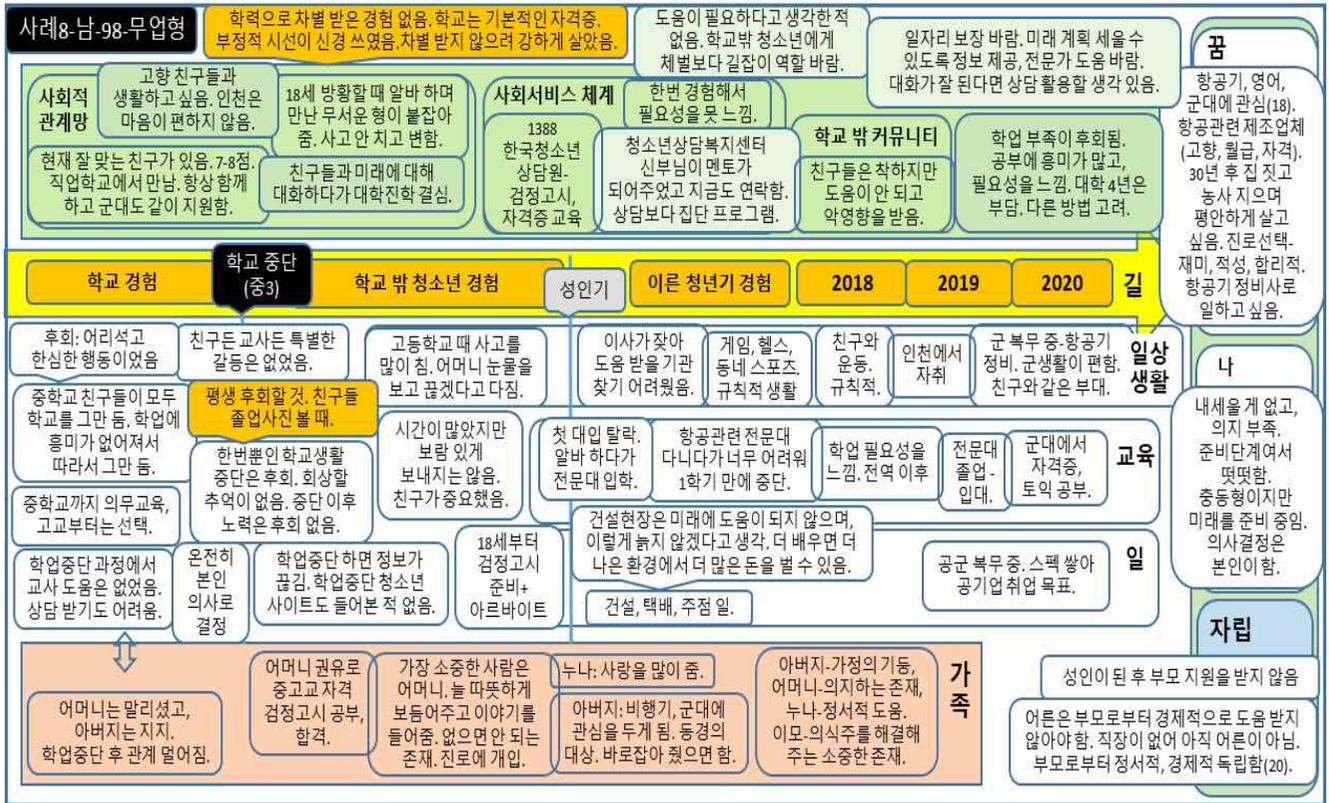


그림 IV-8. 사례 8의 자립 맥락과 패턴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입대한 상태였으며, 공군에서 복무 중이었고, 2020년에도 여전히 복무 중인 상태에서 자격증과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간에 스펙을 쌓아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일상생활은 꽤 규칙적이고 정돈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해서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친구와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고, 친구와 같이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의 꿈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에는 항공기, 영어, 군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고, 항공관련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30년 뒤에 집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진로는 재미와 적성이 중요하며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학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학업이 부족한 것은 후회되며, 공부에 흥미가 많아졌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 4년의 기간은 부담이 커서 다른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게 자립은 어른이 되는 것이며, 어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이 없는 자신은 아직 어른이 아니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자신은 성인이 된 후 부모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은 내세울 게 없고 의지가 부족하지만, 아직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몇몇하다고 하였다. 학교를 중단할 때부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는 어머니 권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비행기와 군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동경의 대상이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로잡아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사례 8에게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며, 어머니는 의지하는 존재이고, 누나는 정서적 도움을 주며, 최근에 같이 살았던 이모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사례 8의 관계망은 그리 넓지 않지만 충실해 보인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으며, 만족도도 높다.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항상 함께 하고 있고, 군대도 같이 지원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도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대화하다가 결심하게 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18세에 방황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형이 자신을 붙잡아 준 덕분에 사고를 안 치고 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학교 밖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착하기는 하지만 도움이 안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보며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례 8은 사회서비스체계도 알차게 활용하였다. 1388 청소년상담원을 통해 검정고시와 자격증 교육을 받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만난 사제가 멘토가 되어주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상담보다 집단 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 서비스들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러한 서비스 체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서비스체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자리 보장이며,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례 8은 학력 때문에 차별 받은 경험은 없으며, 학교는 기본적인 자격증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중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신경이 쓰였지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하게 살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자. 사례 9 : 99년생 남성 - 무업형

사례 9는 99년생, 22세 남성이다. 그가 2018년에 무업형으로 분류된 것은 소득이 있는 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도 했다. 그의 자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9는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그 뒤에는 교육체제로 진입하지 않았다. 그가 학교 중단의 이유로 꼽은 배경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잦은 전학으로 적응이 힘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전자의 경우 마지막 학교에서 낮설고 친구가 없었으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격까지 변했다고 하였다. 그런 와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는데, 교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는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학교중단숙려제는 자퇴를 못하게 잡아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 하였다.

그 뒤로 1년 동안은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다고 하였다. 중졸 검정고시는 독학을 해서 통과하였으며, 부모의 권유와 집에서만 있는 생활이 싫어져서 1년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학교중단 이후에는 아무런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스스로 검정고시를 통과해야겠다는 바람으로 준비 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에겐 꿈드림이 집에서 사회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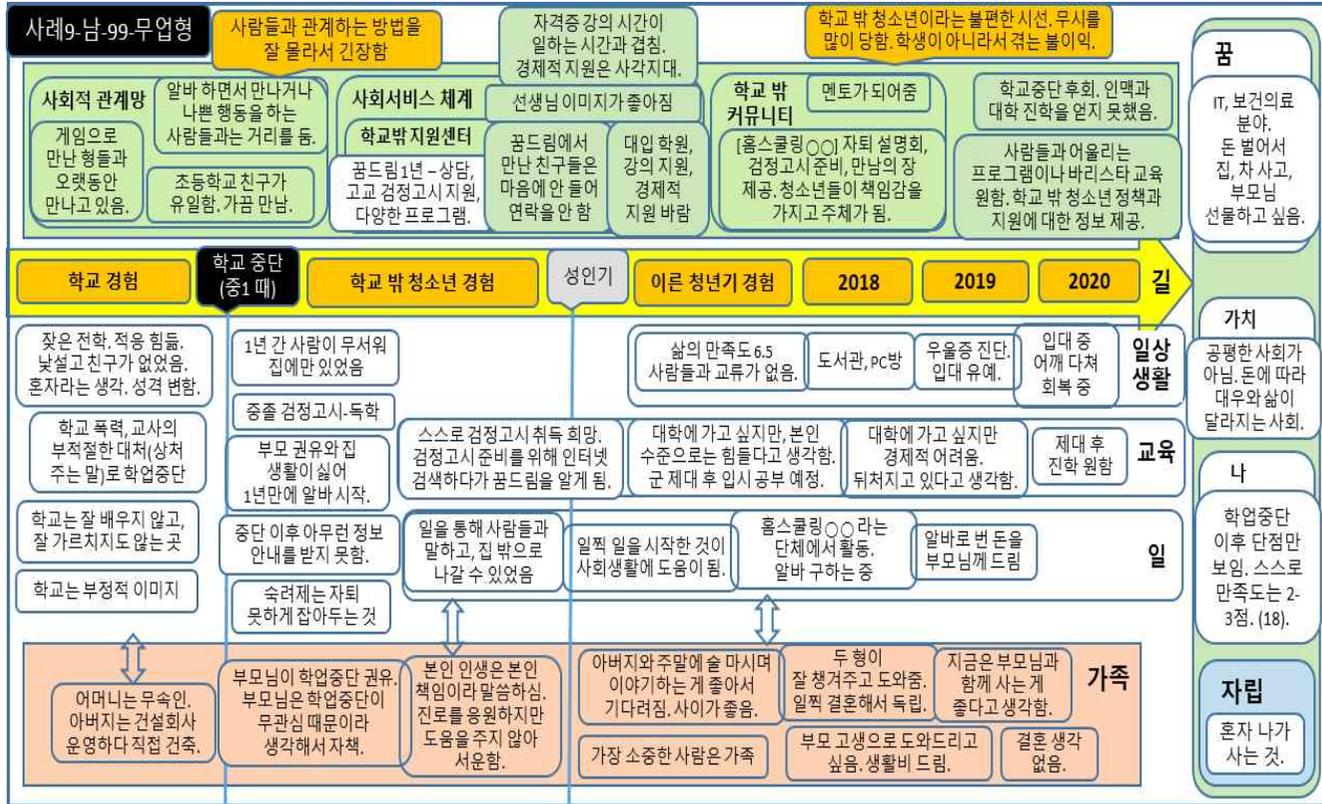


그림 IV-9. 사례 9의 자립 맥락과 패턴

스스로도 ‘일을 통해 사람들과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꿈드림 활동이 사례 9의 인생 여정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찍 일을 시작한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자신이 홈스쿨링 ○○라는 단체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도 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활동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였고, 2019년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9는 학교를 그만둔 뒤 삶의 만족도가 6.5점 수준이었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고 하였으며, 도서관, PC방에만 머문다고 하였고, 우울증 진단으로 입대가 유예되었다고 하였다. 2020년에는 입대 중에 어깨를 다쳐 회복 중이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사례 9는 2018년에 대학에 가고 싶지만, 본인 수준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군 제대 후 입시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2019년에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제대 후 진학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업수행능력이나 재정문제를 걸림돌로 생각하며 미뤄둔 셈인데, 최근에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있는 중인 것이다.

사례 9에게 자립은 ‘혼자 나가 사는 것’인데, 그의 현재 상황으로는 요원해 보인다. 그는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단점만 보이며, 그래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3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의 꿈은 IT, 보건의료 분야이며, 나중에 돈을 벌어서 집과 차를 사고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가 속한 가정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어머니는 무속인이며,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부터 직접 건축을 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에는 부모님이 학업중단을 권유하였는데, 나중에는 학업중단이 자신들의 무관심 때문이라 생각하여 자책하고 계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셔서, 진로를 응원 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데 대해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성인기가 되면서 가족과 관계는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아버지와 주말에 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기다려진다고 하였으며,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였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도와드리고 싶고, 생활비도 드렸다고 하였다. 사례 9에게는 형이 두 명 있는데, 그들도 자신을 잘 챙겨주고 도와준다고 하였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가족을 벗어나면 사회적 관계망은 단출해 보인다. 게임을 하면서 만난 형들과 오랫동안 만나고 있고, 초등학교 친구가 유일한 친구로서 가끔 만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둔다고 하였다. 사례 9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긴장하기 일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례 9에게는 학교 밖 커뮤니티가 있다. 홈스쿨링 ○○라는 팀에서 자퇴 설명회, 검정고시 준비, 만남의 장 등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데, 사례 9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청소년들의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사례 9는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꿈드림을 1년 동안 이용하면서 상담, 고교 검정고시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연락을 안 한다고 하였다.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자격증 강의시간이 자신의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이용을 못 한 것을 아쉬워하였고, 경제적 지원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대입 학원, 강의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나 바리스타 교육 등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가 널리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반 사회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불편한 시선이 존재한다고 느꼈으며,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대체로 학생이 아니라서 겪는 불이익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인맥과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학업을 중단한지 너무 오래 되었고, 대학에 가고는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밖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관계망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밖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2) 통합 분석

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패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패턴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 밖으로 나오는 단계, 둘째,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단계, 셋째,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단계, 넷째, 길을 다져가는 단계이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²³⁾

① 학교 제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

연구 참여자 9명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경로는 정확히 9가지 경로지만, 이를 분류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를 다니는 의미를 못 찾아서, 학교라는 제도가 싫어서,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겪어서 등이다.²⁴⁾ 이는 매우 단순한 분류이며, 두 세 가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가 싫다고 해서 다 그만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을 겪었다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 2020년 보고서(김희진 외, 2020)에서는 이 단계를 '학업중단 이전'과 '학업중단 직후 - 고등학교 학령기', '학령기 이후'로 구분하였다.

24) 2020년 보고서(김희진 외, 2020)에서는 이 유형을 '능동형', '불가피형', '도피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격발장치’가 발견되곤 한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다른 길을 발견함’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돌발 상황’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이미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 길로 직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어찌다 보니 그만 두게 된 경우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과 격발장치가 결합되었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의지’의 차원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의 의지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밀려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하위맥락과 관련된 몇 가지 선행 또는 병행조건들을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부와 답을 쌓은’ 상태였다는 것이고, 특정 직업에 대한 ‘선망’을 갖고 있거나 소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진로 탐색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이미 정해둔 청소년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일종의 ‘목표’가 있거나 가야 할 길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면,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선택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위맥락이 있다. ‘교사’와 ‘친구들’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자 할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무단 장기결석 등을 사유로 학교중단을 권하기도 했다. 심지어 교사와 갈등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 때문에 그만두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망설임 경우는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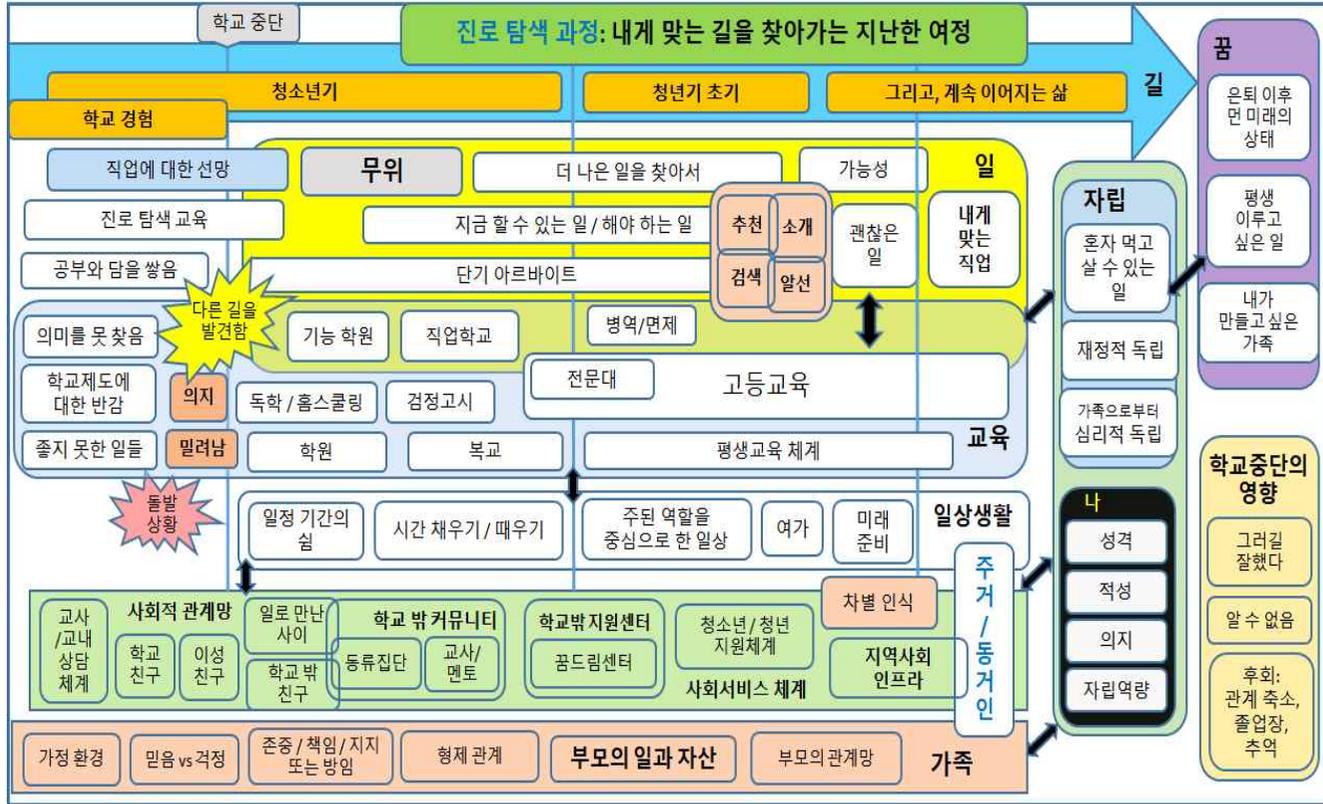


그림 IV-10. 통합된 자립의 맥락과 패턴

②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단계²⁵⁾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중단한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공부나 싫거나 학교 다니는 의미를 못 찾아서 그만둔 경우도 그렇지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학교 제도를 벗어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았지만, 어떤 연구 참여자는 1년 가까이 되었으며, 나머지 청소년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이 단계를 '무위'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말 아무 것도 안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주로 가족에 의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었다. 방 안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잠만 자거나 동네 PC방에서 '죽치고' 있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이 부모에게는 '꼴 보기 싫은' 나날들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필수적인 시간처럼 보인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 시기를 보낸 뒤 자의든 타의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가족의 요구와 바람, 권고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③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진로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 인지, 가족의 관계와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학교를 중단한 경로가 어떠한지, 이 단계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격려하는지에 따라 다음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 이 경로는 단순하게 정리되었는데, 모든 연구참여자를 학업형과 직업형, 무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윤철경 외, 2018).

25) 2020년 보고서(김희진 외, 2020)에서는 이후의 단계를 하나로 묶고 자아정체감 양상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정지형', '배회형',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아탐색과 삶의 목적,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조사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직업을 갖춰가고 있는지, 아무 것도 안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거나 소득이 없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분류하였다(윤철경 외, 2018a). 물론 2020년 조사보고서에서는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경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분류가 큰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김희진 외, 2020). 즉, 2019년부터는 학업 형이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직업형이 학업형이나 무업형으로 바뀌기도 하며, 무업형이 학업형이나 직업형으로 전환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림 IV-10에서 제시된 복잡하고 복합적인 경로를 위아래, 앞뒤로 오가며 자신만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대안은 일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는 패턴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은 ‘단기 아르바이트’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 일부는 이와 비슷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일부는 더 나은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며, 일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경로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검색과 알선, 추천, 소개 등이다. ‘검색’은 알바 앱이나 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그 안에서 구직정보가 연결되는 경우 또는 오프라인에서 찾아다니는 경우이다. 알선과 추천, 소개 등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성공패키지 같은 기관에서 구직 업체와 연결해 주는 ‘알선’, 이런저런 곳이 있으니 가보라고 하는 ‘소개’, 특정 업체에 특정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추천’ 등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무업형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하는 학업형의 경우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직업형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괜찮은 일’을 찾게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찾기도 한다. 물론 이전의

무업형 참여자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업형 참여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병행하다가 딱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대안은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패턴이다. 전형적인 공교육 제도의 경로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교육의 대안은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우선 학교중단 청소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대안은 ‘검정고시’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도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뒤 다음 경로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무작정 공부한다고 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단기 경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독학, 홈스쿨링, 학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졸업자격을 얻은 뒤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제도교육의 경로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자격을 얻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학교나 전문대,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이를 시도하지 않거나 좌절된 연구 참여자들은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평생교육 체계를 간간히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학업형’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대안은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였으며,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 안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전공이 ‘내게 맞는 직업’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괜찮은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자 하였다.

일과 교육 사이에 있는 대안은 ‘직업학교’와 기능학원 등이었다. 1년 과정의 직업학교 또는 기능학원을 다니면서 기능과 자격증을 얻게 되면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된다.

주로(이 연구에서는 모두)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이 복잡한 구조의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병역'이다. 일을 하고 있다가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다.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벌게' 되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세 번째 대안은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면서 삶을 개척해 가는 패턴이다. '개척'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이 대안은 말 그대로 이런저런 일자리들을 전전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로는 충분히 허용될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적성, 진로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마냥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부모와 가족에게 얹혀서 '식충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족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일을 안 하는 동안 의식주를 제공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특정 시점에 '무업형'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러한 안전망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패턴 내에도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 쉬는 기간이 더 많더라도 간간히 일을 하는 패턴도 있고, 교육 체계를 떠돌아다니는 패턴도 있으며, 집에 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진로 탐색을 하는 패턴도 있고,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길을 다져가는 단계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자신의 길을 이미 찾았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 길과 의미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신의 적성과 가치,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다.

이 단계의 경로 유형은 ‘괜찮은 일’이 ‘내게 맞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싶거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병역 중이거나 당장은 쉬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과 적성,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자립 단계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나아가는 청소년 → 청년기 여정의 끝에는 ‘자립’이 있다. 이 자립이라는 것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가짐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심리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회구조적 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의 의미와 자신의 자립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에 대해 일관된 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답변을 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일찌감치 심리적으로는 가족과 독립하였지만,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2020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도 자립했다고 답변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김희진 외, 2020). 그러나 심리적, 재정적으로 자립했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으며,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 예정이라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⑥ 꿈

이제 꿈을 꿀 차례다. 아직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토대로 앞으로 가고 싶은 길에 대해 전망하고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구상해 보는 것이다. 이 미래의 단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은퇴 이후까지를 포함한 미래의 전반적인 상태와 평생 이루고 싶은 일, 내가 만들고 싶은 가족이다. 다소 허무맹랑한

꿈을 진술한 연구 참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박한 소망들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사례별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중단 이후 자립으로 가는 과정의 각 단계들로부터 시야를 돌려, 조사 시점에서 이들이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고 학교중단의 영향을 평가한 것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 중단의 영향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구분한다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전의 보고서에서는 학교 중단에 대한 후회 여부를 기준으로 ‘후회 없고 만족스러움’,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운 점 있음’, ‘후회할 때가 있음’으로 구분하거나 ‘일관된 후회’, ‘일관된 후회하지 않음’, ‘일관되지 않음’ 등으로 구분하였고, 학교 중단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경험과 정신적 변화’와 ‘부정적 경험’으로 평가하였는데(김희진 외, 2020), 이는 장기적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경험과 3년에 걸친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다시 이를 재구성하면, ‘그러길(학교를 그만두길) 잘했다’와 ‘알 수 없다’, ‘후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보고서에서 분류한 후회의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거나 가끔 후회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중단 자체를 잘못된 결정으로 여기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런 경우에도 학교생활을 잘 했을 것이라고 답한 사례는 없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학교 중단은 ‘잘한 일’로 평가된다. 그 뒤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녔을 경우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 보면, 학교중단의 영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학교중단이 잘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중단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소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대목들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이었다.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도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보다 더 아쉬운 부분은 학교를 계속 다녔을 때 형성되었을 친구 관계와 그들과 ‘쌓았을지도 모를’ 학창시절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므로 평가의 영역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회의 또 다른 축은 ‘졸업장’으로 대표되는 최종학력이다. 2018년에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그 뒤로 교육체제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최종 학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아쉬워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직업학교를 나오거나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중단의 영향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평가한다면, 학교를 중단한 ‘덕분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학교를 중단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다른 길과 대안들을 모색하고 수행해 오면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맥락

이제 이러한 자립과정에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크고 작은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관계망, 사회서비스 체계, 일반 사회의 순으로 검토할 것이다.

① 가족

가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하위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중단할 때도, 중단한 이후 서성거릴

때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때도, 길을 다져갈 때도 가족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중단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환경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가정의 분위기 등을 포괄한다.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평안하게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가정환경이 학교중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학교중단을 막지 못하거나 부추기는 요인이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둘째, 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태도는 자녀들을 믿고 있는가 또는 걱정스러워 하는가 여부다. 물론 믿고 있어도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자녀에 대한 존중과 책임, 지지 또는 방임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알아서 해'라고 떠넘기거나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다. 이 요인도 학교 중단 자체에는 결정적이지 않지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이후의 단계들에서 학교 중단 청소년의 마음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형제관계다. 형제 사이가 좋을 때는 학교를 중단한 이를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롤 모델 역할을 통해 진로를 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가 나쁠 때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비난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손위형제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넷째, 어쩌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의 일과 자산이다. 부모의 일은 청소년의 롤 모델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청소년이 부모의 직업을 갖고자 할 수도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어떤 이처럼

부모의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와 가족의 자산은 학교 중단 이후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명시적, 암묵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압력이나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도전적인 진로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학업을 이어가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주거를 분리했을 경우 주거비를 내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부모의 자산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의 관계망이 진로와 자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관계망에 포함된 지인의 정보제공이나 추천, 소개 등을 통해 다음 진로와 연결되었다.

② 관계망

학교에 다니던 청소년의 관계망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와 만났던 친구들, 이웃에서 여러 가지 일로 연결된 또래들, 이성 친구, 그리고 친척들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학교폭력 등과 관련되어 그만둔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상실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쉬움 이상의 상실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업학교, 학원, 검정고시 준비반,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교육체계를 거치면서, 또는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 일부를 관계망으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관계망을 확장하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롤 모델을 찾거나 도움을 주고받는다 고 진술했다.

‘친척’ 체계는 학교 중단 과정이나 이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친척의 도움으로 진로를 발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상당수 연구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관계망의 요소는 ‘이성친구’였다. 이성친구가 있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였으며,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추천, 권고를 받아 진로를 정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이성친구 때문에 진로를 정한 사례도 있었다.

가족이나 위에서 언급한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유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망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학교 밖 커뮤니티’다. 물론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회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러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거나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연결된 다수의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만나거나 연결된 다른 청소년들과 어렵지 않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거나 참여하였고, 관계망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자신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과 생각과 생활을 공유하고, 지지해 주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리고 그곳의 교사나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고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많은 연구 참여자가 자립을 향해 큰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 물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합류하거나 주도적으로 구성한 연구 참여자도 있으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③ 사회서비스 체계(사회적 지원체계)

이 연구의 초점이 사회적 지원체계가 자립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 하위맥락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가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고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여성가족부, 2020)²⁶⁾ 빈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질과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접근성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다수가 이러한 지원체계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아도 명목상으로만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용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든 서비스 접근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부의 참여자들은 지원체계의 존재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았더라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체계와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양적, 질적으로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하였다. 이 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이 나열한 서비스의 목록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다는 홍보와 접근성 촉진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사회 인프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는 이들의 진로탐색과 자립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지원을 위해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등을,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업역량강화사업, 진로교육활동, 직장체험, 내일이룸학교 연계 등의 지원을, 이외 자유공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 등과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개별청소년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0:196).

지역사회 인프라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직접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사회 안에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고, 접근성이 높은지에 따라, 그리고 주거정책과 교육정책, 고용정책,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자립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이제는 청년)들이 그 중요성과 영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영향 자체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각해 봤더라도 정보기술 수준의 보편화로 인해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즉 온라인이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지원체계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의한 한계나 차이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일반 사회

일반 사회 맥락은 ‘차별 경험’으로 제한되어 분석되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중단 이후 청소년기에 아무런 또는 별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수는 충격이라고 할 만큼 큰 차별을 경험하거나 자주 차별 상황에 직면하거나 차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직접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하였다. 실제적인 차별 경험으로는 학생증은 받아주면서 청소년증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중졸 또는 고졸 학력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자신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2) 2021년 면접 추가 사례

여기에서는 2021년에 중소도시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5개 사례 중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진술한 세 사례를 표집하여 맥락 - 패턴을 분석하고, 전체 사례에 대해서 지역사회 지원경험에만 초점을 둔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연령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1) 사례별 분석

가. 사례 10 : 97년생 여성 - 직업형

사례 10은 97년생, 25세 여성이다. 그는 2018년에 무업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당시에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2021년 면접에서는 직업형으로 명명되었다. 그가 학교 중단 전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온 자립과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했는데,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따돌림을 당했던 일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점차 마음이 약해지면서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학교를 그만 두고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자신도 자퇴하고 지내도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에 친한 친구들은 모두 다른 반에 있었고, 교사도 특별히 잡아주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학교를 안 가고 회피하였다. 학교를 중단할 당시에 딱히 다른 계획은 없었고, 집안에서 미용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례 10은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부모의 돌봄을 받았는데, 조부모는 공부하는 대신 기술을 배우겠다는 말을 믿고 동의했다고 한다.

자퇴하고 얼마 뒤부터 친구를 따라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 생활했으며, 바로 일을 시작하여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다고 한다. 사례 10은 매우 다양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18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한 달 만에 합격하였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고졸 학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고졸이 필수적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간호조무사를 지켜보게 되었고,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딴 뒤에 구인사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 현재 그는 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 급여, 동료 관계 등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보니 간호사보다 일은 더 하는데, 보상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을 깨닫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가 더 나은 직업을 바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일단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수강료를 지불하기도 힘들고 공부를 병행하기도 힘들어서 잠시 학업을 쉬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 10에게 자립은 ‘어른으로서 자유를 책임지는 것’인데, 자신은 경제적 자립은 했지만 아직 생각이 어리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루지 못한 것,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자존감이 낮다고 하였다.

사례 10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맥락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는데, 관계는 좋지만 자립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나중에는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회적 관계망도 그리 촘촘해 보이지는 않는다. 친구들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현재 남자친구는 의지가 되지만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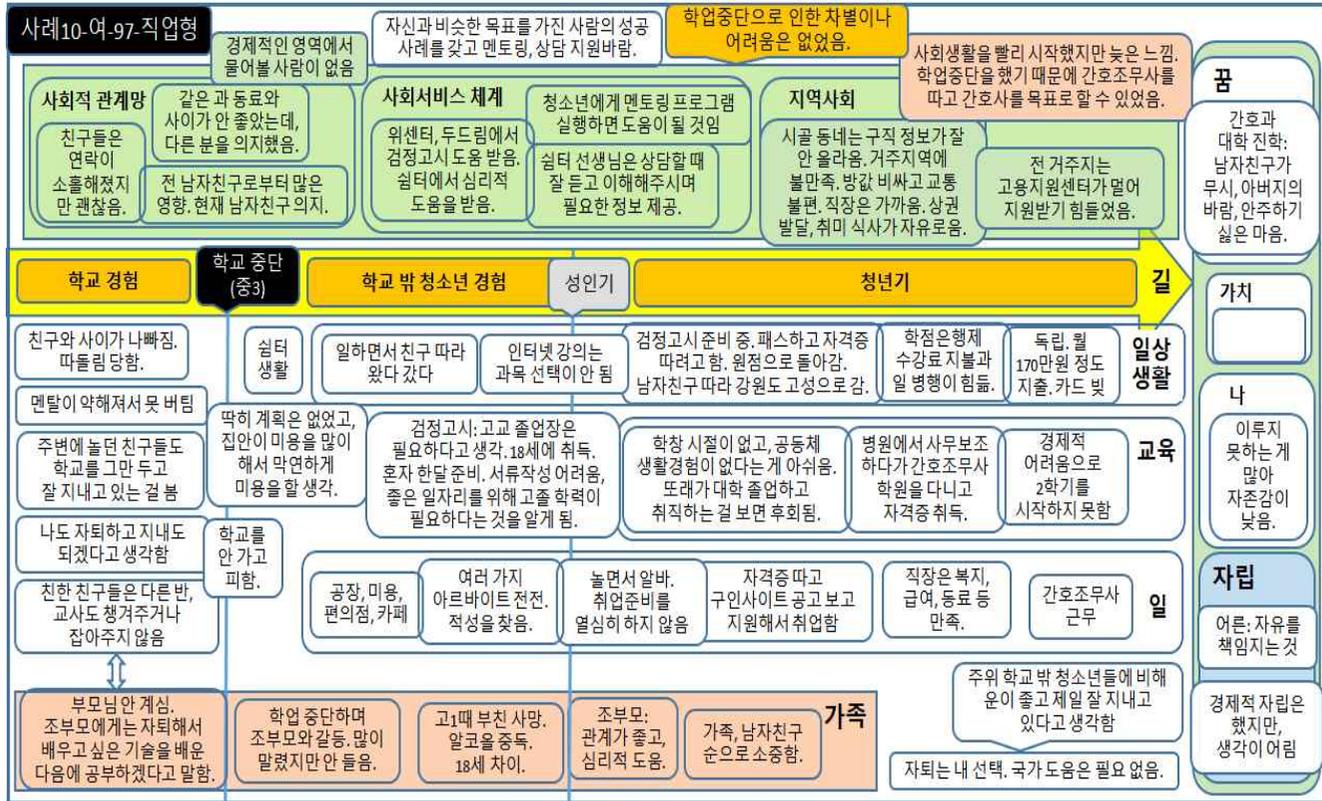


그림 IV-11. 사례 10의 자립 맥락과 패턴

오히려 사례 10은 사회서비스 체계로부터 비교적 많은 도움을 받은 편이다. 학교중단 이후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인 도움과 정보를 얻었고, 위센터와 두드림센터에서도 검정고시 등의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원이 일자리를 얻거나 자립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체계가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성공 사례 등을 기반으로 멘토링이나 상담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례 10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차별이나 어려움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학교중단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지만, 무익하게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아 오히려 늦은 느낌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간호사를 목표로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창 시절이 없고 공동체 생활경험이 없다는 점은 아쉬우며, 또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걸 지켜보면서 후회될 때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 군 단위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시골 동네는 구직 정보가 잘 안 올라오며, 지역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방값도 비싸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신 직장은 가까우며, 상권이 발달해서 취미와 식사가 자유로운 것은 장점이라고 하였다. 이전 거주지는 고용지원센터가 멀어서 지원받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불편은 없다.

나. 사례 11 : 95년생 남성 - 직업형

사례 11은 95년생, 27세 남성이다. 그는 2018년에 무업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사례 10처럼 면접 기간에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학교중단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1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학교생활이 지루했고, 사람들과 잘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교 내 인간관계가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든 교사든 각 개인에 자신을 맞추는 게 싫었고 억압을

당하는 느낌이 싫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과 검정고시를 빨리 보고 돈을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학교에 안 나갔고, 특별한 장애물 없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는 2 - 3개월간 그냥 놀았다. 그러다가 부모가 추천한 학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몇 달 만에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 남들이 다 하니깐 그냥 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직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19세부터 22세까지 ○○에서 혼자 자취를 했으며,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일을 했다. 서비스업, 일반 회사, 공장 등 다양한 일을 했는데, 대체로 계약 기간을 정해서 일했고, 어차피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니 다른 데 가서 일하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12세부터 시작한 게임을 발전시켜서 22세가 될 때까지 계속 했으며 한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고 TV에 나오기도 했다. 프로그래머 활동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했던 일들은 지루하거나 근무시간 패턴이 들쭉날쭉이라서 힘들었다고 했다.

2018년 면접에서 사례 11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인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었고, 일본어와 영어도 공부하는 등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1년 면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계획이 중단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친구 소개로 취업한 곳에서 휴양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자리를 고려할 때 돈과 시간, 거리 등을 따진다고 했는데, 현재 직장은 정직원에 사회보험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되는 괜찮은 곳이라고 했다. 덕분에 고민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썩먹기 쉬우리라는 예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면서 중장비 자격증 취득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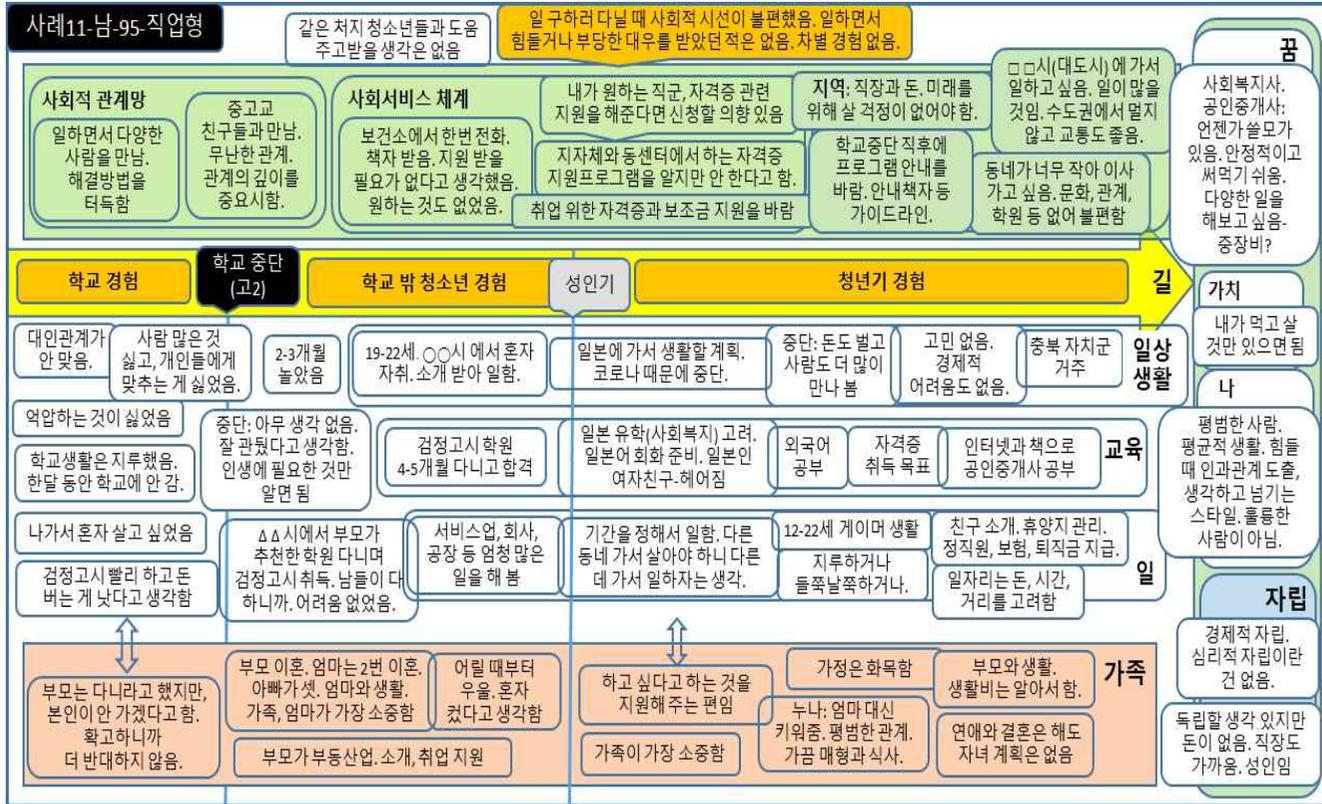


그림 IV-12. 사례 11의 자립 맥락과 패턴

사례 11에게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며, 심리적 자립이란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독립할 생각이 있지만 돈이 없으며, 직장도 집 근처로 가까워서 당장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은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의 자립과정에 영향을 미쳐 온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와 누나로 구성된 그의 가족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두 번 이혼을 했고, 그에게는 3명의 아버지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당시 부모가 그의 학교중단을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감에 빠져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족은 화목한 편이라고 느끼지만, 그가 지금의 세 번째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고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 그에게 자유로움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관계의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진술에서 쉽게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는 진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체계와 관련해서, 그는 보건소에서 한번 전화를 받고 찾아가서 책자를 받은 것 외에는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안 하겠다고 답하였다고 했다. 일단 지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하는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직군이나 자격증과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의향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중단 직후에 프로그램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하였다.

그는 일을 구하러 다닐 때 사회적 시선이 불편했다고 했으나 일을 하면서는

힘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였고, 차별 경험도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지원체계 경험과 관련하여, 그는 현재 지방의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네가 너무 작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였고, 문화, 대인관계, 학원 등이 없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도시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곳에는 일이 많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멀지 않으며, 교통여건도 좋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 사례 12 : 96년생 여성 - 직업형

사례 12는 96년생, 26세 여성이다. 그는 2018년 면접 후 직업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해 왔다. 그의 자립과정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고등학교를 두 번 자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퇴는 고등학교 입학 후 첫 학기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안 나가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대신 자퇴 처리를 하고 왔다. 그러고는 1년 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복을 입고 찾아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복학할 결심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당시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였음)로 재입학을 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학교를 그만 두었다. 2018년 당시 사례 12는 단순히 학교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이후 면접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중학교 1~2학년 동안 사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과정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싫어졌고, 학교에 다니기도 싫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연루되고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퇴학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퇴를 결정한 셈이었다. 처음에 학교를 그만둘 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두 번째 자퇴 시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곧바로 독학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그에게 학교는 추억이며,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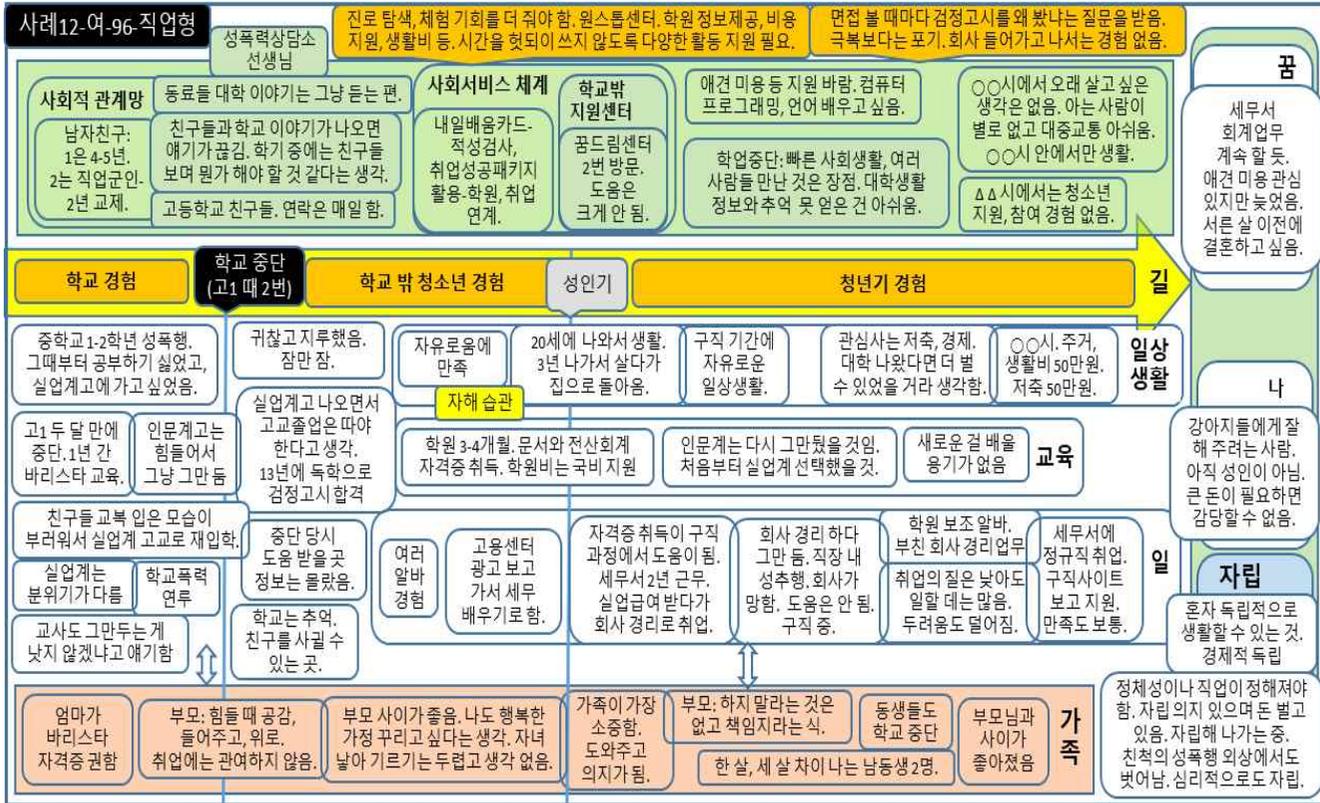


그림 IV-13. 사례 12의 자립 맥락과 패턴

사례 12는 학교 중단 이후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을 경험하였다. 그러다가 고용 지원센터의 광고를 보고 가서 상담한 이후 세무 업무를 배우기로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세무서에 연결되어 2년 간 근무했다. 그러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두 군데 회사의 경리직으로 취업하여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회사는 회사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면서 그만두게 되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 면접에서는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아버지 회사의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2021년 면접에서는 다시 세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구직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는데 합격하였고,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 경험을 통해, 사례 12는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 학력으로도, 취업의 질은 낮더라도 일할 데는 많다는 생각과 두려움도 덜어진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례 12는 20세에 주거를 분리하여 3년 간 혼자 생활하다가 최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유로움에 만족하였으며, 구직 기간에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현재 그의 소득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관심사가 저축과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대학을 나왔다면 더 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비쳤다.

사례 12에게 자립은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경제적 독립’이며, 정체성이나 직업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자립 의지가 있으며,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자립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성폭행 외상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심리적으로도 자립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아직 성인이 안 되었으며, 그 이유로 큰 돈이 필요해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당분간 세무서 회계 업무를 계속 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이전부터 애견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그리고 서른 살 이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가 자립해 온 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의 가족이다. 그의 어머니는 학교중단 이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추천해 줌으로써 그의 자립에 영향을 미쳤다. 힘들 때 공감해 주고,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취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딱히 하지 말라는 것이 없지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철학 덕분이었을까. 그의 두 남동생도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모두 학교를 중단했고, 이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의 부모는 사이좋은 부부관계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사례 12가 결혼할 의사를 갖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망도 좋아 보인다. 2018년 면접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는 4~5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좋지 않은 일로 정리되었고, 2021년 면접 당시에는 직업군인과 2년째 교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매일 연락할 정도로 여전히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들이든 직장 동료들이든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등학교나 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는 편이다.

사례 12는 이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유난히 사회서비스 체계를 유용하게 활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적성검사를 받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여 학원을 다녔으며, 취업도 연결되었다. 그리고 꿈드림센터에도 2회 방문하였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하였는데,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더 줘야 하고, 정보를 한데 모아 한 자리에서 제공해주는 원스톱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며, 학원 정보제공, 비용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추가되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애견 미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바라며, 자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언어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사례 12는 이전에 살던 대도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는 학업중단이 빠른 사회생활을 촉진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와 추억을 갖게 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언급하였다. 차별 경험과 관련해서는 면접을 볼 때마다 면접관들이 검정고시를 왜 봤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이미 차별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회사에 일단 들어간 이후에는 차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지원경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들었다.

(2) 지역사회 내 지원경험에 대한 통합 분석

앞선 사례별 분석에서는 2021년에 새로 면접을 수행한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3명을 표집하고, 이들에 대해 맥락 -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의 초점은 원래 '대도시와 중소도시라는 지역사회 규모의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경험의 차이'에 있었다. 이를 위해 일부 사례들만을 표집하여 맥락 - 패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사례별로 맥락 - 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자립의 맥락과 패턴에서는 기존 사례들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 맥락에서 지역사회 지원경험이 차지하는 부분도 작았고, 해당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이러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 2021년 전체 추가 사례인 연구참여자 15명의 녹취록을 모두 분석하기로 하였고, 각 자료에서 지역사회 경험에 대한 부분만 따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 - 3과 같다.

이 분석결과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익숙함',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 '편리함', '물리적 환경' 등이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불편함'과 '부족함'으로 구성되었다. <불편함>은

‘교통이 불편함’, ‘쇼핑하기 불편함’, ‘주거비가 비쌌’을 포함하며, <부족함>은 ‘아는 사람이 없음’, ‘다른 지역보다 지원이 적음’, ‘정보나 시설, 자원이 부족함’, ‘서비스가 부족함’ 등을 포함하였다. 즉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현재 청년)들은 교통과 쇼핑의 불편함을 느끼고, 일부의 경우 주거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며, 더 큰 도시나 광역시보다는 지원이 적고, 정보나 시설, 자원, 서비스 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거주해 온 중소도시가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 아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활환경 안에 살고 있으며, 더 편리한 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자연환경도 더 낫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대도시는 풍부한 자원과 서비스, 편리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지만, 주관적인 측면과 일상생활에서는 중소도시가 익숙하고, 편안하며, 여유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IV-3.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

범주	개념	의미단위
생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과 직장 - 코로나19로 갇혀 삶 - 귀찮아서 안 나감 - 직장을 중심으로 결정됨 	<p>집은 OO, 회사는 △△, 놀 때는 OO 시내. 직장과 집 사이를 왔다갔다 무한반복. 대도시에서 살아봤지만 집과 회사 사이만 왕래. 집(▽▽)과 직장(◎◎) 사이만 왔다 갔다 함. 다른 데는 아예 안 나감. □□에 갇혀 살고 있음. 스무 살 초반에는 많이 나가서 놀았는데, 지금은 나이 먹어 귀찮음. <<에서만 생활. 대도시엔 영업제한이 있지만 <<에는 없음. 일 때문에 이사를 아직 안하고 있음.</p>
지역 내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 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 - 몰랐음 - 이용 경험 없음 - 이용하기 어려웠음 	<p>청소년센터에서 검정고시 문제집 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 지원. 교육청 위센터에서 연결. 지역사회에서 재정지원 받은 적이 없음. 청소년지원센터 등 이용 경험 없음. 취업패키지로 중장비 학원 등록. 고용지원센터가 있었지만, 너무 멀어 지원을 받기 힘들었음. 지원받기 위해 이사하고 싶음.</p>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스톱 센터 - 실제 필요한 정보 제공 	<p>원스톱 상담센터가 필요함. 또는 앱 등으로 연결. 부동산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가르쳐주면 좋겠음.</p>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함 	<p>좋음. 아쉬운 부분은 없음. 원래 생활하고 알던 지역이라 만족하고 삶. 통근 시간이 길지만 익숙해져서 괜찮음. >>에서 살 때는 만족. 좋고 편하고 익숙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 	<p>가족, 친구, 친인척이 모두 ㅁㅁㅁ에 있음. 가족들이 □□에 있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쪽에 가서 살고 싶음. 친구들도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만족스러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함 	<p>사람이 없어서 OO가 좋음. 복잡한 데가 싫음. 수도권에서 멀지도 않고 교통도 좋음. 출퇴근 시간이 줄어 몸이 편함. 주변에 상권이 활발해 취미활동,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지하철, 마트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p>산책하기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괜찮음.</p>

범주	개념	의미단위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p><불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이 불편함 - 쇼핑하기 불편함 - 주거비가 비쌌 	<p>교통 - 차가 없으면 어려움. 학교 다닐 때는 걸어서 20분 내에 센터가 있었음. 버스정류장이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함.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갈 수 없음. 집이 후미진 곳이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함. 버스 편도 적고 간격이 깊.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만족하는 부분은 없음. 여기는 기차가 없고 교통이 불편함. 마트나 교통편은 불편해졌음. / 대도시엔 대형마트가 있어서 좋았음. / 방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대학가가 없어 원룸이 별로 없음.</p>
	<p><부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사람이 없음 - 다른 지역보다 지원이 적음 - 정보나 시설, 자원이 부족함 - 서비스가 부족함 	<p>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대중교통이 아쉬움. 다른 지역에서 주는 청년지원금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OO에는 직업체험, 강의 등을 들을 기회가 없음. 정보도 알려주면 좋겠음. ▽▽에 어린이병원이 없어서 ◎◎까지 나가야 함. 문화센터가 적어서 갈 곳이 많이 없음. 진로나 직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에 비해 적음.</p>
거주이전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위해 - 더 나은 조건의 직장 - 더 나은 복지 - 일이 더 많음 - 살기 좋은 지역 -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역 	<p>아기를 위해 더 나은 곳으로 나갈 생각은 있음. 직장에서 급여를 더 주거나 복지시스템이 좋다면 갈 생각이 있음.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큰 도시인 ◇◇으로 가고 싶음.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라서 일해보고 싶음. 사람이 많으면 일도 많을 것 같음. 만약에 그쪽 동네가 살기도 좋고, 집세가 괜찮으면 이사를 갈 것 같음. 직장, 돈. 서울은 여가활동 측면에서 편리함.</p>
거주이전 방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움 -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임 - 지출이 더 많이 듦 - 집안 형편 	<p>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살고 싶지만 두려움이 있음. 다른 지역에 가도 생활은 똑같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듦. <<이 싼 편. 그게 아니라면 직장이 원래 있는 동네에서 계속 일할 거 같음. 난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할 것 같음. 집안 형편 때문에 머물러 있음.</p>

* 주 : 지명표기는 익명화하였으며, 같은 지역은 동일기호로 표시함.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학교 밖 지원체계의 내실화 전략과 접근성 향상 전략,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전략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학교 밖 지원체계의 내실화 전략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레퍼토리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안 하였는데, 그중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확장하면 모두 가능한 사업들이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보완하며, 그 밖의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다음 진로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두 번째, 기존의 학교 제도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학교나 대안학교, 기술·기능직 학원, 특성화 고등학교 연계 등을 실시하며, 세 번째,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네 번째, 쉼과 마음의 치유, 관계 회복을 위해 심리사회 지원프로그램과 쉼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독립이 필요하므로 각종 주거지원 사업들과 연결해 주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재정관리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지속적, 체계적 서비스 체계이다.

둘째, 접근성 향상 전략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수준을 분류하면, ‘들어본 적이 없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알고 있었고, 이용하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거나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이용해 보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지만, 그 밖에 이용할만한 것이 없었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중단하기 이전부터 이 서비스 체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학교 교사와 상담교사,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기낙인이나 사회적 낙인을 얻을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미리 서서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더 큰 그림에서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전략이다. 첫째, 아동 - 청소년 - 청년기 초기로 이어지는 개방적, 포괄적 진로탐색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은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며,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졸업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

되고, 청소년들의 적성에 맞는 학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즉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의 참여자를 포함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시선이나 말과 행동, 실제적인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라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진로를 개척하고, 자립해 가려고 하는 이들의 용기와 도전을 수용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해 보인다.

○ —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1. 연구 요약
- 2. 통합적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이 협동연구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전에 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18~2021년 어떻게 청소년기 및 성인기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학교 밖 경험 인식 변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의 경험’을 주제로 하는 3가지 연구로 구성되었다.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종단적 질적자료를 통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자료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재생활, 학업 및 취업 관련 진로발달, 학교중단 인식, 자립 실태, 지역사회 지원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방대한 면접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각각의 다른 초점을 가진 세 가지 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가는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1)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27) 제5장은 서고운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지원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참여자들은 2020년 기준 25세 이상인 청년들로 한정하였고(성인기의 경험 분석을 위하여), 학교 중단 시기가 고등학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 또한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3개 년도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 생활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다르게 경험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 분야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경험이 해석되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선택의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궤도를 벗어난 낙오자가 된 것 같고’라는 주제어 요약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을 숨겨야한다는 주위의 피드백을 듣기도 하였으며, 교복 입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성인기에는 ‘이탈한 궤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되었는데, 출발이 달라서 열심히 하고 싶기도 하였으며, 남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였다. 둘째,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이정표 없이 거친 길을 찾아 나서는’이라는 주제어로 경험들이 요약되었다. 도와주는 곳이 없어 혼자 버겁기도 하였으며, 막연함을 느끼고, 학교 보호막 없는 상태에서 지쳐가기도 하였다. 성인기에도 여전히 ‘질은 안개 속에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되었는데, 성인기가 되었지만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은 후회, 망설임과 포기, 방향, 떨어지는 자신감들로 설명되었다. 셋째, ‘학교 밖에서의 도전’에서는 청소년기에는 ‘학교 밖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게 되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되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부모의 지원을 받고, 사회생활 시작 혹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에는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되었는데,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경험들을 하였다. 넷째,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청소년기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여전히 상처받고 주눅 드는’이라는 주제어로 요약되었는데, 문제아 취급으로 상처받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험들을 하였다. 성인기에는 ‘편견을 이해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로 요약되었는데, 학교 중단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편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정책분야로는 보호체계의 강화, 인생의 터닝포인트 기회 제공,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극복,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적인 힘 강화가 제시되었다. 각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확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충원 및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기회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경험의 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대학지원에 대한 기회의 다양화가 제시되었다. 셋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에 관한 홍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적인 힘 강화시키기 위하여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기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 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의 부정적 생애 경험과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적어도 2개 년도의 면접조사에 참여했으면서, 학교 중단의 계기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과 관련이 되어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갈등, 해체, 가난 속에서의 돌봄의 부재와 방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으며, 심리·정서적 장애(우울)를 앓고 있거나, 학교폭력 혹은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현재의 상태를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불안과 우울의 상태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주도적인 삶의 의지를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 불안과 우울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아동기 시절의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현재의 불안과 우울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만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은 스스로 일구어 왔던 독립적인 삶과 일의 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미래의 꿈을 꾸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원동력은 주변과의 관계였다. 가족, 친구 직장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들의 영향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소중한 내 편인 가족,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와 연인, 위로가 되어주는 주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했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가난은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방해물이 되었다.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청소년들이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관계로부터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관계를 통한 지지체계의 구축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종단연구」 요약

해당 연구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간 면접에 참여한 9명의 종단자료와 2018년, 2019년, 2021년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자료를 대상으로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경험을 탐색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자 총 15명의 ‘지역 사회 경험부분’이 분석되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개 년도 면접자료를 보유한 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패턴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었다. 첫째, 학교 제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에서는 ‘격발장치’가 발견되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학교라는 제도가 싫은 상태에서, 이미 가고 싶은 길이 굳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격발장치’로 작용)했을 때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으며, 불가항력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교사가 학교 중단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을 하는데 친구의 영향이 있었다. 둘째,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단계는 청소년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다. 셋째,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단계를 몇 가지 대안으로 나뉘어졌는데, 일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는 패턴,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패턴, 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면서 삶을 개척해 가는 패턴이다. 넷째, 길을 다져가는 단계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직업, 괜찮은 일을 찾아 진행하는 경우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립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맥락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 맥락을 들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가정분위기를 포함하는 가정환경, 부모의 태도, 형제자매, 부모의 일과 자산은 청소년의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관계망도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 친구들과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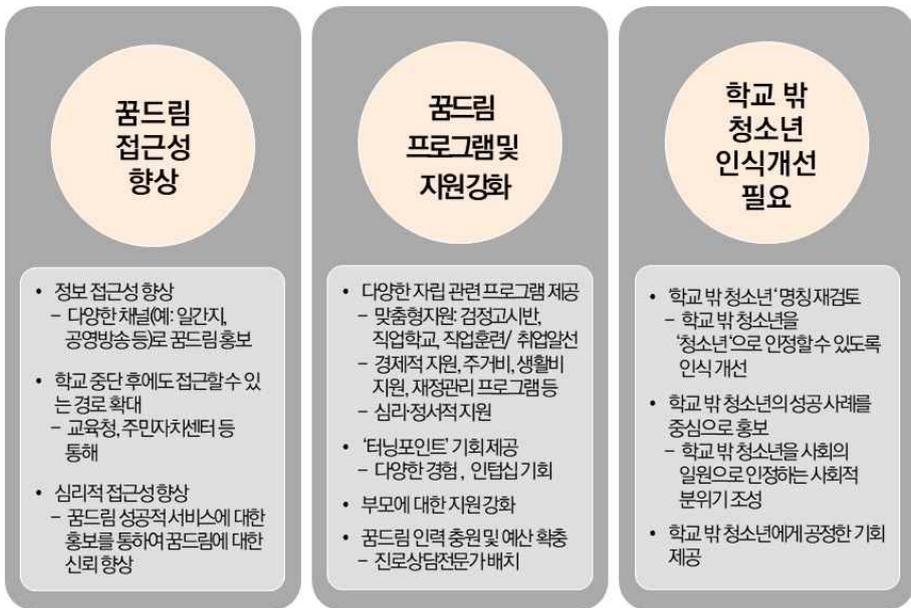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교를 중단한 이후 직장, 직업학교, 학원, 검정고시 준비반, 군대 등에서 관계망을 확장하였다. 셋째, 사회서비스 체계(지원체계)도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도 청소년의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도 자립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19년, 2020년 3개 년도 면접자료를 보유한 중소도시·읍면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자료 중, 3명의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체 15명의 녹취록에서 ‘지역사회 경험’부분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익숙함’,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불편함’(예 : 교통의 불편함, 쇼핑의 불편함, 비싼 주거지), ‘부족함’(예 : 아는 사람이 없음, 지원·자원이 적음)이 지역 사회의 경험으로 꼽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 정책제언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교 밖 지원체계의 내실화 전략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양을 확대하고 질을 보완하여 좀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성 향상 전략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자립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을 학교를 다니는 시기, 아동기로 앞당겨야 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

2. 통합적 정책 제언

세 개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의 종단데이터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겪게 되는 경험들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학교를 중단한 이후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한 이후 어떠한 자립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략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총괄보고서의 조사결과와 통합하여 함께 제안하였다.



주 : 각각의 상세 정책과제는 총괄보고서의 조사결과에 기초한 내용과 통합되어 제시됨.

그림 V-1. 통합적 정책 제언

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정책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그림 V - 1). 첫째, 꿈드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채널로 꿈드림을 홍보하여 꿈드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꿈드림의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협동연구들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로 과정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반, 직업학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하여 자립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거비 및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터닝포인트’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의 과정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스스로 ‘터닝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꿈드림 인력 충원(예: 진로상담교사) 및 예산 확충을 통하여 보다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가 되어 학교 밖 청소년이 정당한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 (2021.8.28.).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2&lev=0&m=02>에서 2021년 8월 25일 인출.
- 권지성 (201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맥락 - 패턴 분석 방법 :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서울 : 학지사.
- 김덕건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외상이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김순석 (2014).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3), 127 - 14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 - 31.
- 김수연 (201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15). 검정고시를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경험 - 학교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1 - 157.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 집문당.
- 김정희, 김광병 (2020). 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청소년복지연구**, 22(3), 253 - 275.

- 김현주, 박재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학업 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119 - 130.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연구보고 20 - R14).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 아동기 학대 ·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연구보고서 2018 - 49).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명소연, 조진욱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연구지**, 24(2), 75 - 98.
- 문성호, 노지혜 (2020).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7(2), 439 - 466.
- 박진우, 허민숙 (2021).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00호**. https://www.assembly.go.kr/common/download.do?fid=bodo1&a.bbs_num=51205&file_num=50190&fpath=Bodo 에서 2021년 10월 2일 인출.
- 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27 - 251.
- 백승호 (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통합적 지원을 받은 학업중단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덕희, 테레사편 (2017).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에 관한 종단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7(3), 57 - 98.
- 안우철, 김정임, 김혜경, 김진영, 박영호, 김태현, 윤세란, 김태호, 황현지, 유예열, 주요한 (2019).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 개발 연구**.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오은진, 장희영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연구보고 20 - R14 - 1).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진이, 신호민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위한 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6(2), 29 - 36.
- 윤철경 (201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부모지원 정책 제안.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18, 43 - 74.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 - 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b). **2018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 2018 - 19). 서울 : 여성가족부.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3 - R18).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은 (2021).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2), 93 - 125.
- 이재희, 이경상 (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 - 153.
-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 - 267.
- 이지연, 조아미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1), 55 - 82.
-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 - 180.

-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40, 157 - 189.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 - 562.
- 장근영,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9 - 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효정 (2016). **지각된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유형과 사회적 낙인감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2(3), 201 - 228.
- 조윤정, 황소리, 오민아 (2018).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4(6), 375 - 393.
- 조혜영, 김영란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 경험 연구. **미래교육연구**, 8(3), 63 - 92.
- 홍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89 - 118.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 - 258.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Mill Valley, CA : Sociolog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홈페이지]

- 매일경제. 헌법재판소 "검정고시 출신, 교대수시 응시 제한은 위헌"(게시 : 2017. 12.2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2/858884/>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29.). 고등부 선수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461에서 2021년 10월 6일 인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4.22.).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742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블로그(2020.12.16).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간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stats/school;jsessionid=gZH7HGv1CdRarbsuoO63UvqRxYBYhClmtPYLopwbQhW6ozU1JnL1cyZYJMZhiSXO?menuCd=0101&cd=498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국문초록

본 협동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및 자립 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질적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3개의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삶에 심리·정서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지원 경험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는 해당 연구주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학교 밖 생활 및 이후 청년기까지의 경험에 대한 질적 종단연구’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개방코딩, 범주화, 축코딩, 선택적 코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는 아동기 시절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총 1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료를 토대로, 귀납적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현 20대 중반 청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총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맥락-패턴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중 '지역사회 경험' 부분을 발췌하여 집중분석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① 꿈드림 접근성 향상, ② 꿈드림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의 3가지 정책적 방향성이 제안되었다. 각 방향성은 세부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꿈드림 접근성 향상'은, '정보 접근성 향상', '물리적 접근성 향상', '심리적 접근성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꿈드림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는 '다양한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터닝포인트 기회 제공', '꿈드림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은 '학교 밖 청소년 명칭 재검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질적종단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인기로의 이행, 자립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 - based Support for Out - of - school Youths IV : A In - Depth Analysis of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This cooperative study used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n out - of - school youth from 2018 to 2021 for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youth's transition to adulthood and independence.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that support the independence of out - of - school youth. Three different research themes were analyzed based on a large amount of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that were collected from adolescents who had dropped out of schools in the past. First,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on Out - of - School Life and Life after Adolescence' analyzed how the youth's perceptions of out - of - school experiences changed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Second, the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 Emotional State of Out - of - School Youth' examined from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erspectives how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were related to the youth's lives after they dropped out of schools. Finally,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Experiences of Out

- of - School Youth (Currently Young People in Their Mid - 20s)' examined the experiences of such youths and analyzed their experiences of community support in the process.

Each study was conducted using appropriate analytical methods to ensure effec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on Out - of - School Life and Life after Adolescence' analyzed the data of 12 out - of - school adolescents through open coding, categorization,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 Emotional State of Out - of - School Youth' used the data of 14 out - of - school adolescents with negat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inductively analyzed research themes. The 'Qualitative Study on the Independence Experiences of Out - of - School Youth (Currently Young People in Their Mid - 20s)' conducted a context-pattern analysis on 12 youths. Additionally, the 'community experience' aspect was analyzed with the qualitative data of 15 adolescents.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f out - of - school youth suggested three policy directions : 1) improving accessibility to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s, 2) initiating the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 program and strengthening community support, and 3) improving awareness about out - of - school youth. Each direction was composed of detailed policies. The 'improving accessibility to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s' was composed of 'improvement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improvement of physical accessibility,' and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accessibility.’ The ‘initiating the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 program and strengthening support’ comprised ‘provision of various independence programs,’ ‘provision of turning point opportunities,’ and ‘expansion of workforce and budget for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s.’ Finally, ‘improving awareness about out - of - school youth’ consisted of ‘reviewing the name for the out - of - school youth,’ ‘creating advertisements focusing on successful cases,’ and ‘providing fair opportunities.’

Keywords : Out - of - school youth, qualitative longitudinal data,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 transition to adulthood, independence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육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 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 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 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 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시과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운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인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닛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 -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 - 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 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 기관 성과공유 워크숍(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자 문 진 ◆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 · 교수)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 · 교수)

조 혜 영 (공주교육대학교 ·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연구보고 21-R15-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36-7 94330

979-11-5654-334-3 (세트)